

광주 청년문화 활성화 정책 보고서



광주문화재단
Gwangju Cultural Foundation

광주 청년문화 활성화 정책 보고서



광주문화재단
Gwangju Cultural Foundation

제1장 결과 요약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4
1) 연구 범위	4
2) 연구 방법	4
3. 청년, 청년문화, 청년문화 정책	6
1) 청년과 청년문화의 정의	6
2) 청년문화 정책의 의미와 지향	7
3) 청년문화의 영역들	8
4. 청년문화 실태 분석	10
1) 청년의 문화적 실천	10
2) 청년의 여가	11
3) 청년과 문화공간	13
4) 청년의 행복과 만족	15
5. 정책적 제언	16
1) 광주광역시 기존 청년문화 정책의 개선 방향	16
2) 청년의 삶과 청년문화 정책의 지향	
3) 청년 세대의 내부 집단별 차이와 집단별 문화정책의 지향점	18
4) 청년문화의 다양성과 문화정책	21
5) 청년 문화공간 정책	24
 제2장 서론	 25
1. 연구배경 및 목적	27
2. 연구 범위 및 방법	28
1) 연구 범위	28
2) 연구 방법	28
3. 청년, 청년문화, 청년문화 정책	32
1) '청년'과 '청년문화' 개념 검토	32
2) 청년과 청년 정책	35

3) 청년문화 개념과 청년문화 정책 현황	43
4. 광주광역시 청년 현황	51
1) 인구 현황	51
2) 경제 현황	54
제3장 해외 청년문화 정책 현황과 사례	59
1. 국가별 청년문화 정책	61
1) 유럽	61
2) 미국	62
3) 일본	63
2. 분야별 해외 청년문화 정책	64
1) 청년 축제 _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65
2) 공간 _ 프랑스 퐁피두 센터	66
3) 문화예술인력 지원	68
제4장 청년 실태조사 자료 분석 및 시사점	73
1. 광주 청년의 문화적 실천	75
1) 일상문화활동	76
2) 대중문화 이벤트	79
3) 예술 향유	82
4) 문화예술 창작	88
5) 문화실천의 만족도	91
6) 소결	95
2. 청년의 여가와 생활문화	104
1) 여가 시간	104
2) 여가 활동	106
3) 온라인 여가 활동	114
4) 소결	124

3. 청년 문화공간과 공동체적 활동	127
1) 청년 문화향유 시설 이용 실태	127
2) 청년공간	136
3) 동호회	145
4) 소결	151
4. 청년의 행복과 만족을 만드는 조건	153
1) 행복점수	153
2) 소결	154
5. 광주광역시의 청년문화 정책 평가	156
1) 청년 도시 이미지	156
2) 광주 청년 축제 평가	163
3) 청년문화 정책 평가	167
4)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향	172
5) 소결	199
제5장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 제언	201
1. 광주광역시 청년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	203
2. 청년의 삶과 청년문화 정책의 지향	205
1) 청년문화 정책의 지향점	206
2) 청년 문화의 가치 지향과 정책 방향	209
3. 청년 세대의 내부 집단별 차이와 집단별 문화정책의 지향점	211
4. 청년문화의 다양성과 문화정책	215
5. 청년 문화공간 정책	219
6. 이후 사업 방향 제언	220
1) 청년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220
2) 청년 생활문화 활동 지원	221
3) 취업자 청년 문화예술 창작 제고	221
〈참고문헌〉	223

〈표 목차〉	
【표 1】 서베이 리서치 개요	5
【표 2】 FGI 개요	6
【표 3】 집단별 문화 인식 및 실태 차이	18
【표 4】 광주광역시 청년문화실태조사(2017) 개요	29
【표 5】 광주광역시 청년문화실태조사(2017) 조사 내용	30
【표 6】 청년문화실태조사 FGI 개요	32
【표 7】 국가 주요 청년 정책(2016)	38
【표 8】 지역별 청년기본조례 제정 현황	40
【표 9】 2016년 광주광역시 주요 청년 정책 현황	41
【표 10】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청년문화 정책	44
【표 11】 지자체별 청년사업 현황	45
【표 12】 지자체별 청년문화 정책 현황	46
【표 13】 부산광역시 2016년 추진과제	48
【표 14】 광주광역시 청년문화 정책 현황	50
【표 15】 시도별 청년 인구 및 비율	51
【표 16】 광주광역시 구별·성별 청년 인구	52
【표 17】 광주광역시 청년 전출입 통계	53
【표 18】 가구별 월평균 소비지출 항목	55
【표 19】 2015년 광주 청년층 취업자 수	56
【표 20】 광주지역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현황	56
【표 21】 광주 청년의 부채 사유	57
【표 22】 유럽의 청년문화 정책	61
【표 23】 일본-문화예술입국 중기 플랜	64
【표 24】 국내외 프린지 페스티벌 비교	65
【표 25】 풍피두센터 시설현황	67
【표 26】 호주예술위원회 지원프로그램	68
【표 27】 일상문화활동_온라인 문화 향유	76
【표 28】 일상문화활동_카페 및 맛집 탐방	77
【표 29】 일상문화활동_요가, 헬스 산책 등의 운동	78
【표 30】 대중문화 이벤트_영화관람	79
【표 31】 대중문화 이벤트_대중가요 콘서트 관람	80
【표 32】 대중문화 이벤트_지역축제 참여	81
【표 33】 예술 향유_문학행사	82
【표 34】 예술 향유_전시회 관람	83
【표 35】 예술 향유_음악 공연 관람	84
【표 36】 예술 향유_전통예술 공연 관람	85
【표 37】 예술 향유_연극 및 뮤지컬 관람	86
【표 38】 예술 향유_무용 관람	87
【표 39】 문화기획과 창작_예술 평론 및 비평 글쓰기	88
【표 40】 문화기획과 창작_예술 창작	89
【표 41】 문화기획과 창작_문화 기획	90
【표 42】 일상문화활동 만족도	91
【표 43】 대중문화 이벤트 참여 만족도	92
【표 44】 예술장르 향유 만족도	93
【표 45】 문화기획과 창작 활동 만족도	94
【표 46】 일상문화활동과 다른 문화예술 활동과의 상관관계	99
【표 47】 대중문화 이벤트 참여와 다른 문화예술 활동과의 상관관계	100
【표 48】 예술 장르별 향유 정도와 문화예술 창작 참여와의 상관관계	101
【표 49】 문화실천 유형간 상관관계	101
【표 50】 평일 여가시간	104
【표 51】 주말 여가시간	105
【표 52】 평일 여가활동 1순위(1-7)	106
【표 53】 평일 여가활동 1순위(8-14)	107
【표 54】 주말 여가활동 1순위(1-7)	108
【표 55】 주말 여가활동 1순위(8-14)	109
【표 56】 평일 희망 여가활동 1순위(1-7)	110
【표 57】 평일 희망 여가활동 1순위(8-14)	111
【표 58】 주말 희망 여가활동 1순위(1-7)	112
【표 59】 주말 희망 여가활동 1순위(8-14)	113
【표 60】 온라인 여가 활동_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물 보기/댓글달기	115
【표 61】 온라인 여가 활동_모바일 게임하기	116
【표 62】 온라인 여가 활동_쇼핑하기	117

【표 63】 온라인 여가 활동_웹진 및 웹툰 구축	118
【표 64】 온라인 여가 활동_미디어플랫폼 방송 시청	119
【표 65】 온라인 여가 활동_온라인 콘텐츠 제작_업로드	120
【표 66】 온라인 여가 활동_온라인 문화동호회 활동	121
【표 67】 온라인 여가 활동_온라인 마케터 활동	122
【표 68】 온라인 여가 활동_온라인 마케터 활동	123
【표 69】 여가시간 양과 실천과의 상관관계	125
【표 70】 문화향유 시설 이용_시·구민회관	128
【표 71】 문화향유 시설 이용_문예회관	129
【표 72】 문화향유 시설 이용_청소년 시설	130
【표 73】 문화향유 시설 이용_문화의집	131
【표 74】 문화향유 시설 이용_도서관	132
【표 75】 문화향유 시설 이용_박물관·미술관	133
【표 76】 문화향유 시설 이용_국립아시아문화전당	134
【표 77】 문화향유 시설 이용_생활문화센터	135
【표 78】 청년공간_청년센터 The숲	137
【표 79】 청년공간_I-PLEX 광주청년창업지원센터	139
【표 80】 청년공간_광주청년예술인지원센터	141
【표 81】 청년공간_발산마을 청춘빌리지	142
【표 82】 청년공간_청년문화거리	143
【표 83】 청년 필요 공간	144
【표 84】 정기 동호회	145
【표 85】 참여 동호회 종류	146
【표 86】 동호회 활동의 어려운 점	148
【표 87】 희망 동호회 종류(1-5)	149
【표 88】 희망 동호회 종류(6-10)	150
【표 89】 행복점수	153
【표 90】 여가시간 양과 행복감의 상관관계	154
【표 91】 문화적 실천 횟수와 행복감의 상관관계	155
【표 92】 청년 도시 이미지_청년이 존중받는 도시	157
【표 93】 청년 도시 이미지_청년의 문화행사가 자주 개최되는 도시	158
【표 94】 청년 도시 이미지_청년 대상 문화행사가 자주 개최되는 도시	159

【표 95】 청년 도시 이미지_힘든 일상의 위로	160
【표 96】 청년 도시 이미지_특색 있는 청년문화를 가진 도시	161
【표 97】 청년 도시 이미지_청년의 교양 및 의식수준이 높은 도시	162
【표 98】 청년 축제 평가_광주세계청년축제	164
【표 99】 청년 축제 평가_G-POP페스티벌	165
【표 100】 청년 축제 평가_광주취업박람회 청년드림페스티벌	166
【표 101】 청년정책 인지도(1-5)	167
【표 102】 청년정책 인지도(6-11)	168
【표 103】 청년정책 우수 분야(1-5)	169
【표 104】 청년정책 우수 분야(6-11)	170
【표 105】 청년정책 성과 평가	171
【표 106】 청년문화예술 향유 활성화_관람비용을 낮춘다	173
【표 107】 청년문화예술 향유 활성화_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열려야 한다	174
【표 108】 청년문화예술 향유 활성화_행사를 더욱 자주 개최한다	175
【표 109】 청년문화예술 향유 활성화_청년의 흥미를 유발할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176
【표 110】 청년문화예술 향유 활성화_문화공간이 많아져야 한다	177
【표 111】 청년문화예술 향유 활성화_행사홍보와 정보가 많아져야 한다	178
【표 112】 청년문화예술 향유 활성화_이해하기 쉬운 행사가 많아져야 한다	179
【표 113】 청년문화예술 향유 활성화_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인다	180
【표 114】 청년문화예술 향유 활성화_할인방법과 혜택을 늘린다	181
【표 115】 청년문화예술 향유 활성화_더 많은 창작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182
【표 116】 청년문화 활성화_청년 문화공간 조성	183
【표 117】 청년문화 활성화_문화예술 향유 비용 지원·할인혜택 확대	184
【표 118】 청년문화 활성화_청년문화 기획자 지원 및 양성 사업	185
【표 119】 청년문화 활성화_청년문화단체 및 동호회 지원사업 확대	186
【표 120】 청년문화 활성화_예술인 창작지원사업의 청년쿼터제 확대	187
【표 121】 청년문화 활성화_청년문화단체 활동가 경비 지원	188
【표 122】 청년문화 활성화_청년축제 확대 및 다양화	189
【표 123】 청년문화 활성화_청년 대상 문화예술 교육기회 확대	190
【표 124】 청년문화 활성화_청년 해외문화교류 지원 확대	191
【표 125】 청년문화 활성화_청년 문화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192
【표 126】 청년문화 활성화_청년문화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193

【표 127】 청년문화 활성화_청년문화 지원 전담기구 설치	194
【표 128】 청년문화 정책 수립 시 우선사항(1-4)	195
【표 129】 청년문화 정책 수립 시 우선사항(5-9)	196
【표 130】 청년문화 정책의 목표(1-4)	197
【표 131】 청년문화 정책의 목표(5-9)	198
【표 132】 집단별 문화 인식 및 실태 차이	212

〈그림 목차〉

【그림 1】 청년문화의 네 가지 영역	9
【그림 2】 청년의 다양한 층위	37
【그림 3】 한국의 청년실업률	37
【그림 4】 16개 시도별 청년 고용률	38
【그림 5】 2015 광주광역시 청년관련 정책 현황	41
【그림 6】 시도별 청년 인구 비율	52
【그림 7】 가구별 월평균 소득	54
【그림 8】 가구별 월평균 소비지출	55
【그림 9】 BAC SCRATCH NIGHTS 프로그램 단계	70

제1장 결과 요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청년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급변하면서 청년 취업 및 실업, 주거, 사회적 관계 단절 등의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고 있고, 비혼 및 1인 가구 증가 등 청년들은 이전 세대와 다른 사회적 환경에 직면하고 있음
- 한편 지역의 청년들은 자아실현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 부족, 삶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문화 및 교육 환경의 취약 등으로 인해, 또 청년 문화예술인들은 시장의 한계와 아이디어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 부재 등을 이유로 보다 안정적인 활동과 자신들의 경험, 기획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광주광역시 2014년 청년 전담 부서인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였고, 2017년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조례> 제정 등을 바탕으로 일자리, 복지, 문화, 참여 등의 분야에서 청년 지원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음
- 하지만 광주 청년들의 외부 유출을 막고, 이들 세대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기존 청년문화 정책이 가지는 한계가 있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2017년 광주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문화적 욕구, 문화향유실태,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한 ‘청년문화실태조사’와 청년패널 운영 및 FGI 등을 진행하여 양적·질적 조사를 수행하였음
- 본 연구는 이 실태조사 자료와 청년문화와 관련된 기존 연구 자료 및 정책을 분석하는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광주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광주광역시
- 시간적 범위 : 2017년 기준
- 청년 범위 : 19세 이상 39세 이하(〈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근거)
- 내용적 범위
 - 국내외 청년문화정책 비교 분석
 - 〈광주광역시 청년문화실태조사〉, 〈청년문화실태조사 FGI〉 결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광주광역시 청년의 문화예술, 여가와 생활 문화, 문화공간과 공동체 활동, 문화와 행복의 관련성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 후 그 결과를 통해 광주광역시 청년문화 정책 및 정책적 제언 제시

2)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청년문화 실태 및 정책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와 이론적 배경 검토를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함
 -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외 청년문화 정책의 현황 및 실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함

□ 서베이 리서치

- 서베이 리서치 자료는 〈광주광역시 청년문화실태조사(2017)〉를 활용함. 〈광주광역시 청년문화실태조사(2017)〉는 광주광역시 청년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 실태 파악을 위해 광주 거주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문화적 욕구, 문화향유실태, 정책수요 등을 조사한 결과 보고서임
-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면접조사(2017년 9월 1일 ~ 9월 15일)를 하였으며, 유효 표본 1,007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음

【표 1】 서베이 리서치 개요

조사 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유효 표본	· 일반인 807명, 문화예술관련 학생, 종사자 및 활동가 200명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p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면접조사
조사 기간	· 2017년 9월 1일 ~ 9월 15일 (14일)
조사 항목	· 청년문화에 대한 인식 · 여가생활/문화예술향유 · 문화시설/동호회 활동 · 청년문화 정책 · 사회경제적 배경 · 응답자의 기본특성
분석 방법	·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2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 평균분석, 상관관계분석 등을 실시

□ FGI(Focused Group Interview)

- FGI는 <청년문화실태조사 FGI> 결과 보고서를 활용함. <청년문화실태조사 FGI>는 광주광역시 거주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중 약 30명을 4개의 그룹(청년 미취업자, 취업자, 문화예술분야 기획자, 문화예술계 종사자)으로 구분하여 FGI를 진행한 결과 보고서임
- FGI 내용은 청년문화에 대한 정의, 청년의 개인적 고민(취업, 내 집 마련, 결혼, 인간관계 등), 광주의 청년문화의 특성 및 평가, 광주 청년문화정책의 목표와 활성화 방향 등으로 구성되었음

【표 2】 FGI 개요

구분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대상	일반 청년 (취업자)	일반 청년 (미취업자)	문화예술인 (기획자)	문화예술인 (예술가)
표본수	7명	8명	7명	8명
일시	2017.10.31. 19:30	2017.11.01. 19:30	2017.11.09. 19:30	2017.11.16. 19:30

3. 청년, 청년문화, 청년문화 정책

1) 청년과 청년문화의 정의

□ 청년의 등장과 역사적 의미 변화 과정

- 1890년대 Young Men을 번역하여 ‘청년’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라는 의미를 부여받음
- 6~70년대에 청년은 4·19 혁명의 주체, 사회 부조리에 대한 저항 등으로 표상되면서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주체로 자리 잡음

- 80년대에 청년은 학생운동을 통해 민주화 운동의 중심부 역할을 수행함
- 90년대 이후 청년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주체로서의 의미가 조금씩 약해지면서 발달한 소비자본주의의 소비 주체로서의 의미가 강해짐
- 2000년대 이후 청년은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상황의 피해자로서 경쟁에 내몰린 세대를 대표하는 개념이 됨

□ 청년문화의 정의

- 청년문화는 개념적으로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새롭고 다양한 것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취향 및 문화예술활동 방식, 그리고 가치관·태도·규범 등이 반영된 총체적인 삶의 양식’이라 정의될 수 있음
- 집단적 하위문화로서의 청년문화는 역사적으로 70년대 이후 뚜렷하게 형성되기 시작했고, 80년대의 운동권 저항문화, 90년대의 신세대·X세대 문화, 2000년대의 ‘88만원 세대’ 문화 등의 의미 변화를 겪어 왔음

2) 청년문화 정책의 의미와 지향

□ 청년문화 정책의 의미와 대상

- 문화정책이란 문화 영역에서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고 관리함으로써 이념과 비전, 제도와 관행, 그리고 행위자들을 생산해내는 국가 혹은 지자체의 행위임
- 청년 문화정책은 청년의 문화적 삶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개입을 통해 바람직한 청년문화의 형성을 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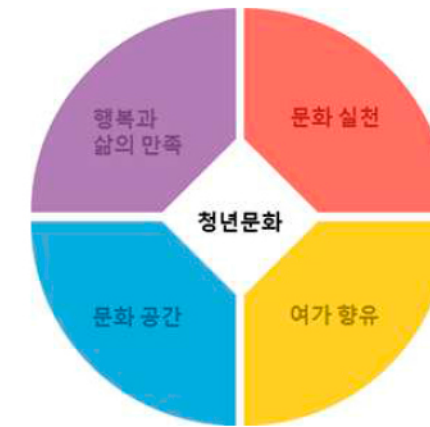
□ 정책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청년문화의 의미

- (1) 정신의 고양: 청년 문화정책은 청년들에게 우수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교육하거나 향유하게 함으로써 정신적으로 고양된 ‘교양 있는 시민’을 형성시키는 정책
- (2) 삶의 개성과 다양성 제고: 청년들이 문화적 활동을 통해 삶을 개성적으로 만들고 삶의 다양성을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의 우수한 부분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 ‘높게’가 아닌 ‘넓게’라는 가치를 획득하도록 함
- (3) 청년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 청년들이 스스로의 긍정적인 세대 및 집단 문화와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자,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스스로 지향하고자 하는 의미와 가치를 구성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기성 질서로서의 사회가 나서서 그 토대를 제공
- (4) 청년의 일상 및 여가의 질적 제고: 여가가 바로 문화생활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가의 많은 행위들은 향유와 창작 등의 문화적 행위들임. 따라서 여가 시간을 의미 있게 구성하는 것은 청년들의 문화적 삶을 위한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됨
- (5) 청년 개인의 행복 증대: 청년 문화정책은 개인 수준에서 행복감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도록 지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행복감이나 행복의 객관적 조건의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함

3) 청년문화의 영역들

- 청년문화는 청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양상들의 총체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를 몇 가지 영역들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청년문화의 실태를 이해하는 적절함. 이 연구는 청년문화를 문화적 실천, 여가, 문화공간, 행복과 만족감의 네 영역으로 구분함

【그림 1】 청년문화의 네 가지 영역



□ 문화적 실천

- 청년의 문화적 실천은 문화예술 향유와 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문화적 행위를 지칭함
- 이 실천은 크게 일상문화활동, 대중문화 이벤트, 예술 향유, 문화예술 창작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여가

- 여가는 청년 문화를 규정하는 시간적 범주
- 여가활동에는 다양한 문화적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가 행위는 청년 문화를 특징짓는 중요한 양상 중의 하나임

□ 문화 공간

- 공간은 청년의 문화향유와 문화실천의 중요한 토대임

- 청년문화의 현실화를 위한 시설과 요건의 측면에서 문화 공간은 청년문화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임

□ 청년의 행복과 만족감

- 청년문화 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 결과가 청년의 행복과 만족감
- 행복과 만족감은 또한 청년의 문화 향유나 실천을 효과 측면에서 확인하는 것이기도 함

4. 청년문화 실태 분석

1) 청년의 문화적 실천

□ 청년들의 문화적 실천의 위계 혹은 수준별 구분이 존재

- 일상문화활동에서는 청년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차이가 별로 드러나지 않음. 하지만 대중문화 이벤트, 예술 향유, 그리고 문화예술 창작으로 갈수록 문화실천의 위계성과 집단별 차이가 명확해짐
- 이것은 문화적 구별과 수준론에 대한 논의들, 즉 Bourdieu나 Gans 등의 논의처럼 계급별·집단별 문화 자본과 향유의 차이가 드러나는 결과들로 해석될 수 있음
- 또한 문화적 실천은 일정한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결과로도 해석됨. 즉 일상문화활동이나 대중문화 이벤트는 학습이나 경험, 경제적 투자 및 시간적 투자 등을 거의 요구하지 않은 채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대상인 반면, 예술 향유나 문화예술 창작은 일정한 수준의 예술적 취향

과 능력, 이를 습득하기 위한 경제적·문화적 투자 등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음

□ 문화실천 유형간의 상관성

- 일상문화활동은 다른 문화 실천들, 즉 대중문화 이벤트 참여, 예술장르 향유, 그리고 문화예술 창작 등의 활동과 의미 있는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음. 반면 대중문화 이벤트, 예술 장르 향유, 그리고 문화예술 창작 간에는 일정한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음
- 이것은 문화적 활동의 ‘축발’과 ‘승화’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음. 즉 대중문화 이벤트 참여의 증가는 예술 장르들에 대한 향유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예술 향유는 문화예술 창작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함
- 하지만 일상문화활동은 이러한 축발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질적으로 구분되는 또 다른 문화적 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청년의 여가

□ 청년 여가의 수동성

- 여가는 ‘개인이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직업적 노동, 그리고 기타 사회적 의무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유의지에 의해 휴식, 기분전환, 자기계발 등을 위해서 쓰이는 시간 및 활동’으로서, 일과 공적 노동에 대비되는 ‘사적이고 자유로우며 즐거움을 추구하는 창조적 영역’을 대표함. 따라서 여가 향유의 확대는 휴식과 오락의 확대를 통한 자유와 즐거움의 제공, 인격계발, 자기결정성 확대라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하지만 광주 청년들의 여가 향유는 매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휴식이나 TV 시청으로 대표되는 여가 행위는 여가의 기능을 제대로 충족시키기 어려운 여가 행위임. 하지만 이러한 수동적 여가는 여가 향유 대상의 부족과 취업과 학업 등의 구조적 장애를 반영하는 것임
- 청년들은 앞으로 평일에는 TV와 비디오 시청 및 문화예술 관람, 휴일에는 여행·나들이와 문화예술 관람을 여가 행위로서 누리기를 희망함
 - 적극적 여가, 성찰적이고 의미 있는 여가의 의지가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휴일은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 여가 향유의 가능성이 크지만, 평일의 여가에서 수동성을 좀 더 적극적인 형태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즉 여가시간의 확보, 접근성을 높이는 여가 행위의 보급, 문화예술 향유 조건의 개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여가시간과 청년들의 문화적 실천 간의 상관성

- 여가시간, 즉 주중 평일의 여가시간과 휴일의 여가시간은 청년들의 문화적 실천과 관련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평일 여가시간의 경우 일상문화활동, 대중문화이벤트 관람, 예술장르 향유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평일 여가시간 여유가 많을수록 문화적 활동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줌
- 주말 여가시간의 길이는 대중문화이벤트 관람, 예술장르 향유, 그리고 문화예술 창작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이고 있음
- 여가시간의 확보가 청년문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요건임을 보여줌

3) 청년과 문화공간

□ 낮은 문화예술 시설 이용

- 광주광역시에 산재한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청년의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낮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나 도서관이 예외적으로 40% 이상의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 문화예술 시설 중에서는 박물관·미술관이 30% 정도의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일 뿐, 다른 시설들은 20% 이하의 낮은 이용률을 보임
- 청년들의 시설 이용이 낮은 이유는 시설들이 청년들에게 홍보되지 않고, 이용가능한 시설의 유용성이 부족하기 때문. 또한 이용의 문턱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한 이유. 이용을 위한 신청 절차 등이 어렵고 쉽게 접근하기 힘들다는 평가가 지배적

□ 청년들의 시설 이용 욕구와 기존 시설 용도의 불일치

-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은 놀이·휴식 공간, 문화예술 관람 공간, 청년들이 모이는 거리, 문화예술 창작활동 공간 등임. 하지만 기존의 문화예술 시설은 일부 관람을 위한 시설들 외에는, 청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시설들로 인식되고 있음
- 청년들은 ‘동네 근처에 즐길만한 공간’을 원하며, 광주는 ‘투자에 비해 체감도가 낮은’ 도시라고 인식함. 청년들은 단순한 개인적 휴식이나 수동적 도피보다는, 청년들끼리 어울려 놀 수 있는 활동으로서의 놀이, 그리고 그러한 활동을 지원해주는 공간을 희망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의 ‘청년공간’의 낮은 인지도와 이용률

-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지자체 등에 의해 조성된 청년공간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공간이 40% 미만의 인지율을 보일 뿐 아니라, 실제 이용해본 경험은 대부분 10% 미만임
- 청년들은 스스로 공간 이용에서 소외된 세대라고 생각함. 아동, 성인, 노인, 여성 등을 위한 공간은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반면, 청년을 위한 공간은 부족하거나, 아니면 청년의 욕구와는 잘 맞지 않는 마찰적 공간
- 특히 집단별로는 일반 취업자 청년의 인지와 이용률이 매우 낮아서, 청년공간 이용에서 가장 소외된 집단임

□ 청년들의 동호회 활동과 공간

- 동호회 활동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공간 문제로서, 동호회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절대적 부족은 청년들의 공간에 대한 일반적 욕구를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됨
- 청년들은 다른 지역이나 국가의 경험들에 대한 정보를 통해 구체적인 방식으로 필요 공간을 상상하고 있음
 - ‘동네 근처에 여가활동을 즐길만한 공간’
 - ‘아지트 같은 공간’
 - ‘편하게 놀면서 쉴 수 있는 공간’
 - ‘동호회 활동을 자유롭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공간’ 등

4) 청년의 행복과 만족

□ 청년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행복

- 주요 청년 집단별로 행복점수 평균을 비교해보면, 활동가 집단의 행복 점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일반인 취업자, 일반인 미취업자 순서로 나타남
-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전문적 활동과 취업 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행복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임

□ 청년의 문화적 실천과 행복

- 4유형의 문화적 실천 횟수와 청년의 행복 정도의 연관성을 분석해 보면, 대중문화 이벤트 참여 횟수, 예술 향유 횟수, 그리고 평일과 휴일의 여가시간이 의미 있는 관계를 보여줌. 즉 대중문화 이벤트에 더 많이 참여하고, 예술 향유 횟수가 더 많은 청년일수록 행복 점수도 높게 나타나며, 평일 및 휴일의 여가 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행복 점수도 높게 나타남
- 반면 문화예술 창작 횟수는 청년들의 행복 점수와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 결과는 청년들의 행복감에 문화적 실천이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이 문화적 실천이 양적·질적으로 더 심화되면 행복감도 높아지는 강한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됨

5. 정책적 제언

1) 광주광역시 기존 청년문화 정책의 개선 방향

○ 정책 방향

- 도입 단계에 있는 광주광역시 청년 정책을 체계화하고, 이 속에서 청년문화 정책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노력해야 함
- 청년문화 정책의 의미와 방향, 기대하는 효과 등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정책 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함
- 청년문화 정책의 주요한 목적이 청년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적 형성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청년문화 정책 과정에의 청년 참여를 제고해야 함

○ 정책 내용

- 지자체의 문화정책 과정에 청년정책위원회 등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 확대
- 정책 효과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정책 인지도 제고 노력
- 학습과 성장의 욕구를 지닌 청년 세대를 위한 다양한 형성·훈련 교육기회 제공

2) 청년의 삶과 청년문화 정책의 지향

□ 문화적 ‘문턱’ 넘기

○ 정책 방향

- 문화적 문턱이란 현실의 필요와 요구대로 사는 삶의 방식에서 문화라는 가치의 전환을 가져오는 경계선을 의미함
- 많은 청년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벗어나, 생계를 크게 걱정하지 않으면서 선택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으로서의 문화적 활동을 시작한 경험을 언급하고 있음

○ 주요 정책 수단

- 청년 동호회 활동 및 커뮤니티 지원
- 청년 협동조합 지원
- 청년 생활문화 공동체 지원
 - ▶ 주거, 문화, 공동체적 삶이 결합된 ‘쉐어하우스’ 지원사업
 - ▶ 지역 문화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 일상적 청년문화 활동 지원

○ 정책 방향

- ‘손닿는 곳에 문화와 예술’
- 일상의 삶에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접하고 향유하는 것이 청년들이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기 삶을 문화와 결합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임

○ 정책 내용

- 대학·지역공동체 문화예술 사업 지원
 - ▶ 우리 동네 예술 프로젝트
 - ▶ 마을카페, 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 청년 생활문화 지원
 - ▶ 여가, 일상적 문화, 가벼운 문화예술 향유와 참여 지원 프로그램
 - ▶ 지역 공간 활용 프로그램과 연계

3) 청년 세대의 내부 집단별 차이와 집단별 문화정책의 지향점

□ 집단별 차이의 존재

【표 3】 집단별 문화 인식 및 실태 차이

	활동가 청년 집단	미취업 청년 집단	취업 청년 집단
문화적 관심	매우 높음	높음	낮음
여가·여유시간	많음	많음	적음
일상문화활동	많음	많음	많음
대중문화 이벤트	많음	많음	적음
예술 향유	많음	적음	거의 없음
문화예술 창작	약간 있음	거의 없음	거의 없음
주 구성원	20~30대 문화활동·취업자	대학생	30대 취업자

□ 세 집단의 공통점과 차이와 집단에 대한 정책적 고려

(1) 미취업 청년 집단

○ 정책 방향

- 이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화적 관심과 선의가 높은 문화 향유와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향유와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함
- 문화예술 향유에 있어서는 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창조적 활동으로 연결되도록 관심을 제고하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내용

- 청년 문화예술 향유와 활동 지원
 - ▶ 광주 Youth Card 등의 바우처를 통한 향유 비용 지원
 - ▶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홍보
 - ▶ 청년 동아리·동호회 활동 지원사업 확대

(2) 취업자 청년 집단

○ 정책 방향

- 취업자 청년들이 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적극적 여가의 향유를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취업이라는 조건 하에서 문화 향유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정보 제공형 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문화 실천의 접근권 제고가 핵심

○ 정책 내용

- 문화 정보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권 확보
 - ▶ 인터넷을 활용한 문화예술 홍보 플랫폼 구축
 - ▶ 모바일 앱을 활용한 문화예술 정보 제공
- 직장이라는 조건 하에서의 문화예술 향유 제고
 - ▶ 직장 공연 등의 직장 내 문화예술 향유 제고 프로그램
 - ▶ 사내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 ▶ 문화예술 시설의 연장 운영: 퇴근 이후의 향유 제고
- 여가 향유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들

- ▶ 정주 지역 중심의 퇴근 후 여가 향유 프로그램: 독서 모임, 동호회 모임 등
- ▶ 휴식으로부터 여가 활동으로의 전환을 위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지원

(3) 문화활동가 청년 집단

○ 정책 방향

- 활동가 집단은 자신의 문화예술적 실천과 기획에 대해 뚜렷한 자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정책의 방향과 내용도 비교적 명확함
- 주어진 조건 하에서 이 집단이 고민하는 내용을 긍정적으로 반영해 가는 것이 필요함

○ 정책 내용

- 청년 예술인 지원사업
 - ▶ 청년 예술인 취업 지원사업
 - ▶ 청년 예술인 육성사업
 - ▶ 청년 예술강사 지원사업
 - ▶ 청년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
- 청년 문화산업 창업 지원사업
 - ▶ 청년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
 - ▶ 전통시장 청년 창업 지원사업
- 체계적 문화기획자 양성
 - ▶ 기존 지역문화인력양성 프로그램의 개선과 체계화: 단계별 심화 프로그램 마련
 - ▶ 이론과 실무 교육 구분·체계화

- ▶ 예술가·활동가도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마련
- 마을 사업과 청년 문화기획자의 결합
 - ▶ 청년 문화기획자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등의 공간 마련
 - ▶ 마을과 청년 주거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청년 문화활동가를 위한 네트워킹 지원
 - ▶ 청년문화 네트워크 축제
 - ▶ 청년 해외문화 교류 지원
- 청년 할당제, 예술인 창작지원사업의 청년 쿼터제 확대
- 예술가 자격증 혹은 경력 증명 제도
- 예술가 창업 지원
 - ▶ 실무교육 지원
- 정책 결정과정의 예술인·문화기획자 참여

4) 청년문화의 다양성과 문화정책

□ 일상문화활동 및 대중문화 이벤트 지원

○ 정책 방향

- 일상문화활동이나 대중문화 이벤트 참여는 접근이 용이하고 향유와 참여의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다양한 통로와 플랫폼을 통해 향유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하지만 이런 실천이 가지는 효과 역시 아직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확인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방향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함

○ 정책 내용

- 일상문화활동을 문화예술 향유와 창작으로 이끌 수 있는 생활문화 프로그램 모색
 - ▶ 청년 친목과 수다 모임
 - ▶ 청년 카페
 - ▶ 마을 활동의 청년 참여기회 확대
- 온라인 문화활동의 가능성 확대
 - ▶ 지역 온라인 동호회 활성화
 - ▶ 온라인 플랫폼의 문화예술 참여 프로그램 마련

□ 문화예술 향유 제고

○ 정책 방향

- 예술 장르들 간에는 상호간 향유와 참여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또 집단별로는 20대 대학생들이 가장 적극적인 향유 집단임을 확인하였음
- 따라서 향유 비율이 낮은 장르들 및 소극적 향유 집단인 30대 취업자 집단을 위한 접근성 제고 방안을 찾아야 함

○ 정책 내용

- 청년의 문화향유 전반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
 - ▶ Youth Card나 바우처 지원
 - ▶ 문화예술 창작기반 지원
 - ▶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홍보 등

- 향유 소극적 집단을 위한 지원책
 - ▶ ‘직장인을 위한 문화예술 관람’ 정책
 - ▶ 직장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 문화예술 향유를 유도하기 위한 문화예술 교육

□ 문화예술 창작 제고

○ 정책 방향

- 청년들이 단순 문화실천으로부터 보다 높은 수준의 문화적 욕구를 실현해나가는 것을 지원
- 전문적인 기획자나 창작자 보다는 적극적인 문화예술 창작에 참여함으로써 문화 실천을 제고하고 자신의 삶의 개선하도록 지원

○ 정책 내용

- 문화예술의 기획과 창작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
 - ▶ 기획자 양성 교육기회 확대
 - ▶ 예술 창작 참여기회 확대
- 자발적인 문화기획 및 예술창작 동호회 형성 지원
 - ▶ ‘생활문화공동체’사업 연계
 - ▶ 대학, 직장 등의 창작 동호회 지원
- 온라인 플랫폼 문화예술 기획 및 창작 동호회 지원
 - ▶ 온라인 문화예술 창작 동호회 지원
 - ▶ 온라인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창작 정보 제공

5) 청년 문화공간 정책

○ 정책 방향

- 공간 문제는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이 가장 민감하고 또 절실하게 생각하는 사항
- 청년들의 자발적 문화예술 동호회, 공동체적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및 청년 문화기획자·활동가·예술가 등을 위한 공간 마련
- 청년들끼리 공유를 통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정책 내용

- 도시 재생사업과 연결하여 청년 문화 아지트 제공
- 문화기획자 등을 위한 공동 셰어하우스 임대·구입 지원
- 대관 가능한 청년문화 활동 공간 확보

제2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청년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급변하면서 청년 취업 및 실업, 주거, 사회적 관계 단절 등의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고 있고, 비혼 및 1인 가구 증가 등 청년들은 이전 세대와 다른 사회적 환경에 직면하고 있음
- 최근 지역의 청년들은 자아실현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 부족, 삶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문화 및 교육 환경의 취약 등으로, 또 청년 문화예술인들은 시장의 한계와 아이디어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 부재 등을 이유로 보다 안정적인 활동과 자신들의 경험, 기획을 쏟아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광주광역시시는 2014년 청년 전담 부서인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였고, 2017년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조례> 제정 등을 바탕으로 일자리, 복지, 문화, 참여 등의 분야에서 청년 지원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음. 이 중 청년 문화 정책은 주로 3분야, 즉 문화인력 양성, 문화향유(콘텐츠) 확대, 문화공간(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나누어 실행되고 있음
- 하지만 광주 청년들의 외부 유출을 막고, 이들 세대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기존 정책이 가지는 한계가 있었음. 이를 극복하기 방안으로 우선 광주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문화적 욕구, 문화향유실태,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한 ‘청년문화실태조사’와 청년패널 운영 및 FGI 등을 진행하여 양적·질적 조사를 수행하였음
- 본 연구는 이 실태조사 자료와 청년문화와 관련된 기존 연구 자료 및 정책을 분석하는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광주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광주광역시
- 시간적 범위 : 2017년 기준
- 청년 범위 : 19세 이상 39세 이하(〈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근거)
- 내용적 범위
 - 국내외 청년문화정책 비교 분석
 - 〈광주광역시 청년문화실태조사〉, 〈청년문화실태조사 FGI〉 결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광주광역시 청년의 문화예술, 여가와 생활 문화, 문화공간과 공동체 활동, 문화와 행복의 관련성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 후 그 결과를 통해 광주광역시 청년문화 정책 및 정책적 제언 제시

2)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청년문화 실태 및 정책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와 이론적 배경 검토를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함
 -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외 청년문화 정책의 현황 및 실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함

□ 양적 연구

- 양적 자료는 〈광주광역시 청년문화실태조사(2017)〉를 활용함. 〈광주광역시 청년문화실태조사(2017)〉는 광주광역시 청년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 파악을 위해 광주 거주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문화적 욕구, 문화향유 실태, 정책수요 등을 조사한 결과 보고서임
-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면접조사(2017년 9월 1일 ~ 9월 15일)를 하였으며, 유효 표본 1,007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음. 응답자의 특성은 일반인 807명(80.1%), 문화예술 관련 청년 200명(19.9%)이며, 성별은 남성 514명(51.0%), 여성 493명(49.0%)이고, 연령대는 20대 507명(50.3%), 30대 500명(49.7%)으로 조사되었음

【표 4】 광주광역시 청년문화실태조사(2017) 개요

조사 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유효 표본	· 일반인 807명, 문화예술관련 학생, 종사자 및 활동가 200명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면접조사
조사 기간	· 2017년 9월 1일 ~ 9월 15일 (14일)
조사 항목	· 청년문화에 대한 인식 · 여가생활/문화예술향유 · 문화시설/동호회 활동 · 청년문화 정책 · 사회경제적 배경 · 응답자의 기본특성
분석 방법	·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2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 평균분석, 상관관계분석 등을 실시

- 조사 내용은 청년문화 인식(6문항), 여가생활/문화예술 향유(9문항), 문화시설/동호회 활동(11문항), 청년문화 정책(12문항), 사회경제적 배경(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5】와 같음

【표 5】 광주광역시 청년문화실태조사(2017) 조사 내용

항목	세부항목
I. 청년문화 인식	· 청년세대 중요가치 · 청년문화에 대한 느낌 · 광주청년문화를 설명하는 주장에 대한 동의 · 온라인 상의 문화활동 · 광주청년에 대한 의견 · 광주만의 청년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예
II. 여가생활/문화예술향유	· 여가시간 · 여가활동 · 희망여가활동 · 문화활동 경험 및 횟수 · 지난 1년간 광주에서 경험한 문화활동 만족도 · 문화예술행사 정보취득경로 · 문화예술행사 선택기준 · 문화예술행사 할인방법 · 문화예술행사 비관람 이유
III. 문화시설/동호회 활동	· 문화시설 방문, 이용횟수, 만족도 · 청년공간, 축제 인지도 및 이용 만족도 · 주로 이용하는 약속장소 · 광주 청년들에게 필요한 공간 · 정기동호회활동 참여 여부 · 참여 동호회 수 · 참여 동호회 종류 · 대표 동호회 회원 수 및 청년연령대 비율 · 동아리 활동시 난점 · 활동희망 동호회 · 행복 점수

항목	세부항목
IV. 청년문화 정책	· 광주 청년문화 환경 평가 · 인지하고 있는 광주청년 정책 · 광주 청년 문화정책 성과 평가 · 광주청년문화정책 중 우수한 부분 · 광주청년문화정책 수립과정 참여의향 · 광주청년문화정책 수립과정 미참여 시 이유 · 청년문화 관련 기관, 주체에 대한 평가 · 광주 청년문화 활성화 정책 방안 · 광주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의견 · 청년문화정책 수립 시 우선사항 · 청년문화정책 목표 · 청년문화 정책에 대한 의견
V. 사회경제적 배경	· 응답자의 취업상태, 직업에 관한 항목 · 응답자의 가구 소득 · 응답자의 부채 유무 및 부채 사유 · 월평균 지출액 ·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 FGI(Focused Group Interview)

- FGI는 〈청년문화실태조사 FGI〉 결과 보고서를 활용함. 〈청년문화실태조사 FGI〉는 광주광역시 거주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중 약 30명을 4개의 그룹(청년 미취업자, 취업자, 문화예술분야 기획자, 문화예술계 종사자)으로 구분하여 FGI를 진행한 결과 보고서임
- FGI 내용은 청년문화에 대한 정의, 청년의 개인적 고민(취업, 내 집 마련, 결혼, 인간관계 등), 광주의 청년문화의 특성 및 평가, 광주 청년문화정책의 목표와 활성화 방향 등으로 구성되었음

【표 6】 청년문화실태조사 FGI 개요

구분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대상	일반 청년 (취업자)	일반 청년 (미취업자)	문화예술인 (기획자)	문화예술인 (예술가)
표본수	7명	8명	7명	8명
일시	2017.10.31. 19:30	2017.11.01. 19:30	2017.11.09. 19:30	2017.11.16. 19:30

3. 청년, 청년문화, 청년문화 정책

1) ‘청년’과 ‘청년문화’ 개념 검토

(1) 청년 개념의 역사적 변화과정

○ ‘청년’이란 말은 1896년 도쿄 유학생들의 잡지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1898년 이른바 ‘청년애국회¹⁾’ 사건 이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음. 그러다가 1903년 10월 28일 선교사 언더우드(Underwood, H.G.)와 질레트(Gillett, P.L.)의 주도로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가 탄생한 이후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의 ‘Young Men’을 ‘청년’으로 번역하면서 청년이라는 어휘를 사용함

○ 1914년 최남선의 『청춘』 잡지, 1921년 YMCA의 『청년』 잡지 발행을 통해 청년 개념이 전면에 등장하였으며, ‘新교육’, ‘新문학’, ‘新청년’ 등의 어휘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문화운동의 주역’으로서의 청년이 강조됨²⁾. 이 시기 기

1) 1898년 7월 1일 정부와 학교, 『독립신문』 등 주요 기관에 ‘대한청년애국단’ 명의로 황태자의 대리 청정 등을 요구하는 편지가 배달된 사건

성세대 및 그들의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으며, 청년은 ‘신문물’을 무기로 사용하는 ‘구시대 극복의 주체’로 간주 됨. 그래서 청년을 연령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등장³⁾

○ 1960년대에는 1960년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이 일어났으며, 이후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박정희 정부가 성립하였음. 이 시기 청년은 4·19 혁명의 핵심 주역이었으며, ‘대학생’과 ‘노동자’ 신분으로 부조리한 사회에 저항하여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젊은 세대를 표상함

○ 1980년대는 정치, 사회, 문화적 변화와 사건들이 현재까지 영향을 끼칠 정도의 특별한 시대였음. 이 시기 청년은 민주화를 위한 저항운동, 사회 변혁의 주체였으며, 청년을 대표하는 대학생이 학생운동을 통해 주역으로 등장. 청년들은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강하게 대립하면서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자 하였음

○ 1990년대 이후 청년은 사회적·정치적으로 호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발달한 소비자본주의 하에서 소비의 주체로 자리매김함. 사회적 주역으로서 청년의 위상은 점차 약화되고, 세대 집단 중의 한 세대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변모

○ 2000년대 이후 경제적 위기와 고용 없는 저성장이 현실화되면서 청년실업, 비정규직 고용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청년 세대 내, 그리고 청년세대와 다른 세대 간에 경제적 성과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면서 청년의 사회적 실존이 위기에 빠짐. 사회경제적 구조가 청년 세대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청년문화를 파편화시킴

2) 1920년 조선청년연합회가 결성되었으며, 1920년에서 1921년 사이에 1,300개 이상의 청년회가 생겨났고, 이후 2,000개를 넘었음

3) 『동아일보』 1920년 5월 26일자 “사회의 동적 방면 진보세력을 대표하는 자가 청년이오 정적 방면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자는 노년”이라고 주장했으며, 실제로 일부 청년회는 회원 자격을 45세까지로 했음

(2) 청년문화 개념의 역사적 변화과정

- ‘청년문화’ 현상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의 존재, 그리고 그 집단의 문화적 양상이 다른 집단과 구분되는 특성을 보여야 함. 이런 기준에서 청년문화 현상은 60년대~70년대를 거쳐 뚜렷하게 형성되기 시작
- 70년대는 한국 대중문화사에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대의 문화가 기성세대의 문화와 일정한 긴장관계를 조성하며 당대의 문화적 구도를 크게 변화시켰던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를 가짐(김창남, 2008). 이 시기 청년문화는 정치적으로는 유신체제 성립 이후 장기 휴교령과 계엄령 등의 폭력과 권위주의에 대해 저항하며, 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형태로 나타남. 이와 함께 대중매체와 생활수준 향상의 영향으로 인해 블루진, 통기타, 생맥주, 장발 등의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주체로서 청년이 등장하였으며, 그 결과 이전과는 구별되는 청년문화가 뚜렷하게 형성되게 됨

“블루진과 통기타와 생맥주. 이것은 육당과 춘원, 삼일운동과 광주학생운동, 사일구와 육삼 데모로 연연이 이어온 청년운동이 70년대에 착용한 새로운 의상이다. 그리고 ‘청년문화’는 잠재된 젊은 힘의 잠재적인 표현—그들은 ‘우리들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염원하고 또 확신한다.” (김병익, 「오늘날의 젊은 이상들: 거짓·안일·상투성·침묵을 슬퍼하는 ‘블루진·통기타·생맥주’의 청년문화」, 『동아일보』 1974.3.29)

- 80년대는 대학생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대학문화 중심의 청년문화가 등장함. 이 시기는 높은 대학 진학률과 학구열이 만들어낸 ‘대학생’의 보편화가 나타난 시기이며, 청년 문화는 운동권 저항문화와 ‘민중문화’를 상징하였음. 이 시기의 저항적 청년 문화는 이후 회고적 개념으로 ‘386세대’라는 개념으로 연결됨

- 90년대에는 소비 주체, 차별화 된 문화의 세대로서의 청년이 등장하였으며, 이는 ‘신세대’, X세대, N세대 등의 개념을 통해 알 수 있음. 이 시기의 청년은 본격화된 소비 자본주의의 호명된 주체들이며, 소비를 통해 새로운 청년 하위문화를 형성하기도 했음
- 2000년대는 ‘88만원 세대’라는 어휘가 상징하듯이 청년은 새로운 경제적 취약 계층이자, 세대로 등장함⁴⁾. 이전까지 도전, 패기, 실험, 희망, 반항, 역사적 변혁주체 등으로 대변되었던 청년상(像)이 이제는 정치적인 무관심과 무기력을 대변하는 존재, 자본주의시장의 소비자, 자기계발에 몰두하는 존재 등으로 인식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그래서 지금 요구되는 청년문화 정책은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침해당한 청년세대들에게 본래의 자리를 돌려주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어야 하며,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성적 정책이 되어야 함

2) 청년과 청년 정책

(1) 정책 대상으로서 청년 개념

- 청년의 사회적 정의는 그 집단 구분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으며 특정 연령으로 정의하기가 어려움. 그러나 정책적 관점에서 지원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정의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음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김태완 외, 2012)에 따르면, 상대적 빈곤율 기준으로 전체 인구 빈곤율과 청년(만 15~34세) 빈곤율이 2007년에 각각 14.4%와 9.0%, 2009년 14.6%와 10.2%, 2011년 14.3%와 8.7%로 나타나 청년 빈곤율이 전체 빈곤율보다 낮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김정숙 외(2015)는 국제기구인 youthpolicy.org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 세계 179개 국가에서 청소년 혹은 청년 정책 대상 연령을 살펴보았음. 그 결과, 청소년 혹은 청년 정책 대상이 10대만을 포함한 국가는 3개였으며, 20대까지 포괄하는 곳은 84개, 가장 많은 90개 국가들은 30대를 포괄해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청년은 법률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817호)에서 15세에서 29세로 정의하고 있음. 연령 규정의 출발점인 15세는 생산가능인구의 연령 규정에 따른 것이며, 군 입대와 대학 진학을 고려하여 29세로 정의함
- 법령이 아닌 정책 추진 근거로 대상 연령을 규정한 한 경우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에서 청년을 19세에서 39세로 정의하고 있음. 출발점인 19세는 2011년에 개정이 이루어진 <민법>(법률 제13125호) 제4조에서 성년기준을 20세에서 19세로 변경한 것을 반영한 것이며, 귀착점인 39세는 취업 지원 연령이 주로 29세이지만 창업 지원 연령에서 청년 대상이 30대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포괄적인 연령 규정을 반영한 것임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조례> 제2조 ①항에서 청년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정책 대상 연령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은 청년 정책 추진의 출발점이지만, 현재 청년 정책 관련 기본 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 청년 대상 연령 규정을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은 포괄적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으며, 내부에 다양한 층위의 집단들이 존재한다는 다각적 시각이 필요함

【그림 2】 청년의 다양한 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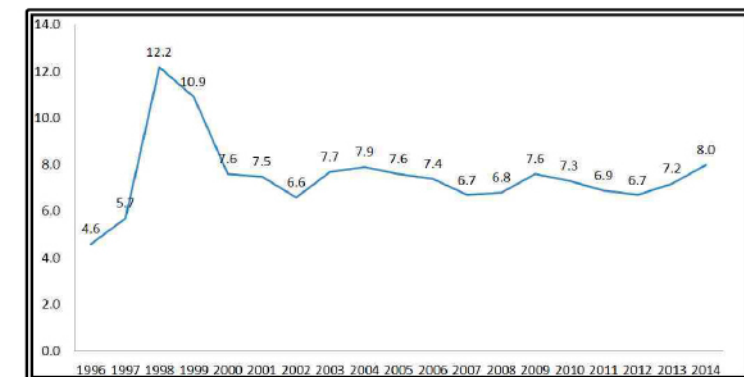


참고 : <청년정책 기본계획>, 광주광역시(2016)

(2) 청년과 청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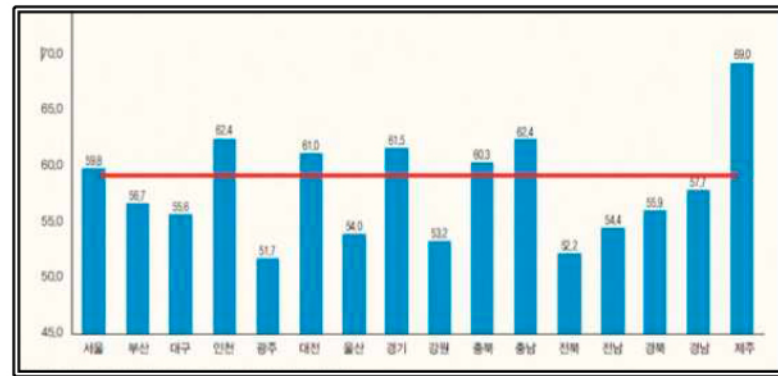
- 청년인구(만 19세 ~ 39세)는 2015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의하면 전체 청년 인구는 1507903명으로 전체인구의 29.3%를 차지함. 한국사회에서 청년이 사회문제의 주요대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임. 1996년 4.6%였던 15~29세 청년실업률은 1998년 12.2%로 상승하였으며, 이후 감소하였으나, 2012년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16년 3월 기준(통계청) 청년실업률은 11.8%에 이름

【그림 3】 한국의 청년실업률(1996~2014)



참고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996~2014)

【그림 4】 16개 시도별 청년(20~29세) 고용률(2016 3/4분기)



참고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6)

○ 청년층 실업률의 지속적 상승 문제 뿐 아니라 ‘열정페이’, ‘흙수저’, ‘N포세대’, ‘노오력’, ‘빨대족’, ‘이태백’, ‘NEET족’ 등의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청년층 실업률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제 청년 고용 문제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음. 이로 인해 정부 차원의 청년 정책은 고용창출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표 7】 국가 주요 청년 정책(2016)

구분	주요 내용 및 대상
교육 : 대학생 대상	- 국가장학금 I :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 국가장학금 II : 대학별 자체기준, 최소한의 대학별 성적 기준 충족 - 든든학자금 : 만 35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다자녀가구, 최소한의 성적기준 - 일반상환학자금 : 만 55세 이하, 소득 9분위 이하
사회보험	- 건강보험·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 자산조사 기반 - 산재보험 : 직업훈련생 - 고용보험 :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취약계층 청년대상 직업훈련 제공 (취업성공패키지)
공공부조 : 청년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만 15~29세 청년수급자 20.7만 명('14) - 직업훈련 : 조세를 기반으로 만 18~34세 청년 대상의 취업성공패키지 2제공(참여수당 20만원, 훈련수당 월 40만원(6개월))

구분	주요 내용 및 대상
고용 알선	- 고졸 취업준비생 : 진로·취업지원(6개), 교육·훈련·인력양성 사업(7개), 일자리창출·인턴제(2개) - 대학 재학생 : 진로·취업지원(6개), 교육·훈련·인력양성 사업(6개), 해외 인턴 및 취업지원(5개), 창업지원(4개) - 대졸 이상 취업준비생 : 진로·취업지원(3개), 교육·훈련·인력양성 사업(9개), 일자리창출·인턴제(8개), 해외인턴 및 취업지원(9개), 창업지원(5개)
고용 지원	- 교육·훈련·인력양성 사업(7개) : 일·학습병행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채용조건용 계약학과,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 초·중급 기술 개발 인력지원 - 일자리 창출·인턴제(3개) :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제도, 국민문화 향유권 확대,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 창업지원(8개) : 창조경제혁신센터,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지원 사업, 대학창업교육 체제 구축, 학교기업지원사업, 대학 기업가센터,
주거보조	-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2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대학생, 100%이하 장애인 등 - 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 희망하우징 :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 - 공공기숙사 : 해당지역 고교 출신자,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 - 재경기숙사(향토학사) : 본가 지방의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

○ 우리 사회의 고용 중심 청년 정책은 청년의 실존적 삶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양적·단기적 성과 중심의 정책이 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청년문제는 국가 정책 아젠다일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중요한 정책 대상이 되고 있음. 일례로 지역별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표 8】 지역별 청년기본조례 제정 현황

지역	조례명	제정 일시	청년 범위
서울	청년기본조례	2015.01.02.	청년고용특별법 적용
부산	청년문화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05.22.	나이규정 없음
대구	청년기본조례	2015.12.30.	19~39세
광주	청년정책기본조례	2015.12.28.	19~39세
대전	청년기본조례	2016.10.20.	19~39세
경기	청년정책기본조례	2015.08.13.	청년고용특별법 적용
충북	청년기본조례	2016.05.24	15~39세
충남	청년기본조례	2016.02.22	18~34세
전남	청년발전기본조례	2015.07.23	18~39세
경남	청년발전기본조례	2016.06.09.	19~34세
제주	청년기본조례	2016.06.22.	19~34세

○ 광주광역시 2015년 12월 공포한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를 통해 청년정책의 수립 및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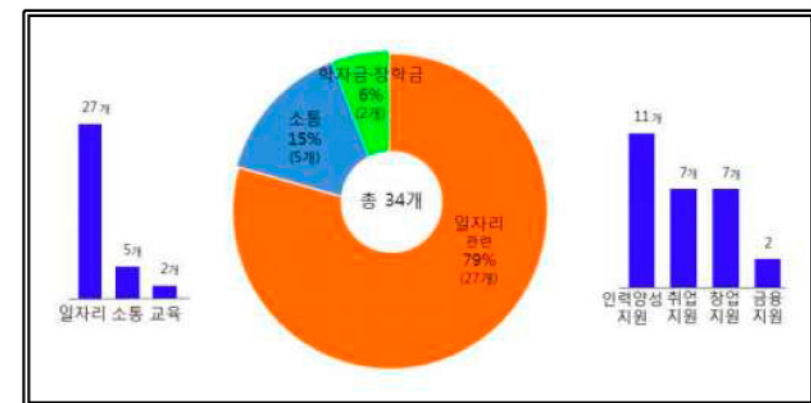
- 이 조례에서는 광주광역시장이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제5조)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제6조)을 규정함
- 또한 청년정책에 관하여 여러 계층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제8조), 기본계획에 담아야 할 사항(제5조)은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 청년고용의 촉진 및 안정, 청년창업의 지원, 청년의 부채경감 지원 등 생활안정, 청년문화의 활성화, 청년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 시책 등을 담음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은 2000년대 이후 진행되었음

○ 민선 5기인 2010년부터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등 청년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부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이는 중앙정부 추진사업을 광주광역시가 협력해 추진하는 방식이었음. 2006년부터 진행된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양성’사업에는 청년층이 일부 사업 대상으로 포함됨

- 그 외에 1994년부터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의 서울 기숙사인 ‘남도학숙’ 운영, 2002년 이후 ‘빛고을 장학금지원’, 2012년 이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 2015년 9월 지자체 최초로 청년정책 전담 부서인 ‘청년인재육성과’를 신설하면서 본격적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함
- 2015년 기준, 광주광역시 청년정책은 34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그 중에서 취업·창업 등 일자리 관련 정책이 27개를 차지해 전체 사업의 79%를 차지했고, 청년 관련 예산 투자는 광주광역시 전체 예산에서 0.1%에 그침
- 2016년 기준 청년 관련 사업은 8개 분야 43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총 28,616백만 원이며, 이는 2016년 광주광역시 총 예산의 0.7%를 차지

【그림 5】 2015 광주광역시 청년관련 정책 현황



참고 : <청년정책 기본계획>, 광주광역시(2016)

【표 9】 2016년 광주광역시 주요 청년 정책 현황

분야	사업
일자리	취업지원 - 사회협약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창출 모형 구축 - 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 - 특성화고·전문대학 맞춤형 취업약정 - 청년취업아카데미 - 광주일자리종합센터 취업지원 - 글로벌 청년취업지원사업 - 지역무역인재 해외인턴파견 - 이노비즈 인증획득 지원 - 청년·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증진
	창업지원 - 청년창조기업 육성 -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지원
	금융지원 -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 - 중소기업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 엔젤투자 매칭펀드 조성 -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 수출진흥자금 지원 - 경영안정자금 지원 - 무역 보험료 및 신용지원
	인력양성 -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양성 -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 무역아카데미 운영 - 중소기업 융합교류사업 - 실전창업인재 양성 - 스위스도제식 직업학교 인력양성
복지 분야	주거지원 - 어르신·대학생 셰어하우스와 남도학숙 운영지원
	금융지원 -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과 빚고을 장학금 지원
	권익보호 - 아르바이트 청년·청소년들의 노동권리 확보 및 노동환경 개선
문화 분야	일자리양성 - 문화콘텐츠 기획·창작 스튜디오 운영지원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분야	사업
	문화향유권확대 - 청년문화기획자 육성 - 청년의 거리 조성 - 청년축제 개최 - 제4회 G-POP 페스티벌 개최 - 광주 버스킹 운영 - 도내기 아시아 청년문화시장 만들기 - 광주 물총축제 지원
	문화공간지원 - 대학로 문화공간 조성사업 지원 - 청년의 거리 조성 - 도내기 아시아 청년문화시장 만들기
참여 분야	청년위원회 - 경제·일자리 분과 : 취업캠프, 청년상인 육성, 청년서비스 활성화 - 교육·진로 분과 : 청년 멘토링 - 문화·삶의질 분과 : 청년 문화공연, 청년 건강관리, 청년 셰어하우스 - 참여·소통 분과 : 청년조례 제정, 청년스터디 운영

※ 참고 : <청년정책 기본계획>, 광주광역시(2016)

3) 청년문화 개념과 청년문화 정책 현황

(1) 청년문화 개념

- 정책적으로 청년문화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최근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①항에서 ‘청년문화란 새롭게 다양한 것을 창조하고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이 반영된 문화’라고 정의하였음. 또한 <2014 부산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및 지원방안 연구>에서는 기성 사회의 가치관, 규범, 행동방식을 넘어서 새롭게 다양한 문화 및 생활양식을 창조하는 젊은 층의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화라고 청년문화를 정의하였음

- 반면 광주광역시도 <지역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2016)>과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016)> 등의 연구를 통해 청년문화를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새롭고 다양한 것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취향 및 문화예술활동 방식과 결과물, 그리고 가치관·태도·규범 등이 반영된 총체적인 삶의 양식’이라 정의함

(2) 청년문화 정책 현황

- 기존의 청년문화 정책은 문화예술정책이나 문화산업정책의 틀 속에서 해당 분야의 일자리창출이나 후속세대 양성이라는 차원에서 범주화됨. 즉 청년 문화예술 기획인력을 육성하거나 청년작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문화예술분야 기획인력 양성을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 활성화를 계기로 삼는 접근방식이었음
- 대표적인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창작(자) 지원사업으로 한국예술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신진작가 지원, 문화콘텐츠 제작자 지원, 예술 및 문화콘텐츠의 창업을 위한 공간 지원 등과 같이 문화예술 및 문화콘텐츠 분야의 창작자 지원사업이 대표적임

【표 10】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청년문화 정책

사업명	주관	내용
K-스타트업 포럼	한국콘텐츠진흥원	청년창업 관련 지원정책과 민간기관의 초기 창업자 지원·투자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설명, 실제 창업자들의 생생한 경험담 등으로 구성해 추진
인생나눔교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분야의 저명인사들을 주축으로 청년 및 청소년 대상 멘토링 사업
문화포털의 문화지원프로젝트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문화정보종합포털사이트 : 평소 문화생활을 즐길 여유가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기획, 문화선물캠페인, 문화이슈 콘텐츠 서비스
새싹-K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의 문화기술 성장단계를 ‘창업-성장-성

사업명	주관	내용
문화기술(CT) 프로젝트		숙’ 단계로 구분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사업지원을 통해 초기 창업부터 성장을 거쳐 성숙단계의 중견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선순환 문화산업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문화재단 차원에서는 청년층에 초점을 맞춘 문화예술지원사업이나 인력양성사업, 청년인력을 중심으로 한 사회혁신사업이나 지역재생사업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동시에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 역시 두드러짐
- 청년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지역에서 더 활발한 점은 최근 청년문제의 심각성이나 지역의 문화정책 실행에 있어서 청년 세대의 중요성이 지역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박영정 외, 2015)
- 지자체의 청년을 중심으로 한 청년 문화 정책은 ① 도시재생, 지역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② 지역민의 문화향유 및 문화활동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정책적 틀 내에서 청년문화예술인력을 확보하거나 육성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청년문화예술인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활동을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창작, 공간,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음. 최근에는 이러한 관심이 청년 문화예술인뿐 아니라, 지역 내 청년 일반에까지 확산되고 있음

【표 11】 지자체별 청년사업 현황

사업대상	사업명(사업주체)
청년문화예술인	- 청년예술가 창작환경 지원사업(충북문화재단) - 신진청년작가지원전(광주문화재단) - 청년연출가작품제작지원사업(부산문화재단) - 청년예술가육성사업(전남문화예술재단) -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창작발표사업(안산문화재단)

사업대상	사업명(사업주체)
	- 지역아동센터 청년예술강사 지원사업(경기도) - 청년예술인 창작공간지원사업(서울시 중구) - 부산 음악창작소(부산시, 문체부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사업)
문화·예술기획자가 되고자 하는 청년	- 문화예술사회적기업육성사업(부천문화재단) - 문화예술기획자양성사업(전남·광주문화재단) - 차세대문화예술기획자양성과정(대구문화재단)
마을·공동체·청년	- ○○은대학(구로·마포·성북·강화·온수리·부천·부평·관양시장) -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군포·부천·수원·안산·안양·오산·용인·하남·화성시문화재단) - 지역공동체문화만들기(인천문화재단) -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부산시 사상구) -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창원, 광주 등, 중소기업청)

※ 자료 :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박영정(2015)

- 지역은 주로 지역문화재단을 통해 다양한 청년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사업 대상에 따라 구분하면 ① 청년예술인 ② 문화예술기획자 ③ 청년 일반으로 나눌 수 있음. 주로 문화예술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며, 이와 함께 지역 재생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일반 대상까지 확대시키고 있음

【표 12】 지자체별 청년문화 정책 현황

사업대상	사업명	내용
청년 예술인	- 청년예술가육성사업(전남문화예술재단) -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창작발표사업(안산문화재단) - 청년 예술강사 지원 사업(경기도) - 청년예술인 창작 공간 지원 사업(서울 중구, 부산 음악창작소)	
문화예술 기획자	- 문화기획자 양성 아카데미(전남·광주문화재단, 인천 부평구 문화재단 등) - 문화예술 거점 기획 및 운영전문가 양성, 문화 동네 기획인력 양성(광주문화재단)	

사업대상	사업명	내용
	- 청년인재양성프로젝트(구미시) - 제주-서울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제주 문화예술재단) - 다사리 문화학교(경기 문화재단)	
청년 일반	- 청년, 동네를 상상하다(인천시) -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경기문화재단) - 청년+일자리예술&문화놀이(인천문화재단) - 청년, 지역에서 문화예술로 먹고 살기(춘천문화재단) - 청년문화프로젝트(부산) - 문화복합형 주거환경 관리사업(부산 사상구) -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중소기업청)	- 지역적 차원에서 문화예술분야를 포함하는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인력을 양성해 이들이 지역에 정착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역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 안에서 청년과 문화, 예술, 지역이 복합적으로 맞닿아 있음

※ 자료 :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박영정(2015)

- 지자체의 청년문화정책은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년 기획자 양성, 청년 예술인 지원 등의 소극적인 방식으로 제한된 영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

- 상대적으로 청년문화 정책을 앞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광역시는 최근 청년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례(〈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위원회를 위촉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청년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음

- 부산시는 지역문화 진흥의 근거법안이 되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대응하는 과제로 생활문화도시 부산 조성,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도시재생 연계사업 발굴, 문화재정의 안정적 확보, 협력형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함(부산발전연구원, 2014)

- 청년문화예술인의 지역 이탈을 줄이고, 청년문화예술의 선진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부산문화재단에서 2014년부터 예술영재창작활동, 인디문화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젊은예술가 문화예술지원 등의 분야에 대해 지원하고 있음
- 2016년에 추진할 과제는 4개 목표(창조적 문화활동 지원, 다양한 청년 문화 인력 양성,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청년문화 인프라 및 공간 육성)로 세부과제는 21개로 구성

【표 13】 부산광역시 2016년 추진과제

구분	사업명	내용
청년문화지원	창조적 문화활동지원	청년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 청년예술가(기획자)가 주도하는 청년문화저변확대 및 공공성을 갖춘 문화예술프로젝트 진행
		거리예술 콘텐츠 발굴 - 도심공간을 활용한 실험적 창의적 거리예술발굴 ※ 아트마켓 활성화사업과 연계
	다양한 청년문화 인력양성	청년문화 인력양성 <청년 예술가 창작 활동 컨설팅 지원> - 실무중심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우수컨텐츠를 발굴·선정하여 현장에 적용 - 참가자 선정은 추천을 통해서 모집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청년예술가 국제교류 - 지역 청년예술가의 작품, 활동 등을 국내외에 소개하고 지속적인 해외진출지원
		청년문화포럼 운영 - 지역 청년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의 계기마련
	청년문화 인프라 및 공간지원	아트마켓 활성화 - 청년문화활동을 통해 제작 생산된 제품을 유통 판매할 수 있는 아트마켓 지원 ※ 거리예술 콘텐츠 발굴지원사업과 연계
		청년문화공간 콘텐츠지원 - 지역별 자생적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문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의 실험적 청년문화 콘텐츠 발굴지원
		사상인디스테이션 운영 - 인디문화 예술가의 공연 전시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다양한 청년문화사업 추진
		인력인디트레이닝센터 운영 - 인디문화관련 단체 및 개인의 네트워크확대 및 자생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지원시스템 구축

구분	사업명	내용
	홍보사업	- 부산지역 청년문화 소식, 결과보고서제작, 계기성 홍보 진행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 사업	- 공연예술분야 청년예술가들의 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작품제작 지원 - 1차 쇼케이스진행 - 2차 공연제작비용 지원

※ 자료 : <2016청년문화육성기본계획>, 부산광역시(2016)

- 광주광역시는 최근 ‘청년도시 광주’라는 비전아래 정책 목표를 ‘청년의 문화 역량 제고와 문화향유권 확대’로 설정하고 있음. 세부목표로는 ① 청년의 다양한 문화향유 보장, ② 청년문화 인재 육성, ③ 청년공간 조성 및 활성화 등 임
- ‘청년의 문화 역량 제고’는 지역의 청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에 참여하면서 삶의 즐거움과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라는 총체적인 문화적 환경을 중시하고, 이러한 문화적 환경을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형성시켜 나갈 수 있는 문화적 실천에 초점
- ‘문화향유권’은 문화영역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그들의 문화를 가꾸고 표현하기 위한 권리의 보호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 그렇지만 이 비전과 목표는 기존의 청년문화 정책 내용과 크게 차별성을 가지지 않음
- 광주광역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년문화 분야사업은 크게 문화예술 일자리양성사업과 문화향유권 확대사업, 그리고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을 청년이 직접 개발/운영하고 광주광역시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

【표 14】 광주광역시 청년문화 정책 현황

분야	사업명	해당부서	특성
일자리 양성	문화콘텐츠 기획·창작 스튜디오 운영지원	문화산업과	일자리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문화산업과	
	청년문화기획자 육성	문화예술진흥과	
문화향유권	청년의 거리 조성	청년인재육성과	향유(콘텐츠)
	청년축제 개최	청년인재육성과	
	제4회 G-POP 페스티벌 개최	문화예술진흥과	
	광주 버스킹 운영	문화예술진흥과	
	도내기 아시아 청년문화시장 만들기	문화도시정책관	
	광주 물총축제 지원	관광진흥과	
문화공간	대학로 문화공간 조성사업 지원	청년인재육성과	공간(인프라)
	청년의 거리 조성	청년인재육성과	향유(콘텐츠)
	도내기 아시아 청년문화시장 만들기	문화도시정책관	

- 아울러 민선 6기 새로 신설된 ‘청년인재육성과(이후 청년정책과로 개편)’를 중심으로 청년정책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참여제도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혁신 아이디어를 결집하고,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공간 조성 정책을 추진
- 2016년 7월에는 광주광역시 ‘청년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해 문화예술 관련 정책에 청년의 입장을 반영하고, 문화예술영역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자문하는 활동 전개
- 향후 청년문화 관련 추가 사업으로는 청년예술인지원센터 건립 운영, 세계웹 콘텐츠페스티벌, 광주콘텐츠코리아랩 운영 등이 계획되어 있음
- 전체적으로 광주광역시 청년정책은 일자리 관련 정책에 집중되어 있으며, 청년문화와 관련된 정책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임. 또한 청년전담부서로 청년인재육성과가 있음에도 다양한 청년문화 정책이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함

4. 광주광역시 청년 현황

1) 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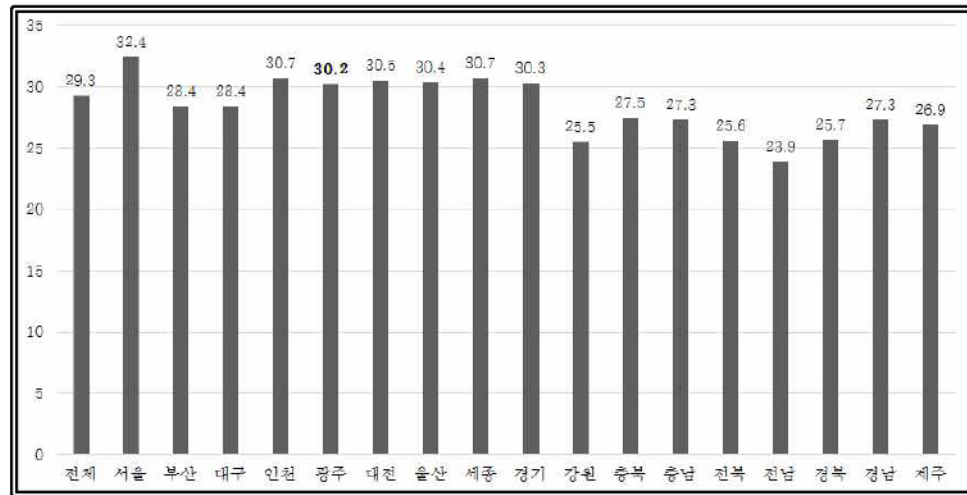
- 광주의 청년 인구는 445,157명으로 전체 인구의 30.2%를 차지하고 있음. 광주 청년인구 비율은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 중 다섯 번째에 속하고 전국 평균(29.3%)에 비해서는 높음

【표 15】 시도별 청년 인구 및 비율(만19세-만39세) (단위: 명, %)

지역	인구 수	청년 인구 수	청년 비율	19~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전체	51,500,986	15,072,903	29.3	4,231,780 (28.1)	3,148,938 (20.9)	3,751,762 (24.9)	3,940,423 (26.1)
서울특별시	10,045,027	3,253,901	32.4	829,058	747,595	863,511	813,737
부산광역시	3,515,689	997,852	28.4	289,293	212,561	243,932	252,066
대구광역시	2,489,847	707,561	28.4	217,020	146,063	164,483	179,995
인천광역시	2,923,030	898,398	30.7	252,331	189,089	223,344	233,634
광주광역시	1,474,603	445,157	30.2	135,603	87,235	106,424	115,895
대전광역시	1,522,288	464,216	30.5	135,638	98,005	112,130	118,443
울산광역시	1,173,050	356,458	30.4	102,879	72,450	88,375	92,754
세종특별자치시	202,214	62,068	30.7	12,850	11,066	17,537	20,615
경기도	12,491,080	3,779,088	30.3	1,042,104	767,094	938,284	1,031,606
강원도	1,549,221	395,576	25.5	125,817	79,368	89,943	100,448
충청북도	1,582,656	434,579	27.5	128,345	89,409	105,306	111,519
충청남도	2,073,340	566,306	27.3	153,630	115,207	144,436	153,033
전라북도	1,869,297	477,626	25.6	149,381	94,881	109,833	123,531
전라남도	1,905,616	454,653	23.9	142,321	87,475	106,570	118,287
경상북도	2,700,878	693,337	25.7	202,380	142,732	169,199	179,026
경상남도	3,361,489	918,664	27.3	262,784	177,301	228,090	250,489
제주특별자치도	621,661	167,463	26.9	50,346	31,407	40,365	45,345

자료: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통계청(2015.10)

【그림 6】 시도별 청년 인구 비율(만19-만39세) (단위: %)



○ 광주광역시 주민등록 등록 인구(2015년 10월 기준)는 1,474,603명이며, 이중 청년 인구는 445,157명임. 전체 인구의 성비는 남성 49.6%, 여성 50.4%로 여성이 약 13만 명 더 많은데 비해 청년층의 성비는 남성 51.1%, 여성 48.9%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1만 명 더 많음

○ 자치구별 청년 인구를 살펴보면 광산구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으며 (123,412명, 30.8%), 다음으로 북구(137,339명, 30.7%), 서구(92,352명, 30.2%), 남구(63,745명, 28.8%), 동구(28,309명, 28.4%)순으로 나타남

【표 16】 광주광역시 구별·성별 청년 인구 (단위: 명)

행정 구역	구분	전체 인구수	청년 인구수	19~24세	25~29세	30~34세	34~39세
광주광역시	계	1,474,603	445,157	135,603	87,235	106,424	115,895
	남	730,729	227,418	71,080	44,699	53,896	57,743
	여	743,874	217,739	64,523	42,536	52,528	58,152
동구	계	99,641	28,309	8,245	6,322	7,097	6,645
	남	49,738	14,875	4,195	3,331	3,785	3,564
	여	49,903	13,434	4,050	2,991	3,312	3,081

행정 구역	구분	전체 인구수	청년 인구수	19~24세	25~29세	30~34세	34~39세
서구	계	306,236	92,352	29,027	18,725	21,490	23,110
	남	150,544	46,649	15,214	9,446	10,850	11,139
	여	155,692	45,703	13,813	9,279	10,640	11,971
남구	계	221,414	63,745	20,211	12,511	15,128	15,895
	남	107,135	32,284	10,403	6,389	7,509	7,983
	여	114,279	31,461	9,808	6,122	7,619	7,912
북구	계	447,207	137,339	42,849	28,563	32,754	33,173
	남	222,457	71,245	22,660	14,699	16,988	16,898
	여	224,750	66,094	20,189	13,864	15,766	16,275
광산구	계	400,105	123,412	35,271	21,114	29,955	37,072
	남	200,855	62,365	18,608	10,834	14,764	18,159
	여	199,250	61,047	16,663	10,280	15,191	18,913

자료: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통계청(2015.10)

○ 광주 청년들의 2014년 전출입 인구는 총 73,667명이었음. 타 시도에서 광주로 전입하는 청년은 35,204명, 타시도로 전출하는 청년이 38,463명으로 전출 인구가 3,000여명 더 많았음

【표 17】 광주광역시 청년 전출입 통계(만20세~만39세)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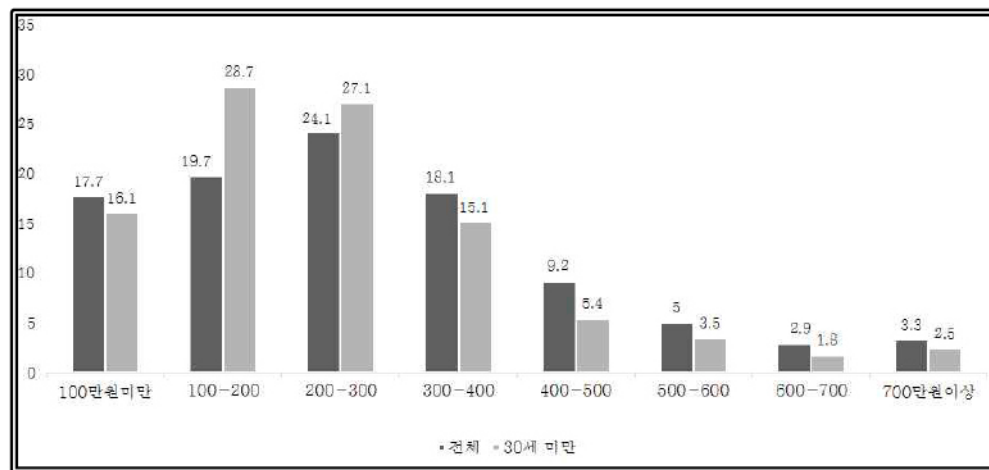
시도별	전입	전출	시도별	전입	전출
전체	35,204	38,463	경기	4,819	6,058
서울	5,017	7,012	강원	401	547
부산	793	762	충청	426	509
대구	408	355	충남	851	1,174
인천	958	1,080	전북	3,040	2,618
대전	581	874	전남	8,000	8,000
울산	210	295	경북	444	495
세종	79	265	경남	711	891
			제주	291	461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2014)

2) 경제 현황

- 2014년 광주광역시 사회지표조사 결과 광주광역시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미만인 가구가 61.5%,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38.5%였음. 30세 미만 청년 가구주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미만이 71.9%, 300만 원 이상이 28.1%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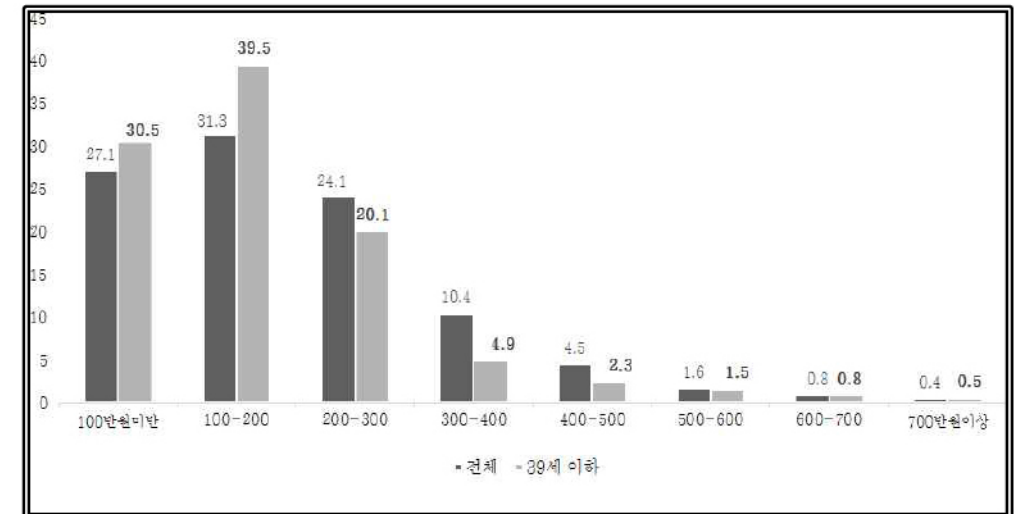
【그림 7】 가구별 월평균 소득(광주, 2014년 기준) (단위: %)



참고 : <광주의 사회지표>, 광주광역시(2014)

- 광주의 가구별 월평균 소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300만원 미만이 82.5%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청년 가구주의 가구일 경우 90.1%가 300만원 미만이었음. 100만원 미만의 청년 가구주의 비율이 30.5%, 100만 원 이상 200만원 미만 이 가장 높은 39.5%였음.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식료품비(48.8%)였으며, 이어서 기타(29.9%), 교육비(28.4%), 주거비(25.4%) 순이었음. 반면 청년 가구주 가구의 경우 전체 가구와 동일하게 식료품비(54.3%)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주거비(34.7%), 기타(28.6%), 교통비(21.8%) 순이었음

【그림 8】 가구별 월평균 소비지출(광주, 2014년 기준) (단위: %)



참고 : <광주의 사회지표>, 광주광역시(2014)

【표 18】 가구별 월평균 소비지출 항목(광주, 2014년 기준) (단위: %)

생활비 지출	식료품비	주거비	교통비	가사용품비	의류비	보건 의료비	교육비	문화/교양/오락	기타
전체	48.8	25.4	16.2	2.7	5.5	20.3	28.4	6.2	29.9
청년	54.3	34.7	21.8	2.4	11.1	5.3	18.6	11.1	28.6

자료: <2014 광주의 사회지표>. 광주광역시(2014)

- 2015년 광주 청년층 취업자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은 53.7%, 여성은 46.3%를 차지해 남성 취업자 비중이 높았음. 그러나 15~29세 청년층의 경우 여성 55.6%, 남성 44.4%로 여성의 취업자 비중이 높았음

【표 19】 2015년 광주 청년층 취업자 수 (단위 : 명)

구분	남	여	합계
15~29세	46,817	58,732	105,549
30~39세	97,170	65,182	162,352
청년층	143,987	123,914	267,901
전체	376,242	305,544	681,786

- 광주 지역 청년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2015년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은 20대 청년층의 경우 전국은 165.7만원, 광주는 153.4만원이었으며, 30대 청년층은 전국은 251.2만원, 광주는 236.75만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표 20】 광주지역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현황 (단위 : 만원)

구분	전체		20대		30대	
	전국	광주	전국	광주	전국	광주
전체 평균	227.03	214.99	165.73	153.48	251.16	236.75

- 광주광역시의 2015년 『광주청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33.8%가 부채가 있었음. 부채 규모는 최소 부채액은 20만원, 최대 부채액은 3억 원이었으며, 평균 부채액은 4,031.1만원이었음. 이들의 부채사유는 부동산 및 생활비가 각 17.7%로 가장 높았으며, 학자금 대출 13.1%, 창업자금 5.9%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연령대별로 부채 사유를 살펴보면, 만19~24세집단과 만 25~29세 집단은 학자금 대출이 많았으며(각 34.8%, 27.0%), 만30~34세 집단은 생활비(25.6%), 만35~39세 집단의 가장 많은 응답은 부동산(25.5%)이었음

【표 21】 광주 청년의 부채 사유 (단위 : %)

구분		사례수	부동산	생활비	학자금 대출	창업 자금	부모님 경제력 악화	고가 제품 구매	의료비	기타	무응답
전체		406	17.7	17.7	13.1	5.9	4.9	4.7	1.5	7.4	27.1
성별	남성	179	19.0	18.4	15.1	7.3	3.9	6.7	1.1	3.9	24.6
	여성	227	16.7	17.2	11.5	4.8	5.7	3.1	1.8	10.1	29.1
연령	19~24세	69	2.9	13.0	34.8	2.9	13.0	-	-	14.5	18.8
	25~29세	63	7.9	15.9	27.0	3.2	6.3	3.2	3.2	7.9	25.4
	30~34세	121	21.5	25.6	5.8	4.1	3.3	5.8	0.8	6.6	26.4
	35~39세	153	25.5	14.4	3.3	9.8	2.0	6.5	2.0	4.6	32.0

자료: <광주청년종합실태조사>. 광주광역시(2016)

제3장

해외 청년문화 정책 현황과 사례

1. 국가별 청년문화 정책

1) 유럽

- 유럽의 국가들은 청년세대의 창의적 에너지를 표현하고 그들의 개인적 발전과 공동체 의식의 향상에 문화예술 활동이 중요함(InterArts, 2008)에 공감하고, 청년을 위한 문화예술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청년의 예술 창작 지원 및 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영국의 사례나, 청년 세대를 위해 미술관, 오페라 등의 프로그램 확충을 실시하는 스페인 등의 사례가 대표적임, 그리고 이에 따라 EU 차원에서도 EU 회원가입국 청년들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European Youth Card>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표 22】 유럽의 청년문화 정책

국가	사업내용
EU	EU 회원가입국 청년들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European Youth Card>
영국	- 예술위원회, 『영국 예술 10년 계획』(2010) 발표: ‘더 많은 사람이 예술을 경험하고 예술을 통해 영감을 얻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모든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예술의 풍요로움을 경험한 기회를 제공한’고 밝힘 - 2012년 영국 문화 올림피아드의 메인 프로젝트였던 “Somewhereto_” : 예술문화와 스포츠에 열정을 가진 16~25세의 젊은이들에게 폐허가 되었거나 활용되고 있지 않은 건물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이를 문화예술 활동과 스포츠의 장으로 바꾸어 지역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창출한 사례 - 『Young People and the Arts: a consultation』(2014) 발표: 예술이 ①개인의 잠재력 향상, ②교육의 효과 향상, ③공동체의 통합과 정체성 형성에의 기여, ④창조산업을 통한 경제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특히 이는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필요한 권리임을 강조하고 청년세대를 위한 예술정책을 촉구함 - 젊은이들의 예술체험 기회 증진과 청년 관객층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무료관람 회원제 운영 및 할인 티켓 제공

국가	사업내용
스페인	- 이용자, 구매자, 소비자, 관중으로서의 청년세대를 위해 박물관, 국립미술관과 오페라, 영화 및 연극, 도서관 등의 프로그램을 증진하고 공동체, 기술, 교육 등을 통한 청년세대의 예술 향유 기회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도입함
프랑스	- 『문화와 예술을 위한 5개년 계획』(2000) 발표: 문화 접근기회 확대의 중요성,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정체성 형성 도모 등을 정책과제로 삼고 있으며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문화예술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을 진행

○ 독일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정책은 부재함. 이는 독일의 문화교육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인식하여 진행되고 있기 때문임

- 독일의 경우 ‘문화교육’을 통해 의사소통 역량을 증진하고 비판적인 인식능력과 미디어 이해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독일문화협회&문화교육진흥협회, 1988)
- 이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의 미디어문화부를 중심으로 전 연령층 대상 예술교육과 문화전달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최대수혜자는 ‘아동·청소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그렇지만 더 큰 틀에서 문화교육을 평생교육 개념으로 인식하고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문화소외집단 없이 전 국민 문화예술 수혜자 만들기’라는 미디어문화부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요 정책의 기초를 반영하고 있음

2) 미국

○ 미국의 문화정책은 전 국민의 문화향수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미국은 ‘예술교육’을 ‘예술의 발전’ 및 ‘예술접근성 증진’과 함께 문화정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함

- 미국 문화예술교육의 기본 방향은 ‘민주주의’, ‘다문화주의’, ‘다원주의’로,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개발·보존되는 문화로서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강조하며, 모든 사람이 자율적으로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것을 중요시함
- 특히 예술이 아동 및 청소년 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예술교육을 통해 예술에 대한 인식 능력을 키우고, 창의성 있고 문화적인 인격체나 시민으로 성장하게 돕는 것을 목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함

3) 일본

- 일본의 경우 청년들을 위한 문화정책으로 전 국민 대상의 문화력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인 문화체험 관람 지원과, 문화예술분야 신진인력을 위한 지원정책이 있음
- 2014년 3월, 일본은 202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문화예술입국 중기 플랜(文化藝術立國中期プラン)』을 발표함. 이는 일본 문화예술진흥정책의 초안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중 국민대상의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 사업 내에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포함되어있음
- 일본은 2020년까지 미술관, 박물관 등에 대한 문화체험목적 관람객을 50%대(현재 20%)대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지역·세계교류 부문별로 추진방향을 설정해 강력한 문화력의 기반을 형성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음. 현재 문화력 증진을 목표 하에서 국민 전반의 문화체험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년도 국민의 일원으로써 수혜 대상에 포함됨

【표 23】 일본-문화예술입국 중기 플랜(2014.3.)

부문	주요내용
국민 대상 정책	- 문화예술에 의해 창의력·상상력 풍부한 어린이 육성 - 예술교육자(기획자), 전문 인력의 육성·활용(문화 접근성 증대) - 우수 예술가의 육성, 전통 예술 등의 후계자 전승자 양성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	- 문화재 보존 수리의 근본적 강화 - 지역의 문화 자원을 살린 마을 만들기 - 창조 도시 네트워크를 통한 진흥
세계 문화교류의 허브	- 일본의 전통 공예, 예술과 생활문화(의, 식, 주)의 해외 홍보 - 해외에서의 일본 문화 소개 - 국내 예술 축제, 국제회의 개최
시설 정비	- 조직·제도의 정비

자료 : 文化藝術立國中期プラン, 일본 문화청(2014)

- 또한 일본은 문화예술 인력지원의 차원에서 청년들을 지원하기도 함. 일본 정부는 신진 예술가들에 대해 해외 유학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신진 예술가들이 인프라를 조성하고 근본적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대학을 활용한 문화예술진흥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예술대학의 자원(연구 시설, 자료 등)을 활용해 극예술과 예술 경영분야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것임

2. 분야별 해외 청년문화 정책

- 해외 청년문화 정책들 중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축제, 공간 지원 및 활용, 문화예술가 인큐베이팅 등 3가지 영역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중 인큐베이팅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전 세계적인 실업률 증가와 연결되어 있음

1) 청년 축제 _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 프린지(fringe)의 사전적 의미는 변방 혹은 주변부를 뜻하며, 문화적 의미로서의 프린지는 미래 지향적인 젊은 예술가들의 자발적인 축제공동체를 의미. 프린지의 원칙은 Do It Yourself 로 모든 예술적 기준에 의한 심사나 선별과정을 배제함
- 에딘버러에서 탄생된 프린지 페스티벌은 해를 거듭할수록 주변부 공연단체의 수가 늘어나고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면서 1957년 마침내 페스티벌 프린지협회(The Festival Fringe Society)가 결성되면서 발전을 거듭함
- 이후 1970년대 들어 아비뇽 페스티벌에서도 오프(The Off)라는 명칭으로 프린지와 동일한 원리와 방식의 공연들을 선보임
- 현재 에딘버러와 아비뇽(프랑스), 무브먼트(북미), 아들레이드(호주) 등 4대 프린지를 비롯해 세계 40여 개국의 도시에서 프린지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으며, 대안문화의 현장으로서 강력한 예술전본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이송이, 2005)

【표 24】 국내외 프린지 페스티벌 비교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아비뇽 페스티벌 오프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
축제운영	프린지축제 위원회 (The Festival Fringe Society)	아비뇽퍼블릭오프 (Avignon-Public-Off)	서울프린지네트워크 (Seoul Fringe Network)
운영방침	자유참가	자유참가	자유참가+소극적 기획
개최장소	에딘버러시 (극장, 콘서트홀, 학교, 교회, 호텔, 카페, 클럽, 식당, 야외정원 등)	아비뇽시 (거리, 광장, 지하철, 창고, 소극장 및 임시극장 등)	홍대 인근 (극장, 라이브클럽, 대안전시공간, 거리 등)
개최배경	1947년 에딘버러페스티벌에 초대받지 못한 8개의 팀에 의해 생성, 프린지의 시작	1971년 프린지와 동일한 원리 와 방식으로 'The Off'라는 이름으로 시작	1998년 독립예술제로 시작, 2002년 서울프린지페스티벌로 재탄생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아비뇽 페스티벌 오프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
행사성격	어린이공연, 코미디와 익살극, 댄스와 신체적 표현, 음악, 뮤지컬과 오페라, 토크와 이벤트, 연극, 비주얼 아트	공연예술의 전장르 (연극, 서커스, 무용, 음악, 인형극, 시낭송, 콩트, 거리극 등)	음악, 미술전시, 아시아 독립영화, 무대예술(연극, 무용, 마임, 퍼포먼스 등), 거리공연
행사목적	- 새로이 부상하는 젊은 예술가들의 공간 - 대안적 실험, 비주류적 공연예술의 장	- 가능한 많은 대중에게 공연예술의 보급 - 극단 종사자들의 자기 훈련 및 검증 공간 - 아비뇽 지역의 경제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 - 관련 종사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토론의 장 마련	- 축제적 교류의 장을 통한 독립예술인들의 미래를 개척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선도적 역할의 밑거름 - 아시아 예술인들의 교류의 장 마련
행사내용	2002년 1,491편의 작품이 20,342회 공연	2003년 664편의 국내공연 45편의 해외공연	2004년 아시아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 참가 125회 공연, 187회 전시, 22회 상영, 9회 행사
관람인원	2002년 약 100만명	2003년 회원관객수 30,766명	2004년 154,821명
주제	항상 새로운 공연을 추구,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축제	실험적 정신	한국적 프린지의 실험과 모색

2) 공간_프랑스 퐁피두 센터

- 조르주 퐁피두 국립미술·문화센터(Centre National d'Art et de Culture Georges Pompidou) 이른바 퐁피두센터는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문화대중화'를 위한 핵심적 기능을 하는 곳임
- '복합문화예술공간'인 퐁피두센터는 탈장르적 문화의 복합화가 낳은 문화적 산물임. 퐁피두센터에는 공공정보도서관(Bibliothèque Publique d'Information)과 20세기 중요 미술품이 있는 국립근대미술관(Musée National d'Art Moderne)

과 더불어 음향·음악연구소(IRCAM, Institute de Recherche et Coordination Acoustique et Musique)75)가 있음. 이외에도 영화관 극장, 강의홀, 서점, 레스토랑, 카페 등이 있으며 퐁피두센터 앞의 광장은 공연과 퍼포먼스가 벌어짐

- 퐁피두센터의 창조의 기능을 대표하는 기관으로는 '음향·음악연구소(IRCAM)'가 있음. 연구소는 음악창조에 응용되는 정보처리기술과 물리학, 음향학과 같은 영역에서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전문가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일반인들을 위한 강연회 등이 운영됨. 매년 다수의 작곡가들을 초대하여 클래식 연주자와 새로운 기술을 접합시킨 20~25개 작품을 작곡하도록 하고 있음
- 퐁피두센터의 공공정보도서관(BPI)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찾는 도서관 중 하나이며, 정보 기능을 수행하는 퐁피두의 핵심 시설임. 공공정보도서관은 대중 모두가 문화와 예술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곳임
- 음향연구소와 공공도서관 등은 퐁피두센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구의 기능과 정보의 기능을 수행함. 퐁피두센터의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생산자와 향유자를 연결시키는 '총체적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민유선, 2016)

【표 25】 퐁피두센터 시설현황

기능	명칭	규모	활용
전시장	현대미술관	17,200㎡	- 현대미술전시
	특별전시장	3,600㎡	
	산업창조센터	3,730㎡	-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디자인 개발 및 전시공간
영상(관)	영화박물관		- 영화필름 보존 및 상영공간
공공정보도서관	자료센터	15,000㎡	- 책, 잡지레코드 등의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
연구	IRCAM	3,000㎡	- 음향과 음악에 대한 실험조정 연구소
기타	어린이 스튜디오	1,000㎡	- 어린이를 위한 화실, 놀이터, 탁아소 등
	야외 광장		- 야외전시, 음악연주, 꽃시장 등

3) 문화예술인력 지원

(1) 호주예술위원회 점프 프로그램(JUMP)

- 호주예술위원회는 1975년 연방정부에 의해 설립된 문화예술 지원 및 자문기관으로 기금 지원을 통해 호주 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구임
- 호주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 지원은 호주 예술을 위한 기금 지원, 호주 예술 진흥, 호주 예술 분야 개발의 세 가지 특성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지원 목표는 창작개발 및 양성, 새로운 예술장르개발, 시장개발(국내외 새로운 관객층 창출), 호주 예술가들의 해외 작품 활동 지원 등임

【표 26】 호주예술위원회 지원프로그램

분야	내용
주요예술단체지원	- 예술적 독창성이 뛰어난 소수의 단체나 활동에 대한 1년 기본 지원 - 지속적인 개발과 이해에 공헌한 단체의 3년 지속 지원
신작지원	-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예술역량개발	- 예술가 및 단체의 역량 향상 및 독창적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지원
발표 및 프로모션 지원	- 국내외 시장을 대상으로 발간하는 저작 및 출판에 대한 지원
특별 연구지원	- 우수한 예술가의 독자적인 창작활동을 2년간 집중 지원

- JUMP는 호주의회에 의해 관리되고 새로운 예술가들이 기회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경력의 초기단계에 있는 예술가들을 위해 멘토십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함

- 점프는 젊은 세대의 예술과 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지역 기관인 퀸즐랜드 청년 예술 위원회(YAQ: Youth Arts Queensland)에 의해 전국적으로 운영됨. YAQ는 점프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주관하고, 프로그램 목표의 달성 여부를 감독하고, 지역과 주 정부의 관리직 요인들과 호주 예술계 사이의 협력을 위한 중개인 역할을 함
- ‘JUMP 프로그램’은 신진예술가들의 투자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고 멘토링과 온라인 프로파일링, 네트워크 구축지원을 함.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원예술가와 멘토, JUMP사업에 참여한 예술가를 프로파일링하며 검색을 통하여 예술가와 멘토의 프로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공지를 통하여 사업에 참여했던 예술가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함으로 사후관리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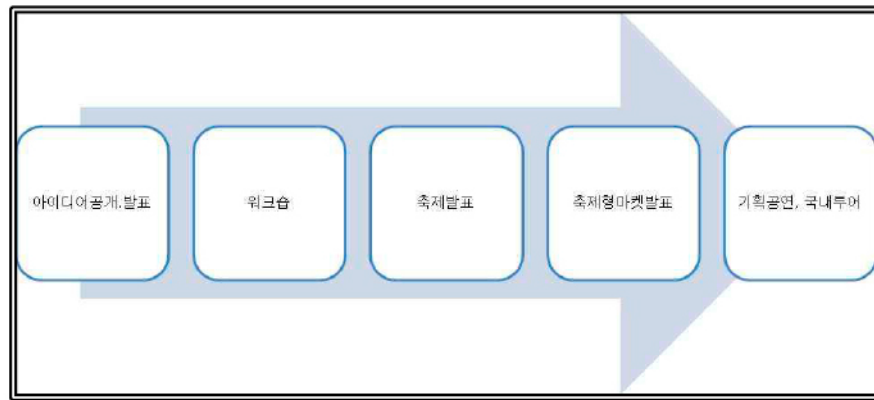
(2) 영국 런던의 BAC(Battersea Arts Center)

- 런던의 BAC(Battersea Arts Center)은 160석 규모의 공연장, 그랜드 홀 등을 갖춘 공간으로, 단순한 제작방식에서 벗어나 초기 단계에서부터 극단과 프로듀서를 동시에 인큐베이팅하는 제작중심의 아트센터임
- 신체 연극, 오브제 연극, 새로운 실험뮤지컬, 마임, 인형극 등의 새로운 연극을 시도하고, 세 단계 프로듀서 시스템을 통한 1~3년 간 스크래치 무대(Scratch Stage / 일종의 Work-in-process Stage) 활용 및 다섯 단계 예술가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초기부터 예술가를 육성함
- BAC의 프로그램은 Young people, Schools&Creativity, Volunteering & Career Development로 나뉘어 있고, 일반 시민들과 예술가들이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세단계의 프로듀서단계와 BAC SCRATCH NIGHTS라는 다섯 단계의 공연 방식으로 만들어짐. 프로

듀서 단계는 세 가지 단계 즉 수습 프로듀서(Trainee Producer), 프로듀서(Producer), 그리고 시니어 프로듀서 (Senior Producer) 단계임

- BAC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예술가 개발프로그램으로 작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진행되는 BAC SCRATCH NIGHTS 프로그램임. 이 프로그램은 5단계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이 진행됨(김수연, 2011)

【그림 9】 BAC SCRATCH NIGHTS 프로그램 단계



○ 단계별 내용

- 1단계 : 프로듀서 회의를 통하여 선정된 극단이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작품 아이디어를 공개하거나, 15분 이내로 만들어진 작품을 발표하여 관객(친구, 또 다른 예술가 그룹, 일반관객)으로부터 피드백을 듣는다.
- 2단계 : 완성된 작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만들어진 작품을 극단과 관련된 사람이나 친구들을 초대하여 가장 기본적인 기술지원과 함께 무대에 올림. 이 단계에서 티켓의 가격은 기존 공연의 반 가격이며 관객으로부터 직접적인 피드백이나 현장 설문지, 그리고 이메일로 공연에 대한 느낌들을 듣는다.
- 3단계 : 완성된 공연을 일 년에 세 번 열리는 BAC 축제를 통해 발표하게

하고 극장에서는 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시작한다.

- 4단계 : 단계는 극장의 프로듀서와 시니어 프로듀서가 에든버러 등 축제형 마켓에 인큐베이팅된 작품을 선보이고 점차 BAC 극장을 벗어나 외부에서의 투어 기획 제공과, 정식으로 일반관객과 비평가들로 공연 평을 받게 한다.
- 5단계 : 몇 주간의 기획공연과 국내 투어를 시작하는 한편, 프로듀서와 함께 해외 공연시장을 개척하게 됨. 이러한 단계를 1~3년 거친 극단들 중에는 준 회원 예술가 그룹은 계속 유지하면서, 해당 프로듀서와 함께 독립 프로덕션으로 꾸려져 BAC 극장과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한다.

제4장

청년 실태조사 자료 분석 및 시사점

1. 광주 청년의 문화적 실천

- 청년의 문화적 실천은 앞서 보았듯이 일상문화활동, 대중문화 이벤트, 예술 향유, 문화예술 창작의 네 유형으로 구분됨
- 문화적 실천의 핵심은 문화예술 향유로, 이것은 문화정책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중요한 정책 영역임.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또한 인권적 측면에서 문화예술 향유는 자유롭게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문화 향유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문화기본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
- 문화예술 창작은 문화예술 향유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간 문화향유의 보다 고양된 형태라 할 수 있음
- 일상문화활동과 대중문화 이벤트는 가장 진입장벽이 낮으면서도 시민들이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실천 방식이라 할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실천이 예술 향유나 문화예술 창작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는 아직 본격적으로 분석된 바가 없음

1) 일상문화활동

□ 온라인 문화 향유

- 온라인을 통한 영화, 음악, 독서, 게임 등의 문화 향유의 참여율은 1년간 72.4%였으며, 참여자의 평균 참여 횟수는 2.98회였음
- 세대별로는 20대가 30대에 비해 참여율이 더 높았음
- 활동가의 95%는 참여 경험이 있었으며, 일반-미취업, 일반-취업 순이었음
- 학력별 참여 경험은 대졸 이상, 대졸 이하 집단 순이었으며, 참여횟수는 대졸 집단이 가장 높았음
- 가구소득별로는 300-500만원, 5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집단 순이었음
- 부모이전소득 집단은 근로소득 집단보다 참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7】 일상문화활동_온라인 문화 향유 : 분산분석 (단위:명%회)

구분	사례 수	참여 여부		참여 횟수			
		참여	미참여	평균	F	최솟값	최댓값
전체	1,007	72.4	27.6	2.98	-	0.25	80.00
연령별	20대	507	78.3	21.7	1.099	0.25	21.00
	30대	500	66.4	33.6		0.50	80.00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73.4	26.6	2.084	0.25	80.00
	일반-취업	364	58.8	41.2		0.50	40.00
	활동가	200	95.0	5.0		1.00	10.0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47.8	52.2	4.800**	1.00	15.00
	대재/휴학/유예	292	80.8	19.2		0.25	80.00
	대졸 이상	554	75.1	24.9		0.50	40.00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69.1	30.9	.003	0.50	20.00
	300-500만원	390	74.4	25.6		0.25	80.00
	500만원 이상	319	73.0	27.0		1.00	40.00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71.3	28.7	.049	0.50	80.00
	부모이전소득	320	75.3	24.7		0.25	21.00

*** $p < 0.001$

□ 카페 및 맛집 탐방

- 카페 및 맛집 탐방의 참여율은 75.6%였으며, 참여자의 평균 참여 횟수는 3.04회였음
- 20대는 30대에 비해 참여율이 약 10%더 높았음
- 직업별로는 활동가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일반-미취업, 일반-취업 순이었음
- 학력별 참여 경험은 대졸 이상, 대재, 고졸 이하 집단 순으로, 고졸 이하의 참여율은 절반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집단 순이었음

【표 28】 일상문화활동_카페 및 맛집 탐방 : 분산분석 (단위:명%회)

구분	사례 수	참여 여부		참여 횟수			
		참여	미참여	평균	F	최솟값	최댓값
전체	1,007	75.6	24.4	3.04	-	0.50	180.00
연령별	20대	507	80.1	19.9	3.167	0.50	180.00
	30대	500	71.0	29.0		1.00	60.00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72.7	27.3	.991	0.50	50.00
	일반-취업	364	70.1	29.9		1.00	180.00
	활동가	200	92.0	8.0		1.00	30.0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55.9	44.1	2.354	1.00	10.00
	대재/휴학/유예	292	78.1	21.9		0.50	180.00
	대졸 이상	554	80.0	20.0		0.50	60.00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75.8	24.2	1.804	1.00	50.00
	300-500만원	390	72.8	27.2		0.50	50.00
	500만원 이상	319	78.7	21.3		0.50	180.00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74.7	25.3	.411	1.00	180.00
	부모이전소득	320	75.9	24.1		0.50	50.00

□ 요가, 헬스, 산책 등의 운동

○ 운동의 참여율은 57.6%였으며, 참여자의 평균 참여 횟수는 3.67회였음

- 20대는 30대에 비해 참여율이 더 높았음
- 직업별로는 활동가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반-미취업, 일반-취업 순으로, 일반-취업 집단은 절반보다 낮은 참여율을 보임
- 운동 참여율이 가장 높은 학력별 집단은 대재 집단이었으며, 이어서 대졸 이상, 고졸 이하 집단 순이었음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참여율은 높아짐

【표 29】 일상문화활동_요가, 헬스 산책 등의 운동 : 분산분석 (단위: 명, %, 회)

구분		사례 수	참여 여부		참여 횟수			
			참여	미참여	평균	F	최솟값	최댓값
전체		1,007	57.6	42.4	3.67	-	.30	200.00
연령별	20대	507	64.3	35.7	3.84	.164	.30	200.00
	30대	500	50.8	49.2	3.45		.50	120.00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53.5	46.5	3.64	.439	1.00	120.00
	일반-취업	364	46.7	53.3	4.27		.30	200.00
	활동가	200	86.5	13.5	3.13		.50	40.0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43.5	56.5	3.08	.114	1.00	10.00
	대재/휴학/유예	292	63.0	37.0	3.82		1.00	70.00
	대졸 이상	554	58.8	41.2	3.71		.30	200.00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55.4	44.6	4.68	.922	.30	200.00
	300-500만원	390	55.6	44.4	3.24		.50	70.00
	500만원 이상	319	62.1	37.9	3.30		.50	50.00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57.6	42.4	3.54	.304	.30	200.00
	부모이전소득	320	57.8	42.2	4.12		1.00	120.00

2) 대중문화 이벤트

□ 영화 관람

○ 영화 관람의 참여율은 80.8%였으며, 참여자의 평균 참여 횟수는 10.28회였음

- 20대의 참여율은 30대에 비해 근소하게 높았음
- 활동가의 94.5%는 참여 경험이 있었으며, 이어서 일반-미취업, 일반-취업 순이었고, 참여 횟수도 동일한 순으로 차이를 보임
-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참여 경험과 참여 횟수도 증가함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참여 경험의 비율이 높았으며, 참여자의 횟수는 300만 원 미만 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부모이전소득 집단은 근로소득 집단에 비해 근소하게 더 높은 참여율을 보임

【표 30】 대중문화 이벤트_영화관람 : 분산분석 (단위: 명, %, 회)

구분		사례 수	참여 여부		참여 횟수			
			참여	미참여	평균	F	최솟값	최댓값
전체		1,007	80.8	19.2	10.28	-	1.00	100.00
연령별	20대	507	81.3	18.7	10.89	2.086	1.00	100.00
	30대	500	80.4	19.6	9.66		1.00	100.00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78.3	21.7	8.67	42.478***	1.00	100.00
	일반-취업	364	76.4	23.6	7.70		1.00	70.00
	활동가	200	94.5	5.5	17.01		1.00	100.0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74.5	25.5	6.74	6.412**	1.00	30.00
	대재/휴학/유예	292	80.1	19.9	10.48		1.00	100.00
	대졸 이상	554	83.0	17.0	11.12		1.00	100.00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79.5	20.5	11.27	3.131*	1.00	100.00
	300-500만원	390	80.3	19.7	8.95		1.00	100.00
	500만원 이상	319	82.8	17.2	10.97		1.00	100.00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80.4	19.6	10.60	.918	1.00	100.00
	부모이전소득	320	81.6	18.4	9.75		1.00	50.00

** $p < 0.01$, *** $p < 0.001$

□ 대중가요 콘서트 관람

- 대중가요 콘서트의 참여율은 23.8%였으며, 참여자의 평균 참여 횟수는 2.08 회였음
- 20대의 참여율은 30대에 비해 근소하게 높게 나타남
- 활동가의 절반가량은 참여한 경험이 있는 반면, 나머지 집단은 10%대의 참여율을 보임
-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 집단의 참여율은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남
- 근로소득 집단은 부모이전소득에 비해 근소하게 높은 참여율을 보임

【표 31】 대중문화 이벤트_대중가요 콘서트 관람 : 분산분석 (단위: 명, %, 회)

구분	사례 수	참여 여부		참여 횟수			
		참여	미참여	평균	F	최솟값	최댓값
전체	1,007	23.8	76.2	2.08	-	1.00	30.00
연령별	20대	507	26.0	74.0	1.80	3.091	1.00
	30대	500	21.6	78.4	2.42		10.00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19.0	81.0	2.09	.063	1.00
	일반-취업	364	15.7	84.3	2.17		10.00
	활동가	200	49.5	50.5	2.01		12.0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12.4	87.6	1.72	.369	1.00
	대재/휴학/유예	292	24.3	75.7	1.94		10.00
	대졸 이상	554	26.9	73.1	2.19		30.00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23.2	76.8	2.37	.567	1.00
	300-500만원	390	22.6	77.4	1.94		10.00
	500만원 이상	319	26.0	74.0	1.97		12.00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25.4	74.6	2.16	.546	1.00
	부모이전소득	320	20.3	79.7	1.87		10.00

□ 지역축제 참여

- 지역축제 참여율은 41.7%였으며, 참여자의 평균 참여 횟수는 2.97회였음
- 20대의 참여 비율은 30대에 비해 근소하게 더 높았음
- 직업별로는 활동가의 참여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횟수도 높았음
- 학력별로는 대재 집단과 대졸 이상 집단의 참여율이 40%대인 반면, 고졸 이하 집단의 참여율은 20%대로 낮았으며, 참여 횟수는 학력이 증가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 집단의 참여율은 다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근로소득 집단의 참여율은 부모이전소득 집단에 비해 높았음

【표 32】 대중문화 이벤트_지역축제 참여 : 분산분석 (단위: 명, %, 회)

구분	사례 수	참여 여부		참여 횟수			
		참여	미참여	평균	F	최솟값	최댓값
전체	1,007	41.7	58.3	2.97	-	1.00	20.00
연령별	20대	507	44.4	55.6	2.92	.095	1.00
	30대	500	39.0	61.0	3.02		15.00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35.7	64.3	2.13	37.089***	1.00
	일반-취업	364	28.6	71.4	1.91		10.00
	활동가	200	79.0	21.0	4.47		20.0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25.5	74.5	2.05	5.859**	1.00
	대재/휴학/유예	292	45.2	54.8	2.48		20.00
	대졸 이상	554	44.6	55.4	3.38		20.00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40.9	59.1	3.30	1.542	1.00
	300-500만원	390	39.7	60.3	2.66		20.00
	500만원 이상	319	44.8	55.2	3.03		15.00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44.4	55.6	3.23	6.049*	1.00
	부모이전소득	320	36.9	63.1	2.42		20.00

* $p < 0.05$, ** $p < 0.01$, *** $p < 0.001$

3) 예술 향유

□ 문학행사

- 문학행사 참여율은 12.0%였으며, 참여자의 평균 참여 횟수는 1.87회였음
- 20대의 참여율은 30대에 비해 근소하게 더 높았음
- 활동가의 참여율은 20%를 넘는 반면, 다른 직업별 집단의 참여율은 10% 이하였음
-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 집단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으며, 500만원 이상, 300-500만원 집단 순이었음
- 근로소득 집단의 참여율은 부모이전소득 집단에 비해 약 2배가량 더 높게 나타남

【표 33】 예술 향유_문학행사 : 분산분석 (단위: 명, %, 회)

구분	사례 수	참여 여부		참여 횟수			
		참여	미참여	평균	F	최솟값	최댓값
전체	1,007	12.0	88.0	1.87	-	1.00	10.00
연령별	20대	507	13.2	86.8	1.96	.495	1.00
	30대	500	10.8	89.2	1.77		6.00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9.7	90.3	1.51	1.967	1.00
	일반-취업	364	7.7	92.3	1.85		5.00
	활동가	200	25.0	75.0	2.15		10.0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3.7	96.3	1.17	1.160	1.00
	대재/휴학/유예	292	11.3	88.7	1.69		5.00
	대졸 이상	554	14.8	85.2	1.99		10.00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13.1	86.9	1.81	.347	1.00
	300-500만원	390	11.3	88.7	2.03		10.00
	500만원 이상	319	11.9	88.1	1.76		5.00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14.6	85.4	1.93	.591	1.00
	부모이전소득	320	7.5	92.5	1.65		4.00

□ 전시회 관람

- 전시회 관람 참여율은 27.7%였으며, 참여자의 평균 참여 횟수는 2.12회였음
- 20대는 30대에 비해 참여율이 더 높았으며, 평균 참여 횟수도 더 높게 나타남
- 활동가의 절반 이상은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어서 일반-미취업, 일반-취업 집단 순이었으며, 참여 횟수의 차이도 활동가, 일반-미취업, 일반-취업 집단 순으로 낮아짐
- 학력별로는 대재 집단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으며, 대졸 이상, 고졸 이하 집단 순이었음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34】 예술 향유_전시회 관람 : 분산분석 (단위: 명, %, 회)

구분	사례 수	참여 여부		참여 횟수			
		참여	미참여	평균	F	최솟값	최댓값
전체	1,007	27.7	72.3	2.12	-	1.00	12.00
연령별	20대	507	31.2	68.8	2.32	4.660*	1.00
	30대	500	24.2	75.8	1.87		12.00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22.3	77.7	2.09	7.067**	1.00
	일반-취업	364	17.3	82.7	1.48		4.00
	활동가	200	58.5	41.5	2.50		12.0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17.4	82.6	1.77	.632	1.00
	대재/휴학/유예	292	32.2	67.8	2.17		10.00
	대졸 이상	554	28.3	71.7	2.16		12.00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25.8	74.2	2.22	.440	1.00
	300-500만원	390	28.2	71.8	2.00		10.00
	500만원 이상	319	28.8	71.2	2.19		12.00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28.3	71.7	2.04	1.830	1.00
	부모이전소득	320	27.2	72.8	2.35		10.00

* $p < 0.05$, ** $p < 0.01$

□ 음악 공연 관람

- 음악 공연 관람 참여율은 18.9%였으며, 참여자의 평균 참여 횟수는 2.81회였음
 - 20대의 참여율은 30대에 비해 근소하게 높았음
 - 직업별 참여율은 활동가, 일반-미취업, 일반-취업 집단 순이었음
 - 대재 집단과 대졸 이상 집단의 참여율은 20%대인 반면, 고졸 이하 집단은 9%의 참여율을 보임
 -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집단의 참여율은 다른 집단보다 높았음
 - 근로소득 집단의 참여율은 부모이전소득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5】 예술 향유_음악 공연 관람 : 분산분석 (단위: 명, %, 회)

구분	사례 수	참여 여부		참여 횟수			
		참여	미참여	평균	F	최솟값	최댓값
전체	1,007	18.9	81.1	2.81	-	1.00	100.00
연령별	20대	507	19.9	80.1	3.31	.901	1.00
	30대	500	17.8	82.2	2.22		12.00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12.4	87.6	1.62	1.688	1.00
	일반-취업	364	10.2	89.8	1.91		8.00
	활동가	200	49.0	51.0	3.82		100.0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9.3	90.7	1.46	.881	1.00
	대재/휴학/유예	292	21.9	78.1	2.03		8.00
	대졸 이상	554	20.0	80.0	3.45		100.00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18.5	81.5	2.31	.867	1.00
	300-500만원	390	17.7	82.3	2.21		12.00
	500만원 이상	319	20.7	79.3	3.84		100.00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20.7	79.3	2.35	.260	1.00
	부모이전소득	320	14.4	85.6	2.16		12.00

□ 전통예술 공연 관람

- 전통예술 공연 관람 참여율은 11.4%였으며, 참여자의 평균 참여 횟수는 3회였음
 - 30대의 참여율은 20대에 비해 근소하게 높았음
 - 직업별 참여율은 활동가, 일반-미취업, 일반-취업 순이었으며, 활동가의 평균 참여 횟수가 가장 높았음
 - 학력별로는 대재 집단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대졸 이상, 고졸 이하 집단 순이었음
 - 가구소득별 참여율은 5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집단 순이었음
 - 근로소득 집단은 부모이전소득 집단에 비해 참여율이 근소하게 더 높았음

【표 36】 예술 향유_전통예술 공연 관람 : 분산분석 (단위: 명, %, 회)

구분	사례 수	참여 여부		참여 횟수			
		참여	미참여	평균	F	최솟값	최댓값
전체	1,007	11.4	88.6	3.00	-	1.00	30.00
연령별	20대	507	10.8	89.2	2.92	.022	1.00
	30대	500	12.0	88.0	3.07		30.00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9.0	91.0	1.78	3.639*	1.00
	일반-취업	364	4.9	95.1	1.56		4.00
	활동가	200	28.5	71.5	4.35		30.0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5.0	95.0	1.75	.249	1.00
	대재/휴학/유예	292	14.0	86.0	3.08		30.00
	대졸 이상	554	11.9	88.1	3.11		30.00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11.4	88.6	3.28	.067	1.00
	300-500만원	390	10.8	89.2	2.89		30.00
	500만원 이상	319	12.2	87.8	2.86		30.00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12.1	87.9	2.42	3.446	1.00
	부모이전소득	320	10.6	89.4	4.47		30.00

* $p < 0.05$

□ 연극 및 뮤지컬 관람

- 연극 및 뮤지컬 관람 참여율은 24.2%였으며, 참여자의 평균 참여 횟수는 2.06회였음
- 20대의 참여율은 30대에 비해 근소하게 더 높았음
- 활동가는 절반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일반-미취업, 일반-취업 집단 순이었고, 참여자의 평균 참여 횟수는 활동가가 가장 높았음
- 학력별로는 대재, 대졸 이상 집단의 참여율이 26%가량 인 반면, 고졸 이하 집단은 그보다 절반 이상 낮은 11%대를 보임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게 나타남
- 근로소득 집단의 참여율은 부모이전소득 집단에 비해 높았음

【표 37】 예술 향유_연극 및 뮤지컬 관람 : 분산분석 (단위: 명, %, 회)

구분	사례 수	참여 여부		참여 횟수			
		참여	미참여	평균	F	최솟값	최댓값
전체	1,007	24.2	75.8	2.06	-	1.00	10.00
연령별	20대	507	25.8	74.2	2.12	.376	1.00
	30대	500	22.6	77.4	1.99		10.00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17.6	82.4	1.81	3.681*	1.00
	일반-취업	364	16.2	83.8	1.80		7.00
	활동가	200	53.5	46.5	2.36		6.0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11.8	88.2	1.94	.099	1.00
	대재/휴학/유예	292	26.7	73.3	2.11		5.00
	대졸 이상	554	26.5	73.5	2.04		10.00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21.5	78.5	2.08	.053	1.00
	300-500만원	390	23.6	76.4	2.01		7.00
	500만원 이상	319	27.6	72.4	2.08		10.00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26.2	73.8	2.10	.046	1.00
	부모이전소득	320	21.6	78.4	2.05		10.00

* $p < 0.05$

□ 무용 관람

- 무용관람 참여율은 6.9%였으며, 참여자의 평균 참여 횟수는 2회였음
- 20대의 참여율은 30대에 비해 근소하게 더 높았음
- 직업별로는 활동가, 일반-미취업, 일반-취업 순으로 나타남
- 대재 집단의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어서 대졸 이상, 고졸 이하 순이었음

【표 38】 예술 향유_무용 관람 : 분산분석 (단위: 명, %, 회)

구분	사례 수	참여 여부		참여 횟수			
		참여	미참여	평균	F	최솟값	최댓값
전체	1,007	6.9	93.1	2.00	-	1.00	10.00
연령별	20대	507	9.1	90.9	2.00	.000	1.00
	30대	500	4.6	95.4	2.00		6.00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5.6	94.4	2.15	.534	1.00
	일반-취업	364	1.6	98.4	2.50		6.00
	활동가	200	19.0	81.0	1.83		10.0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2.5	97.5	1.00	.744	1.00
	대재/휴학/유예	292	9.9	90.1	2.19		6.00
	대졸 이상	554	6.5	93.5	1.94		10.00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6.7	93.3	1.83	.641	1.00
	300-500만원	390	6.7	93.3	1.83		3.00
	500만원 이상	319	7.2	92.8	2.33		6.00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7.1	92.9	1.86	.976	1.00
	부모이전소득	320	7.2	92.8	2.30		10.00

4) 문화예술 창작

□ 예술 평론 및 비평 글쓰기

- 예술 평론 및 비평 글쓰기의 참여율은 8.3%였으며, 참여자의 평균 참여 횟수는 3.11회였음
 - 20대의 참여율은 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직업별로는 활동가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일반-미취업, 일반-취업 집단 순이었음
 - 학력별 참여율은 대재, 대졸 이상, 고졸 이하 집단 순이었으며, 대재 집단의 참여 횟수는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참여율은 근소하게 높아짐

【표 39】 문화기획과 창작_예술 평론 및 비평 글쓰기 : 분산분석 (단위: 명, %, 회)

구분	사례 수	참여 여부		참여 횟수			
		참여	미참여	평균	F	최솟값	최댓값
전체	1,007	8.3	91.7	3.11	-	1.00	20.00
연령별	20대	507	10.5	89.5	1.172	1.00	20.00
	30대	500	6.2	93.8		1.00	10.00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7.7	92.3	2.220	1.00	10.00
	일반-취업	364	2.2	97.8		1.00	5.00
	활동가	200	21.0	79.0		1.00	20.0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3.7	96.3	7.162**	1.00	5.00
	대재/휴학/유예	292	12.3	87.7		1.00	20.00
	대졸 이상	554	7.6	92.4		1.00	6.00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8.7	91.3	.008	1.00	20.00
	300-500만원	390	8.5	91.5		1.00	10.00
	500만원 이상	319	7.8	92.2		1.00	15.00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8.8	91.2	2.772	1.00	20.00
	부모이전소득	320	7.5	92.5		1.00	15.00

**p<0.01

□ 예술 창작

- 예술 창작의 참여율은 12.6%였으며, 참여자의 평균 참여 횟수는 7.14회였음
 - 20대의 참여율은 30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 참여율은 활동가, 일반-미취업, 일반-취업 집단 순이었으며, 참여 횟수도 동일한 경향을 보임
 - 대재, 대졸 이상 집단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었으나, 고졸 이하 집단의 참여율은 4%대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참여율이 높았음
 - 근로소득 집단의 예술 창작 참여율은 부모이전소득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40】 문화기획과 창작_예술 창작 : 분산분석 (단위: 명, %, 회)

구분	사례 수	참여 여부		참여 횟수			
		참여	미참여	평균	F	최솟값	최댓값
전체	1,007	12.6	87.4	7.14		1.00	100.00
연령별	20대	507	15.4	84.6	.870	1.00	50.00
	30대	500	9.8	90.2		1.00	100.00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7.2	92.8	3.749*	1.00	24.00
	일반-취업	364	4.4	95.6		1.00	6.00
	활동가	200	39.5	60.5		1.00	100.0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4.3	95.7	.376	1.00	12.00
	대재/휴학/유예	292	16.8	83.2		1.00	40.00
	대졸 이상	554	12.8	87.2		1.00	100.00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11.4	88.6	.777	1.00	24.00
	300-500만원	390	11.3	88.7		1.00	50.00
	500만원 이상	319	15.4	84.6		1.00	100.00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14.3	85.7	1.245	1.00	50.00
	부모이전소득	320	9.7	90.3		1.00	100.00

*p<0.05

□ 문화 기획

- 문화 기획 참여율은 16.0%였으며, 참여자의 평균 참여 횟수는 2.07회였음
- 직업별 참여율은 활동가, 일반-취업, 일반-미취업 순이었으며, 참여자의 참여 횟수는 활동가, 일반-미취업, 일반-취업 순이었음
- 학력이 높을수록 문화 기획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짐
- 가구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집단 순이었음
- 근로소득 집단의 참여율은 부모이전소득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 문화기획과 창작_문화 기획 : 분산분석 (단위: 명, %, 회)

구분	사례 수	참여 여부		참여 횟수			
		참여	미참여	평균	F	최솟값	최댓값
전체	1,007	16.0	84.0	2.07	-	1.00	20.00
연령별	20대	507	15.6	84.4	2.17	.274	1.00
	30대	500	16.4	83.6	1.97		10.00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11.7	88.3	1.66	10.236**	1.00
	일반-취업	364	13.7	86.3	1.24		5.00
	활동가	200	29.5	70.5	3.09		20.0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11.2	88.8	1.00	2.167	1.00
	대재/휴학/유예	292	15.4	84.6	2.00		20.00
	대졸 이상	554	17.7	82.3	2.29		10.00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15.4	84.6	2.42	1.079	1.00
	300-500만원	390	14.9	85.1	2.11		10.00
	500만원 이상	319	17.9	82.1	1.74		10.00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19.0	81.0	2.04	.344	1.00
	부모이전소득	320	10.3	89.7	2.32		20.00

*** $p < 0.001$

5) 문화실천의 만족도

□ 문화실천 만족도_일상문화활동

- 청년들의 일상문화활동(온라인 문화향유, 카페 맛집 탐방 등)의 만족도는 3.36점(5점 만점)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응답 비율은 보통이 48.4%로 가장 높았고, 만족 42.5%, 불만족 9.1% 순이었음
- 연령별로는 20대의 만족도가 30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활동가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일반-미취업, 일반-취업 순이었음
-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 집단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음
- 가구소득별, 소득유형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42】 일상문화활동 만족도 : 분산분석 (단위: 명, %, 회)

구분	사례 수	활동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불만족	보통	만족
전체	1,007	3.36	-	9.1	48.4	42.5
연령별	20대	507	3.46	14.152***	6.5	46.0
	30대	500	3.27		11.8	37.4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3.35	15.601***	9.0	40.2
	일반-취업	364	3.24		8.8	33.0
	활동가	200	3.62		10.0	65.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3.26	7.958***	8.7	34.2
	대재/휴학/유예	292	3.51		5.1	50.7
	대졸 이상	554	3.32		11.4	40.6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3.37	2.692	10.1	42.3
	300-500만원	390	3.30		12.1	40.3
	500만원 이상	319	3.44		4.7	45.5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3.36	.143	9.1	41.8
	부모이전소득	320	3.38		9.4	45.0

*** $p < 0.001$

□ 문화실천 만족도_대중문화 이벤트

- 청년들의 대중문화 이벤트 참여(영화 관람, 대중가요 콘서트, 지역축제 참여 등)의 만족도는 3.25점(5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 응답 비율은 보통이 절반가량인 50.3%, 만족 35.7%, 불만족 13.9% 순이었음
- 직업별로는 활동가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일반-미취업, 일반-취업 순이었음
-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 집단의 만족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음
- 연령별, 가구소득별, 소득유형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43】 대중문화 이벤트 참여 만족도 : 분산분석 (단위:명%회)

구분		사례수	활동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불만족	보통	만족
전체		1,007	3.25	-	13.9	50.3	35.7
연령별	20대	507	3.28	1.161	13.0	50.7	36.3
	30대	500	3.22		14.8	50.0	35.2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3.24	8.357***	14.0	51.0	35.0
	일반-취업	364	3.16		14.8	56.0	29.1
	활동가	200	3.44		12.0	38.5	49.5
학력별	고졸 이하	161	3.21	3.940*	13.0	52.8	34.2
	대재/휴학/유예	292	3.36		14.4	42.5	43.2
	대졸 이상	554	3.21		13.9	53.8	32.3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3.21	1.757	15.8	50.7	33.6
	300-500만원	390	3.22		16.2	47.7	36.2
	500만원 이상	319	3.32		9.4	53.3	37.3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3.26	.146	13.0	51.0	35.9
	부모이전소득	320	3.24		15.0	48.8	36.3

* $p<0.05$, *** $p<0.001$

□ 문화실천 만족도_예술 향유

- 청년들의 예술 향유(전시회 관람, 음악 공연, 연극 및 뮤지컬 관람 등)의 만족도는 3.17점(5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 응답 비율은 보통이 절반 이상인 52.5%였으며, 만족 31.5%, 불만족 16.0% 순이었음
- 직업별로는 활동가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대재 집단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음
- 연령별, 가구소득별, 소득유형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44】 예술장르 향유 만족도 : 분산분석 (단위:명%회)

구분		사례수	활동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불만족	보통	만족
전체		1,007	3.17	-	16.0	52.5	31.5
연령별	20대	507	3.20	1.282	14.4	53.6	32.0
	30대	500	3.14		17.6	51.4	31.0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3.16	5.947**	15.6	54.6	29.8
	일반-취업	364	3.10		15.4	60.2	24.5
	활동가	200	3.34		18.0	34.0	48.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3.17	3.349*	10.6	62.1	27.3
	대재/휴학/유예	292	3.27		14.7	46.9	38.4
	대졸 이상	554	3.12		18.2	52.7	29.1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3.11	2.090	16.4	57.0	26.5
	300-500만원	390	3.16		19.0	48.2	32.8
	500만원 이상	319	3.24		11.9	53.6	34.5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3.17	.218	16.2	52.6	31.2
	부모이전소득	320	3.19		15.9	50.9	33.1

* $p<0.05$, ** $p<0.01$

□ 문화실천 만족도_문화예술 창작

- 청년들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그림, 공예, 악기연주, 문화기획 등)의 만족도는 3.12점(5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 응답 비율은 보통이 절반 이상인 57.0%였으며, 만족 27.3%, 불만족 15.7% 순이었음
- 직업별로는 활동가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 학력별, 가구소득별, 소득유형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45】 문화기획과 창작 활동 만족도 : 분산분석 (단위:명%회)

구분		사례수	활동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불만족	보통	만족
전체		1,007	3.12	-	15.7	57.0	27.3
연령별	20대	507	3.12	.008	15.4	58.2	26.4
	30대	500	3.11		16.0	55.8	28.2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3.07	3.292*	16.5	59.1	24.4
	일반-취업	364	3.10		14.6	60.7	24.7
	활동가	200	3.24		16.0	45.5	38.5
학력별	고졸 이하	161	3.17	.627	9.3	64.0	26.7
	대재/휴학/유예	292	3.09		19.5	52.4	28.1
	대졸 이상	554	3.11		15.5	57.4	27.1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3.05	2.474	17.8	59.4	22.8
	300-500만원	390	3.11		17.9	53.8	28.2
	500만원 이상	319	3.19		11.0	58.6	30.4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3.14	1.457	15.1	56.5	28.4
	부모이전소득	320	3.07		17.5	56.9	25.6

* $p<0.05$, ** $p<0.01$

6) 소결

(1) 청년의 문화적 실천의 다양성

□ 청년들의 문화적 실천의 위계 혹은 수준별 구분이 존재

- 일상문화활동에서는 청년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차이가 별로 드러나지 않음. 참여율 자체가 매우 높고, 활동가 집단만이 예외적으로 더 높은 비율을 보임
- 하지만 대중문화 이벤트, 예술 향유, 그리고 문화예술 창작으로 갈수록 문화 실천의 위계성과 집단별 차이가 명확해짐
- 이것은 여러 가지 이론적·현실적 함의를 가짐
 - 우선, 문화적 구별과 수준론에 대한 논의들, 즉 Bourdieu나 Gans 등의 논의처럼 계급별·집단별 문화 자본과 향유의 차이가 드러나는 결과들로 해석될 수 있음
 - 동시에, 문화적 실천은 일정한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결과로도 해석됨. 즉 일상문화활동이나 대중문화 이벤트는 학습이나 경험, 경제적 투자 및 시간적 투자 등을 거의 요구하지 않은 채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대상인 반면, 예술 향유나 문화예술 창작은 일정한 수준의 예술적 취향과 능력, 이를 습득하기 위한 경제적·문화적 투자 등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음
 - 또한 4유형의 문화적 실천은 각각이 서로 다른 문화적 장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됨. 특히 일상문화활동은 다른 3유형의 문화적 실천과 뚜렷이 구분되는 장을 스스로 구성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대중문화 이벤트·예술 향유·문화예술 창작은 위계적 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추론됨

○ 집단별 문화적 실천의 차이가 매우 두드러지며, 이미 높은 수준의 문화적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문화 활동가 집단을 제외하면,

- 가장 높은 욕구와 실천을 보이고 있는 집단은 20대 미취업 대학생, 그 중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가진 집단임
- 반대로 가장 낮은 관심과 실천을 보이는 집단은 30대 취업자, 그 중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집단임

□ 문화적 실천의 과도함과 희소함

○ 문화실천 유형별로 참여율은 매우 큰 격차를 보임

- 일상문화활동은 1년간 참여율이 70% 이상인 반면, 대중문화 이벤트는 (영화를 제외하면) 20~40% 정도에 참여에 그치고 있음
- 예술 향유는 참여율이 가장 높은 장르가 전시회로 27.7%, 가장 낮은 장르는 무용관람으로 6.9%임. 활동가 집단을 제외한 일반인의 참여율은 가장 낮은 무용은 3.8%, 가장 높은 장르는 20.1%로 전체 평균보다 더 낮아짐
- 문화예술 창작 경험은 8.3%에서 16.0%이지만, 이중 활동가 집단을 제외한 일반인의 참여 경험은 2.7%에서 12.6%로 현저히 낮아짐

○ 이렇게 문화실천 유형별로 현저히 차이나는 참여경험과 횟수는 문화 향유의 구별 모델과 폭넓음 모델이 모두 적용된다는 사실을 의미함

- 문화 향유의 수준을 높일 것인가, 문화 향유의 유형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폭넓음(Omivore)을 지향할 것인가 등을 정책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문화향유 수준의 제고는 긴 시간의 교육·훈련을 필요로 함

(2) 문화적 실천 유형간의 관계

□ 문화예술 향유 활동 유형간의 상관성

○ 청년문화의 내용이 일상문화활동, 대중문화 이벤트, 예술 향유, 그리고 문화예술 창작 등으로 구분된다면, 이들 문화적 내용 간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이것은 문화 향유의 확대와 청년의 문화적 삶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문화적 내용의 위상과 역할을 판단하기 위함임

○ 일상문화활동과 다른 문화 실천과의 상관성

- 온라인 문화향유 활동이 높을수록 예술평론 및 비평 글쓰기와 높은 상관성이 있음. 글쓰기가 주로 온라인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카페 및 맛집 탐방은 대중가요 콘서트 참여와 의미 있는 관련이 있음. 하지만 다른 예술 장르 향유나 창작 등과는 관련이 없음. 이것은 '먹는 것, 마시는 것과 보고 즐기는 것'이 하나의 의미 있는 문화적 활동임을 보여주지만, 예술장르 향유나 예술창작과는 다른 종류의 문화적 실천이라는 사실을 의미함
- 요가·헬스 등의 운동은 대중문화 이벤트 행위와는 오히려 마이너스의 관계를 보임. 운동 참여율이 높을수록 영화 관람이나 지역축제 참여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또 음악공연 참여나 전통예술공연 참여는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지만, 문화기획 참여와는 부의 관계가 있음

○ 대중문화 이벤트 참여와 다른 문화 실천과의 상관성

- 영화 관람은 연극 및 뮤지컬 관람과 상관성이 있지만 다른 문화예술 향유 및 창작과는 관련이 없음. 영화 관람은 매우 보편화된 대중문화로서 향유의 차이가 다른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대중가요 콘서트 참여는 전시회 관람, 연극 및 뮤지컬 관람과 높은 상관성이 있음. 대중문화일지라도 콘서트 참여라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문화 향유는 다른 문화예술 향유와의 긍정적인 관련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역축제 참여가 높을수록 전시회 관람이나 음악 공연 관람, 그리고 연극 및 뮤지컬 관람 횟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예술 장르별 향유 정도와 문화예술 창작 참여와의 상관성

- 전시회 관람을 많이 하는 청년들은 예술 창작 참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통예술 참여가 높으면 공연·축제 등의 문화기획 참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6】 일상문화활동과 다른 문화예술 활동과의 상관관계

		온라인 문화 향유	카페 및 맛집 탐방	요가헬스산책등 운동
영화 관람	Pearson 상관	.091*	.077	-.168**
	유의확률 (양측)	.025	.050	.000
	N	615	648	771
대중가요 콘서트	Pearson 상관	.066	.214**	-.018
	유의확률 (양측)	.352	.002	.786
	N	199	209	223
지역 축제 참여	Pearson 상관	.003	.076	-.192**
	유의확률 (양측)	.963	.155	.000
	N	338	353	396
문학행사	Pearson 상관	.034	.040	-.100
	유의확률 (양측)	.735	.703	.303
	N	100	95	109
전시회관람	Pearson 상관	.021	.127	.021
	유의확률 (양측)	.745	.050	.732
	N	234	239	260
음악 공연	Pearson 상관	-.037	.054	.158*
	유의확률 (양측)	.644	.488	.036
	N	161	168	177
전통예술 공연	Pearson 상관	.025	-.008	.208*
	유의확률 (양측)	.815	.937	.033
	N	93	99	106
연극 및 뮤지컬	Pearson 상관	.030	.125	-.054
	유의확률 (양측)	.661	.072	.417
	N	209	207	226
무용	Pearson 상관	-.009	-.023	.103
	유의확률 (양측)	.944	.869	.425
	N	57	56	62
예술 평론 및 비평 글쓰기	Pearson 상관	.444**	.046	-.025
	유의확률 (양측)	.000	.701	.827
	N	73	71	79
예술 창작	Pearson 상관	.112	-.075	-.135
	유의확률 (양측)	.238	.428	.142
	N	114	115	119
문화 기획	Pearson 상관	.067	-.020	-.192*
	유의확률 (양측)	.485	.828	.018
	N	111	125	152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양측)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양측)

【표 47】 대중문화 이벤트 참여와 다른 문화예술 활동과의 상관관계

		영화 관람	대중가요 콘서트	지역 축제 참여
문학행사	Pearson 상관	.153	.472**	.198
	유의확률 (양측)	.141	.000	.082
	N	94	62	78
전시회관람	Pearson 상관	.116	.541**	.196**
	유의확률 (양측)	.076	.000	.006
	N	236	121	195
음악 공연	Pearson 상관	-.030	.051	.308**
	유의확률 (양측)	.707	.609	.000
	N	163	102	137
전통예술 공연	Pearson 상관	-.056	.134	.073
	유의확률 (양측)	.588	.310	.507
	N	97	59	86
연극 및 뮤지컬	Pearson 상관	.300**	.383**	.222**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5
	N	208	118	161
무용	Pearson 상관	-.112	-.152	-.093
	유의확률 (양측)	.425	.399	.552
	N	53	33	43
예술 평론 및 비평 글쓰기	Pearson 상관	.022	-.071	-.093
	유의확률 (양측)	.857	.627	.478
	N	70	49	60
예술 창작	Pearson 상관	-.036	.211	-.013
	유의확률 (양측)	.711	.100	.897
	N	106	62	96
문화 기획	Pearson 상관	-.088	.156	.193
	유의확률 (양측)	.309	.266	.059
	N	135	53	97

** 상관계수가 0.01 수준에서 유의(양측)

【표 48】 예술 장르별 향유 정도와 문화예술 창작 참여와의 상관관계

		예술 평론 및 비평 글쓰기	예술 창작	문화 기획
문학행사	Pearson 상관	.057	.139	.160
	유의확률 (양측)	.758	.387	.299
	N	32	41	44
전시회관람	Pearson 상관	.245	.268*	.147
	유의확률 (양측)	.074	.016	.201
	N	54	80	77
음악 공연	Pearson 상관	.189	.060	-.085
	유의확률 (양측)	.232	.604	.542
	N	42	77	54
전통예술 공연	Pearson 상관	.190	.114	.457**
	유의확률 (양측)	.305	.488	.004
	N	31	39	38
연극 및 뮤지컬	Pearson 상관	.116	-.048	.014
	유의확률 (양측)	.471	.684	.919
	N	41	75	58
무용	Pearson 상관	-.101	.032	.040
	유의확률 (양측)	.700	.860	.827
	N	17	32	33

* 상관계수가 0.05 수준에서 유의(양측)

** 상관계수가 0.01 수준에서 유의(양측)

【표 49】 문화실천 유형간 상관관계

		일상문화활동	대중문화 이벤트 참여	예술장르 향유	문화예술 창작
일상문화활동	Pearson 상관	1	.135**	.105**	.056
	유의확률 (양측)		.000	.001	.077
	N	1007	1007	1007	1007
대중문화 이벤트 참여	Pearson 상관	.135**	1	.306**	.155**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N	1007	1007	1007	1007
예술장르 향유	Pearson 상관	.105**	.306**	1	.265**
	유의확률 (양측)	.001	.000		.000
	N	1007	1007	1007	1007
문화예술 창작	Pearson 상관	.056	.155**	.265**	1
	유의확률 (양측)	.077	.000	.000	
	N	1007	1007	1007	1007

** 상관계수가 0.01 수준에서 유의(양측).

□ 청년문화 영역 내의 문화활동 간의 상관성

○ 일상문화활동 내의 개별 활동 간의 상관성

- 온라인 문화활동이 활발한 사람은 카페·맛집 탐방도 더 많이 함

○ 대중문화 이벤트 참여 개별 활동 간의 상관성

- 영화관람 횟수가 많은 사람은 지역축제 참여 횟수도 많음
- 대중가요 콘서트 참여가 많은 사람은 지역축제 참여 횟수도 많음

○ 문화예술 장르 향유 개별 활동 간의 상관성

- 문학행사 참여 횟수가 높을수록 전시회 관람, 음악 공연 관람, 전통예술 공연 관람, 연극 및 뮤지컬 관람 횟수가 높아지는 높은 상관성을 보임
- 전시회 관람 역시 음악공연 관람, 전통예술 공연 관람, 연극 및 뮤지컬 관람과 높은 상관성을 보임
- 음악 공연은 전통예술 공연 관람, 연극 및 뮤지컬 관람과 정의 관계를 가짐
- 전통예술 공연 관람은 무용 관람과 높은 상관성이 있음

○ 문화예술 창작 개별 활동 간의 상관성

- 예술창작 활동 간에는 높은 상관성이 존재함. 예술 평론 및 비평 쓰기 참여자는 예술창작이나 문화기획에 참여하는 횟수도 높음
- 예술장작 참여 횟수가 높으면 또한 문화기획 참여 횟수도 높음

(3) 시사점

- 문화활동 유형간의 관계에서 볼 때, 일상문화활동은 다른 활동들, 즉 대중문화 이벤트 참여, 예술장르 향유, 그리고 예술 창작 등의 활동과 의미 있는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음

- 반면 대중문화 이벤트, 예술 장르 향유, 그리고 문화예술 창작 간에는 일정한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음

- 이것은 문화적 활동의 '촉발'과 '승화'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음. 즉 대중문화 이벤트 참여의 증가는 예술 장르들에 대한 향유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예술 향유는 문화예술 창작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함

- 하지만 일상문화활동은 이러한 촉발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질적으로 구분되는 또 다른 문화적 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문화활동 유형들 내에서 존재하는 관련성도 유사한 함의를 가짐

- 일상문화활동은 다른 일상문화활동과의 상관성이 별로 발견되지 않음. 이것은 일상문화활동이 서로 독립적인 성질의 활동임을 의미하며, 한 활동이 다른 활동을 촉발하는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의미함

- ▶ 대중문화 이벤트에서는 약한 상관성이 발견됨. 이것은 대중문화 이벤트 참여가 다른 이벤트 참여를 더 높이는 효과가 어느 정도 존재함을 의미함

- ▶ 예술 장르별 향유에서는 매우 뚜렷한 상관관계가 발견됨. 한 장르의 예술을 향유하는 이들은 다른 예술 장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줌

- ▶ 예술창작 활동 역시 서로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 한 장르의 창작활동 참여는 다른 형태의 창작 참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줌

2. 청년의 여가와 생활문화

1) 여가 시간

□ 평일 여가시간

○ 광주 청년들의 평일 여가시간은 3.33시간이었으며, 최소 0시간, 최대 16시간이었음

- 20대의 평일 평균 여가시간은 30대에 비해 약 0.42시간 더 많음
- 직업별 평일 여가시간은 활동가, 일반-미취업, 일반-취업 집단 순이었음
- 학력별로는 대재 집단의 여가 시간이 가장 많았으며, 대졸 이상, 고졸 이하 집단 순이었음
- 가구소득별로는 300-500만원 집단의 여가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유형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50】 평일 여가시간 : 분산분석 (단위:명시간)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F
전체	1,007	3.33	2.11	0.00	16.00	-
연령별						9.926**
20대	507	3.54	2.18	0.00	16.00	
30대	500	3.12	2.01	0.00	12.00	
직업별						19.854***
일반-미취업	443	3.33	2.10	0.00	12.00	
일반-취업	364	2.92	2.01	0.00	16.00	
활동가	200	4.07	2.11	.50	11.00	
학력별						9.771***
고졸 이하	161	2.92	1.94	0.00	12.00	
대재/휴학/유예	292	3.75	2.23	0.00	16.00	
대졸 이상	554	3.22	2.05	0.00	12.00	
가구 소득별						3.314*
300만원 미만	298	3.36	2.25	0.00	16.00	
300-500만원	390	3.50	2.05	0.00	12.00	
500만원 이상	319	3.09	2.02	0.00	10.00	
소득 유형별						1.039
근로소득	637	3.32	2.17	0.00	16.00	
부모이전소득	320	3.47	2.04	0.00	12.00	

* $p<0.05$, ** $p<0.01$, *** $p<0.001$

□ 주말 여가시간

○ 광주 청년들의 주말 여가시간은 평균 6.47시간이었으며, 최소 1시간, 최대 16시간이었음

- 직업별로는 활동가의 여가 시간이 다른 집단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는 대재 집단의 여가 시간이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의 여가 시간이 가장 적었음
- 연령별, 가구소득별, 소득유형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51】 주말 여가시간 : 분산분석 (단위:명시간)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F
전체	1,007	6.47	3.26	1.00	16.00	-
연령별						1.984
20대	507	6.61	3.35	1.00	16.00	
30대	500	6.32	3.17	1.00	16.00	
직업별						21.771***
일반-미취업	443	6.21	3.08	1.00	15.00	
일반-취업	364	6.05	2.92	1.00	15.00	
활동가	200	7.80	3.86	1.00	16.00	
학력별						5.014**
고졸 이하	161	5.93	2.89	1.00	14.00	
대재/휴학/유예	292	6.90	3.28	1.00	16.00	
대졸 이상	554	6.40	3.33	1.00	16.00	
가구 소득별						1.478
300만원 미만	298	6.32	3.31	1.00	16.00	
300-500만원	390	6.69	3.22	1.00	16.00	
500만원 이상	319	6.34	3.27	1.00	16.00	
소득 유형별						.205
근로소득	637	6.60	3.34	1.00	16.00	
부모이전소득	320	6.50	3.11	1.00	16.00	

** $p<0.01$, *** $p<0.001$

2) 여가 활동

□ 평일 여가 활동

- 청년들이 평일에 가장 많이 하는 여가 활동은 절반 이상인 54.7%가 응답한 ‘TV 또는 비디오 시청’이었으며, 이어서 ‘집에서 휴식’ 11.7%,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10.1% 순이었음
- 청년들의 70% 이상이 평일에는 비활동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 직업, 학력, 소득 등에 따라 구분된 집단별로는 상위 3개의 여가활동의 비율이 근소하게 다른 형태를 보였으며, 전체적인 비활동적 여가활동의 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남

【표 52】 평일 여가활동 1순위(1-7)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TV 또는 비디오 시청	집에서 휴식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운동기 관람	운동	문화예술품 관람	독서/음악 감상
전체	1,007	54.7	11.7	10.1	4.1	4.0	3.1	2.8
연령별								
20대	507	46.9	14.6	12.8	3.7	3.6	3.9	3.7
30대	500	62.6	8.8	7.4	4.4	4.4	2.2	1.8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58.9	9.3	12.6	4.3	3.2	2.7	2.0
일반취업	364	63.2	7.7	6.3	3.6	5.2	2.2	2.2
활동가	200	30.0	24.5	11.5	4.5	3.5	5.5	5.5
학력별								
고졸 이하	161	62.7	9.3	6.8	3.1	3.7	0.6	1.9
대재/휴학/유예	292	47.3	12.0	15.8	6.5	2.1	2.7	3.8
대졸 이상	554	56.3	12.3	8.1	3.1	5.1	4.0	2.5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52.7	13.1	7.7	4.0	4.7	3.7	3.0
300-500만원	390	55.9	10.3	11.0	4.9	4.1	3.1	2.6
500만원 이상	319	55.2	12.2	11.3	3.1	3.1	2.5	2.8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56.0	10.8	8.2	4.2	4.6	4.4	3.0
부모이전소득	320	54.4	11.3	13.1	4.1	3.1	0.9	2.8

【표 53】 평일 여가활동 1순위(8-14)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여행, 야외 놀이	사교 모임	자기 계발	생활 취미 활동	쇼핑	창작적 취미 활동	봉사 활동
전체	1,007	2.0	1.9	1.8	1.7	1.2	0.7	0.1
연령별								
20대	507	1.8	3.0	1.8	1.2	1.8	0.6	0.2
30대	500	2.2	0.8	1.8	2.2	0.6	0.8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0.9	0.7	1.8	1.4	1.1	0.5	0.2
일반취업	364	3.0	0.5	2.2	1.6	1.6	0.5	
활동가	200	2.5	7.0	1.0	2.5	0.5	1.5	
학력별								
고졸 이하	161	1.9		1.9	3.1	3.1	0.6	
대재/휴학/유예	292	1.7	4.5	1.7	0.7	1.0	0.3	
대졸 이상	554	2.2	1.1	1.8	1.8	0.7	0.9	0.2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1.7	1.3	2.7	3.4	0.7	0.7	0.3
300-500만원	390	1.8	1.8	1.5	1.0	1.0	0.8	
500만원 이상	319	2.5	2.5	1.3	0.9	1.9	0.6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2.5	1.1	1.6	1.6	1.3	0.6	0.2
부모이전소득	320	0.9	3.1	2.2	1.6	0.9	0.9	

□ 주말 여가 활동

- 청년들이 주말 여가활동은 ‘집에서 휴식’이 21.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평일과 달리 ‘여행, 야외 나들이’가 17.0%, ‘쇼핑’ 9.2% 순으로 야외활동 등의 활동적 여가활동의 비율이 높아짐
- 30대는 20대에 비해 상위 3개 여가활동의 비율이 더 높았음
- 직업을 가진 일반 청년들의 여가활동은 상위 3개에 보다 더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근로소득 집단은 부모이전소득 집단에 비해 상위 3개의 여가활동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표 54】 주말 여가활동 1순위(1-7)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집에서 휴식	여행, 야외 나들이	쇼핑	TV 또는 비디오 시청	문화예술품 관람	사교모임	운동
전체	1,007	21.4	17.0	9.2	8.3	7.7	6.7	6.5
연령별								
20대	507	19.7	14.4	8.5	8.5	9.3	7.5	6.7
30대	500	23.2	19.6	10.0	8.2	6.2	5.8	6.2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21.9	14.7	8.6	8.8	7.2	6.1	7.7
일반취업	364	22.0	19.0	12.4	7.7	7.4	6.6	4.1
활동가	200	19.5	18.5	5.0	8.5	9.5	8.0	8.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21.7	24.8	13.0	8.7	3.1	5.0	2.5
대재/휴학/유예	292	16.8	15.1	9.2	7.9	8.6	7.2	8.2
대졸 이상	554	23.8	15.7	8.1	8.5	8.7	6.9	6.7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25.2	14.8	6.4	9.4	8.7	5.4	7.4
300-500만원	390	20.0	18.7	6.4	9.5	6.9	8.7	5.4
500만원 이상	319	19.7	16.9	15.4	6.0	7.8	5.3	6.9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21.4	17.4	10.0	8.6	8.2	6.6	6.0
부모이전소득	320	20.3	15.6	7.8	8.8	7.2	7.2	7.2

【표 55】 주말 여가활동 1순위(8-14)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독서/음악 감상	자기계발	운동경기 관람	생활취미 활동	창작적 취미 활동	봉사활동
전체	1,007	6.2	4.7	4.5	2.9	2.3	1.9	0.5
연령별								
20대	507	6.5	4.5	5.5	3.6	3.0	2.0	0.2
30대	500	5.8	4.8	3.4	2.2	1.6	1.8	0.8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6.3	4.5	4.3	4.1	3.4	1.6	0.5
일반취업	364	6.9	4.4	4.1	2.5	1.4	0.8	0.5
활동가	200	4.5	5.5	5.5	1.0	1.5	4.5	0.5
학력별								
고졸 이하	161	5.6	1.9	4.3	5.0	1.9	1.2	0.6
대재/휴학/유예	292	5.5	5.5	6.8	2.7	4.1	2.1	
대졸 이상	554	6.7	5.1	3.2	2.3	1.4	2.0	0.7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8.1	6.0	2.3	2.7	1.3	2.0	
300-500만원	390	5.4	5.9	4.4	3.1	3.1	1.8	0.5
500만원 이상	319	5.3	1.9	6.6	2.8	2.2	1.9	0.9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6.3	4.9	4.7	2.2	1.6	1.4	0.5
부모이전소득	320	6.6	3.8	3.8	4.4	3.8	3.1	0.6

□ 평일 희망 여가 활동

- 청년들이 평일에 가장 희망하는 여가 활동은 23.4%가 응답한 ‘TV 또는 비디오 시청’이었으며, 이어서 ‘문화예술관람’ 14.5%, ‘여행, 야외 나들이’ 11.9%, ‘운동’ 9.8% 순이었음
- 20대와 30대의 응답 패턴은 비슷했으나, 30대는 20대에 비해 ‘TV 또는 비디오 시청’을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20대는 ‘문화예술관람’, ‘여행, 야외 나들이’의 응답 비율이 30대보다 높게 나타남
- 일반-미취업, 일반-취업 집단이 가장 희망하는 여가 활동은 ‘TV 또는 비디오 시청’인 반면, 활동가는 ‘문화예술관람’을 가장 희망하였음
- 고졸 이하 집단은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TV 또는 비디오 시청’의 응답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표 56】 평일 희망 여가활동 1순위(1-7)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TV 또는 비디오 시청	문화 예술관람	여행, 야외 나들이	운동	창작적 취미 활동	쇼핑	운동기 관람
전체	1,007	23.4	14.5	11.9	9.8	5.8	5.5	5.2
연령별								
20대	507	19.1	15.2	13.2	7.3	5.3	6.9	5.3
30대	500	27.8	13.8	10.6	12.4	6.2	4.0	5.0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25.3	13.5	12.0	7.9	4.7	5.4	7.4
일반취업	364	31.9	12.4	12.6	10.2	5.2	5.5	4.4
활동가	200	4.0	20.5	10.5	13.5	9.0	5.5	1.5
학력별								
고졸 이하	161	44.1	13.0	7.5	3.7	3.1	7.5	3.7
대제/휴학/유예	292	19.2	14.7	13.4	6.8	4.5	6.8	6.8
대졸 이상	554	19.7	14.8	12.5	13.2	7.2	4.2	4.7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17.1	16.4	13.1	10.7	5.4	6.0	6.4
300-500만원	390	27.4	13.8	9.7	9.7	5.9	5.1	5.1
500만원 이상	319	24.5	13.5	13.5	9.1	6.0	5.3	4.1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24.6	14.0	12.1	9.9	6.3	6.0	4.7
부모이전소득	320	23.8	13.8	10.9	9.1	5.0	4.7	6.6

【표 57】 평일 희망 여가활동 1순위(8-14)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집에서 휴식	자기 계발	생활 취미 활동	독서/음악 감상	봉사 활동	사교 모임	기타
전체	1,007	5.2	5.0	4.8	4.0	2.7	1.2	1.1	.1
연령별									
20대	507	6.3	6.5	5.3	3.6	3.0	1.8	1.0	.2
30대	500	4.0	3.4	4.2	4.4	2.4	.6	1.2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6.3	4.1	3.6	5.0	2.5	1.8	.5	
일반취업	364	2.7	3.3	4.1	3.8	3.0	.8		
활동가	200	7.0	10.0	8.5	2.0	2.5	.5	4.5	.5
학력별									
고졸 이하	161	3.1	4.3	1.9	3.7	1.2	1.2	1.9	
대제/휴학/유예	292	9.2	3.4	5.8	2.4	2.7	2.1	1.7	.3
대졸 이상	554	3.6	6.0	5.1	4.9	3.1	.7	.5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4.0	6.4	5.4	4.4	2.3	1.0	1.3	
300-500만원	390	5.6	4.1	4.1	4.1	3.3	1.0	.5	.3
500만원 이상	319	5.6	4.7	5.0	3.4	2.2	1.6	1.6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4.4	4.2	4.9	3.8	2.7	1.4	.9	.2
부모이전소득	320	7.2	5.9	4.1	4.7	2.2	.6	1.6	

□ 주말 희망 여가 활동

- 청년들이 주말에 가장 희망하는 여가 활동은 44.9%가 응답한 ‘여행, 야외 나들이’였으며, 이어서 ‘문화예술관람’ 11.3%, ‘쇼핑’ 7.1%, ‘TV 또는 비디오 시청’ 6.6% 순이었음
- 20대와 30대 모두 ‘여행, 야외 나들이’를 선호하였으며, 20대에 비해 30대의 선호도가 더 높았음
- 집단 구분에 따라 구체적인 응답 비율은 차이를 보였으나, 희망하는 여가 활동 중 ‘여행, 야외 나들이’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두 번째로 희망하는 여가 활동은 ‘문화예술관람’인 것으로 나타남

【표 58】 주말 희망 여가활동 1순위(1-7)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여행 야외 나들이	문화 예술 관람	쇼핑	TV 또는 비디오 시청	운동	창작적 취미 활동	자기 계발
전체	1,007	44.9	11.3	7.1	6.6	5.1	4.5	4.5
연령별	20대	507	39.1	12.6	8.7	7.9	3.7	4.9
	30대	500	50.8	10.0	5.6	5.2	6.4	4.0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41.5	10.2	9.9	6.5	4.5	4.7
	일반취업	364	54.1	6.3	5.8	8.5	6.3	1.9
	활동가	200	35.5	23.0	3.5	3.0	4.0	8.5
학력별	고졸 이하	161	44.7	5.0	9.3	9.9	5.6	3.1
	대재/휴학/유예	292	38.4	14.7	9.2	8.2	4.5	4.1
	대졸 이상	554	48.4	11.4	5.4	4.7	5.2	5.1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40.9	13.8	5.7	6.7	7.0	3.4
	300-500만원	390	45.1	9.5	7.9	5.9	4.6	5.9
	500만원 이상	319	48.3	11.3	7.5	7.2	3.8	3.8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46.5	10.4	6.3	6.6	4.7	4.9
	부모이전소득	320	43.1	12.5	9.4	6.6	5.3	3.4

【표 59】 주말 희망 여가활동 1순위(8-14)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집에서 휴식	사교 모임	생활 취미 활동	운동 기 관람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독서/ 음악 감상	봉사 활동	기타
전체	1,007	4.3	2.6	2.4	2.1	1.9	1.4	1.2	0.3
연령별	20대	507	5.5	1.8	2.8	2.4	2.2	2.0	1.0
	30대	500	3.0	3.4	2.0	1.8	1.6	0.8	1.4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5.2	1.1	3.8	2.7	2.3	1.6	1.1
	일반취업	364	3.0	3.0	1.4	1.9	0.8	1.4	1.4
	활동가	200	4.5	5.0	1.0	1.0	3.0	1.0	1.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5.0	3.1	1.9	3.1	2.5	2.5	1.2
	대재/휴학/유예	292	5.1	1.7	2.7	1.7	2.7	1.0	1.7
	대졸 이상	554	3.6	2.9	2.3	2.0	1.3	1.3	0.9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4.7	4.0	3.0	2.7	2.0	2.0	0.7
	300-500만원	390	4.4	1.3	2.8	2.6	2.3	1.3	1.3
	500만원 이상	319	3.8	2.8	1.3	0.9	1.3	0.9	1.6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3.5	3.6	1.9	2.4	1.4	1.1	1.4
	부모이전소득	320	5.3	.9	3.4	0.9	3.1	1.9	0.9

3) 온라인 여가 활동

□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글 보기·댓글달기

- 청년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글 보기 또는 댓글달기 활동 점수는 3.0점(5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 응답 비율은 보통 33.9%, 자주함 33.5%, 하지 않음 32.7% 순이었음
 - 연령별로는 20대의 활동 점수가 30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활동가의 활동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일반-미취업, 일반-취업 순이었음
 -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집단의 활동 점수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졸 이상, 고졸 이하 순으로 나타남
 - 부모이전소득 집단은 근로소득 집단에 비해 활동 점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가구소득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60】 온라인 여가 활동_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글 보기/댓글달기 : 분산분석
(단위: 명, 점, %)

구분		사례 수	활동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하지 않음	보통	자주함
전체		1,007	3.00	-	32.7	33.9	33.5
연령별	20대	507	3.15	22.305***	24.3	36.3	39.4
	30대	500	2.84		41.2	31.4	27.4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3.14	32.208***	24.2	38.6	37.2
	일반-취업	364	2.67		46.7	34.6	18.7
	활동가	200	3.28		26.0	22.0	52.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2.57	22.194***	54.0	29.8	16.1
	대재/휴학/유예	292	3.23		24.0	32.2	43.8
	대졸 이상	554	3.00		31.0	35.9	33.0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2.88	2.872	36.9	34.9	28.2
	300-500만원	390	3.03		31.5	34.1	34.4
	500만원 이상	319	3.07		30.1	32.6	37.3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2.92	17.180***	35.6	35.3	29.0
	부모이전소득	320	3.21		24.4	31.3	44.4

*** $p < 0.001$

□ 모바일 게임하기

- 청년들의 모바일 게임하기 활동 점수는 2.89점(5점 만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었음
- 응답 비율은 하지 않음이 38.8%로 가장 높았으며, 자주함 34.1%, 보통 27.1% 순이었음
- 연령별로는 20대의 활동 점수가 30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활동가의 활동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일반-미취업, 일반-취업 순이었음
-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집단의 활동 점수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졸 이상, 고졸 이하 순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별로, 소득유형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61】 온라인 여가 활동_모바일 게임하기 : 분산분석 (단위: 명, 점, %)

구분		사례 수	활동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하지 않음	보통	자주함
전체		1,007	2.89	-	38.8	27.1	34.1
연령별	20대	507	2.99	7.061**	34.3	27.8	37.9
	30대	500	2.79		43.4	26.4	30.2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2.94	3.185*	34.8	28.9	36.3
	일반-취업	364	2.77		44.2	29.9	25.8
	활동가	200	2.99		38.0	18.0	44.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2.69	4.081*	46.0	31.1	23.0
	대재/휴학/유예	292	3.01		34.6	25.7	39.7
	대졸 이상	554	2.88		39.0	26.7	34.3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2.86	.693	40.9	27.5	31.5
	300-500만원	390	2.86		40.0	29.5	30.5
	500만원 이상	319	2.95		35.4	23.8	40.8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2.90	.829	39.6	27.8	32.7
	부모이전소득	320	2.97		34.7	25.6	39.7

* $p<0.05$, ** $p<0.01$

□ 쇼핑하기

- 청년들의 쇼핑하기 활동 점수는 3.38점(5점 만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음
- 응답 비율은 자주함이 46.7%로 가장 높았고, 보통 34.5%, 하지 않음 18.9% 순이었음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쇼핑하기의 활동 점수는 높아져, 300만원 미만 집단과 500만원 이상 집단은 활동점수가 0.42점 차이를 보임
- 연령별, 직업별, 학력별, 소득유형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62】 온라인 여가 활동_쇼핑하기 : 분산분석 (단위: 명, 점, %)

구분		사례 수	활동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하지 않음	보통	자주함
전체		1,007	3.38	-	18.9	34.5	46.7
연령별	20대	507	3.40	.325	18.5	33.7	47.7
	30대	500	3.36		19.2	35.2	45.6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3.36	1.696	21.2	31.4	47.4
	일반-취업	364	3.34		18.7	38.2	43.1
	활동가	200	3.50		14.0	34.5	51.5
학력별	고졸 이하	161	3.32	.554	25.5	30.4	44.1
	대재/휴학/유예	292	3.36		20.9	31.8	47.3
	대졸 이상	554	3.41		15.9	37.0	47.1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3.20	15.225***	24.2	37.2	38.6
	300-500만원	390	3.32		19.7	36.4	43.8
	500만원 이상	319	3.62		12.9	29.5	57.7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3.42	1.884	17.1	35.0	47.9
	부모이전소득	320	3.32		22.5	30.9	46.6

*** $p<0.001$

□ 웹진 및 웹툰 구독

- 청년들의 웹진 및 웹툰 구독 활동 점수는 3.04점(5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음
- 응답 비율은 자주함이 36.2%로 가장 높았고, 하지 않음 34.1%, 보통 29.7% 순이었음
- 20대의 활동 점수는 30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활동가의 활동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일반-미취업, 일반-취업 순이었음
- 학력별로는 대재 집단의 활동 점수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대졸 이상, 고졸 이하 순이었음
- 가구소득별, 소득유형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63】 온라인 여가 활동_웹진 및 웹툰 구독 : 분산분석 (단위 : 명, 점, %)

구분	사례 수	활동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하지 않음	보통	자주함
전체	1,007	3.04	-	34.1	29.7	36.2
연령별	20대	507	53.356***	24.1	31.4	44.6
	30대	500		44.2	28.0	27.8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32.316***	31.6	32.5	35.9
	일반-취업	364		46.4	27.2	26.4
	활동가	200		17.0	28.0	55.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21.287***	53.4	25.5	21.1
	대재/휴학/유예	292		23.6	31.2	45.2
	대졸 이상	554		33.9	30.1	35.9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067	34.6	27.5	37.9
	300-500만원	390		33.3	31.3	35.4
	500만원 이상	319		34.5	29.8	35.7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2.268	34.7	30.1	35.2
	부모이전소득	320		30.3	31.3	38.4

*** $p < 0.001$

□ 유튜브 및 팟캐스트 미디어플랫폼 방송 시청

- 청년들의 유튜브 및 팟캐스트 미디어플랫폼 방송 시청 활동 점수는 3.10점(5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음
- 응답 비율은 자주함이 37.4%로 가장 높았고, 하지 않음 31.4%, 보통 31.2% 순이었음
- 20대의 활동 점수는 30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활동가의 활동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일반-미취업, 일반-취업 순이었음
- 학력별로는 대재 집단의 활동 점수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대졸 이상, 고졸 이하 순이었음
- 부모이전소득 집단은 근로소득 집단에 비해 활동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별에 따른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64】 온라인 여가 활동_미디어플랫폼 방송 시청 : 분산분석 (단위 : 명, 점, %)

구분	사례 수	활동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하지 않음	보통	자주함
전체	1,007	3.10	-	31.4	31.2	37.4
연령별	20대	507	39.969***	23.1	30.8	46.2
	30대	500		39.8	31.6	28.6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32.071***	27.3	33.0	39.7
	일반-취업	364		43.4	32.4	24.2
	활동가	200		18.5	25.0	56.5
학력별	고졸 이하	161	29.346***	47.8	31.7	20.5
	대재/휴학/유예	292		19.5	28.8	51.7
	대졸 이상	554		32.9	32.3	34.8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542	31.2	32.9	35.9
	300-500만원	390		32.1	29.7	38.2
	500만원 이상	319		30.7	31.3	37.9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9.558**	33.3	33.8	33.0
	부모이전소득	320		27.8	26.6	45.6

** $p < 0.01$, *** $p < 0.001$

□ 온라인 콘텐츠 제작·업로드

- 청년들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업로드 하기 활동 점수는 2.21점(5점 만점)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 응답 비율은 하지 않음이 64.0%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 23.4%, 자주함 12.6% 순이었음
- 직업별로는 일반-미취업 집단의 활동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일반-취업, 활동가 순이었음
- 가구소득별로는 300-500만원 집단의 활동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근로소득 집단은 부모이전소득 집단에 비해 활동 점수가 높았음
- 연령별, 학력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65】 온라인 여가 활동_온라인 콘텐츠 제작·업로드 : 분산분석 (단위: 명, 점, %)

구분	사례 수	활동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하지 않음	보통	자주함
전체	1,007	2.21	-	64.0	23.4	12.6
연령별	20대	507	.538	62.7	24.1	13.2
	30대	500		65.2	22.8	12.0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5.089**	59.4	26.6	14.0
	일반-취업	364		64.8	23.6	11.5
	활동가	200		72.5	16.0	11.5
학력별	고졸 이하	161	.308	68.3	24.2	7.5
	대재/휴학/유예	292		61.3	23.6	15.1
	대졸 이상	554		64.1	23.1	12.8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3.970*	67.1	21.5	11.4
	300-500만원	390		57.2	28.2	14.6
	500만원 이상	319		69.3	19.4	11.3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5.223*	62.2	24.2	13.7
	부모이전소득	320		65.3	24.1	10.6

* $p<0.05$, ** $p<0.01$

□ 온라인 문화동호회 활동

- 청년들의 온라인 문화동호회 활동 점수는 2.24점(5점 만점)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 응답 비율은 하지 않음이 63.2%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 24.7%, 자주함 12.1% 순이었음
- 직업별로는 일반-미취업 집단의 활동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일반-취업, 활동가 순이었음
- 가구소득별로는 300-500만원 집단의 활동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 학력별, 소득유형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66】 온라인 여가 활동_온라인 문화동호회 활동 : 분산분석 (단위: 명, 점, %)

구분	사례 수	활동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하지 않음	보통	자주함
전체	1,007	2.24	-	63.2	24.7	12.1
연령별	20대	507	.005	60.9	26.4	12.6
	30대	500		65.4	23.0	11.6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3.575*	60.0	27.1	12.9
	일반-취업	364		64.3	26.1	9.6
	활동가	200		68.0	17.0	15.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1.875	68.3	25.5	6.2
	대재/휴학/유예	292		56.2	28.1	15.8
	대졸 이상	554		65.3	22.7	11.9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4.179*	66.8	22.5	10.7
	300-500만원	390		57.2	28.5	14.4
	500만원 이상	319		67.1	22.3	10.7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628	62.3	25.4	12.2
	부모이전소득	320		64.1	23.4	12.5

* $p<0.05$

□ 온라인 마케터 활동

- 청년들의 온라인 마케터 활동 점수는 2.3점(5점 만점)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 응답 비율은 하지 않음이 61.0%로 가장 높았고, 보통 24.8%, 자주함 14.2% 순이었음
- 직업별로는 일반-미취업 집단의 활동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일반-취업, 활동가 순이었음
- 가구소득별로는 300-500만원 집단의 활동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 학력별, 소득유형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67】 온라인 여가 활동_온라인 마케터 활동 : 분산분석 (단위 : 명, 점, %)

구분		사례 수	활동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하지 않음	보통	자주함
전체		1,007	2.30	-	61.0	24.8	14.2
연령별	20대	507	2.27	.441	59.8	25.2	15.0
	30대	500	2.32		62.2	24.4	13.4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2.36	4.283*	59.4	24.4	16.3
	일반-취업	364	2.32		59.9	28.8	11.3
	활동가	200	2.11		66.5	18.5	15.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2.25	.635	68.3	19.9	11.8
	대재/휴학/유예	292	2.35		56.5	27.4	16.1
	대졸 이상	554	2.28		61.2	24.9	13.9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2.27	5.380**	61.4	23.8	14.8
	300-500만원	390	2.42		55.6	27.7	16.7
	500만원 이상	319	2.17		67.1	22.3	10.7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2.33	1.836	60.0	25.1	14.9
	부모이전소득	320	2.24		62.8	24.4	12.8

* $p<0.05$, ** $p<0.01$

□ 온라인 창업

- 청년들의 온라인 창업 활동 점수는 2.02점(5점 만점)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 응답 비율은 하지 않음이 71.1%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 20.1%, 자주함 8.8% 순이었음
- 직업별로는 일반-미취업 집단의 활동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일반-취업, 활동가 순이었음
-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활동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임
- 가구소득별로는 300-500만원 집단의 활동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소득유형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68】 온라인 여가 활동_온라인 마케터 활동 : 분산분석 (단위 : 명, 점, %)

구분		사례 수	활동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하지 않음	보통	자주함
전체		1,007	2.02	-	71.1	20.1	8.8
연령별	20대	507	2.00	.627	69.8	20.3	9.9
	30대	500	2.05		72.4	19.8	7.8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2.15	24.416***	64.1	24.8	11.1
	일반-취업	364	2.10		70.1	21.7	8.2
	활동가	200	1.59		88.5	6.5	5.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2.19	3.403*	67.1	22.4	10.6
	대재/휴학/유예	292	2.05		68.5	20.2	11.3
	대졸 이상	554	1.96		73.6	19.3	7.0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1.92	5.412**	74.8	17.4	7.7
	300-500만원	390	2.15		65.1	23.1	11.8
	500만원 이상	319	1.96		74.9	18.8	6.3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2.04	.089	71.1	20.6	8.3
	부모이전소득	320	2.02		70.0	19.7	10.3

* $p<0.05$, ** $p<0.01$

4) 소결

□ 청년 여가의 수동성

- 여가는 ‘개인이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직업적 노동, 그리고 기타 사회적 의무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유의지에 의해 휴식, 기분전환, 자기계발 등을 위해서 쓰이는 시간 및 활동’을 의미함
 - 여가는 일과 공적 노동에 대비되는 ‘사적이고 자유로우며 즐거움을 추구하는 창조적 영역’을 대표함. 따라서 여가 향유의 확대는 휴식과 오락의 확대를 통한 자유와 즐거움의 제공, 인격계발, 자기결정성 확대라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하지만 광주 청년들의 여가 향유는 매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휴식이나 TV 시청으로 대표되는 여가 행위는 여가의 기능을 제대로 충족시키기 어려운 여가 행위임. 하지만 이러한 수동적 여가는 여가 향유 대상의 부족과 취업과 학업 등의 구조적 장애를 반영하는 것임
- 청년들은 앞으로 평일에는 TV와 비디오 시청 및 문화예술 관람, 휴일에는 여행·나들이와 문화예술 관람을 여가 행위로서 누리기를 희망함
 - 적극적 여가, 성찰적이고 의미 있는 여가의 의지가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휴일은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 여가 향유의 가능성이 크지만, 평일의 여가에서 수동성을 좀 더 적극적인 형태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즉 여가시간의 확보, 접근성을 높이는 여가 행위의 보급, 문화예술 향유 조건의 개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을 이용한 여가 행위의 가능성

-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온라인 활동은 청년들의 삶에서도 핵심적인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음. 특히 N세대로서 성장한 현재의 젊은 세대들에게 온라인 환경은 또 다른 삶의 조건이라 할 수 있음
 - 아직은 온라인의 여가 행위가 주로 서핑과 글 읽기, 게임, 쇼핑 등이 우세하게 나타나지만, 웹진 등을 통한 독서, 유튜브 등을 통한 영화·동영상 관람, 미디어 플랫폼 기반 방송 참여 등의 여가 행위도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 가능성이 매우 큼
 - 접근성이 매우 좋은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청년의 온라인 여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 여가시간 양과 문화적 실천과의 상관관계

- 여가시간의 양과 청년들의 문화적 실천 간에 상관성이 존재함

【표 69】 여가시간 양과 실천과의 상관관계

		일상문화활동	대중문화 이벤트 참여	예술장르 향유	예술 창작 활동
여가시간_평일	Pearson 상관	.092**	.197**	.089**	.028
	유의확률 (양측)	.004	.000	.005	.370
	N	1007	1007	1007	1007
여가시간_휴일	Pearson 상관	.033	.223**	.069*	.082**
	유의확률 (양측)	.297	.000	.029	.010
	N	1007	1007	1007	1007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양측).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양측).

- 여가시간, 즉 주중 평일의 여가시간과 휴일의 여가시간은 청년들의 문화적 실천과 관련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평일 여가시간의 경우 일상문화활동, 대중문화이벤트 관람, 예술장르 향유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평일 여가시간 여유가 많을수록 문화적 활동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줌
- 주말 여가시간의 길이는 대중문화이벤트 관람, 예술장르 향유, 그리고 문화예술 창작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이고 있음
- 이 결과는 일상 활동에서부터 문화예술 창작에 이르기까지 그 실천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가 시간의 확보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보여줌

3. 청년 문화공간과 공동체적 활동

1) 청년 문화향유 시설 이용 실태

□ 시·구민회관

- 광주 청년들이 시·구민회관을 이용한 비율은 18.5%였으며, 이용자들의 평균 이용횟수는 2.22회로 나타남
 - 이용자들의 만족도 평균은 77.36점으로 만족하는 수준이었음
 - 20대는 30대에 비해 시·구민회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음
 - 직업별로는 활동가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고, 일반-미취업, 일반-취업 집단 순이었음
 - 학력별로는 대재 집단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고, 고졸 이하 집단의 이용률이 가장 낮았음
 - 가구소득이 300-500만원 집단의 이용률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모이전소득 집단은 근로소득 집단에 비해 이용률이 더 높았으나, 이용 만족도는 근로소득 집단이 더 높았음

【표 70】 문화향유 시설 이용_시·구민회관 : 분산분석 (단위:명%회점)

구분	사례 수	이용 실태		이용횟수			만족도	
		이용	미이용	평균	최소값	최대값	평균	F
전체	1,007	18.5	81.5	2.22	1.00	30.00	77.36	-
연령별	20대	507	23.3	76.7	2.16	1.00	30.00	77.64
	30대	500	13.6	86.4	2.31	1.00	30.00	76.88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16.0	84.0	1.90	1.00	6.00	74.69
	일반-취업	364	12.9	87.1	1.85	1.00	10.00	77.50
	활동가	200	34.0	66.0	2.80	1.00	30.00	80.05
학력별	고졸 이하	161	13.0	87.0	1.65	1.00	5.00	75.35
	대재/휴학/유예	292	25.3	74.7	2.14	1.00	7.00	76.94
	대졸 이상	554	16.4	83.6	2.40	1.00	30.00	78.13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16.8	83.2	2.26	1.00	30.00	73.96
	300-500만원	390	21.5	78.5	1.87	1.00	10.00	78.90
	500만원 이상	319	16.3	83.7	2.76	1.00	30.00	78.00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17.7	82.3	2.34	1.00	30.00	79.29
유형별	부모이전소득	320	21.3	78.8	2.00	1.00	7.00	73.75

* $p<0.05$

□ 문예회관

- 광주 청년들이 문예회관을 이용한 비율은 24.0%였으며, 이용자들의 평균 이용횟수는 2회로 나타남
- 이용자들의 만족도 평균은 78.73점으로 만족하는 수준이었음
- 20대는 30대에 비해 문예회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음
- 직업별로는 활동가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고, 일반-미취업, 일반-취업 순이었으며, 이용 만족도는 활동가, 일반-취업, 일반-미취업 순으로 일반-미취업 집단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음
- 학력별로는 대재 집단의 이용률이 가장 높고, 대졸 이상, 고졸 이하 집단 순이었음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이용 만족도는 300-500만원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71】 문화향유 시설 이용_문예회관 : 분산분석 (단위:명%회점)

구분	사례 수	이용 실태		이용횟수			만족도	
		이용	미이용	평균	최소값	최대값	평균	F
전체	1,007	24.0	76.0	2.00	1.00	15.00	78.73	-
연령별	20대	507	26.2	73.8	1.78	1.00	10.00	79.50
	30대	500	21.8	78.2	2.25	1.00	15.00	77.79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19.9	80.1	1.62	1.00	5.00	74.37
	일반-취업	364	17.9	82.1	1.84	1.00	10.00	79.31
	활동가	200	44.5	55.5	2.46	1.00	15.00	82.56
학력별	고졸 이하	161	14.3	85.7	1.50	1.00	4.00	78.17
	대재/휴학/유예	292	30.5	69.5	1.92	1.00	10.00	79.16
	대졸 이상	554	23.5	76.5	2.13	1.00	15.00	78.53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20.8	79.2	2.20	1.00	15.00	74.28
	300-500만원	390	24.9	75.1	1.76	1.00	8.00	81.24
	500만원 이상	319	26.0	74.0	2.12	1.00	12.00	79.08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24.8	75.2	2.10	1.00	15.00	79.48
유형별	부모이전소득	320	23.8	76.3	1.84	1.00	10.00	77.20

* $p<0.05$, ** $p<0.01$

□ 청소년 시설

○ 광주 청년들이 청소년 시설을 이용한 비율은 8.7%였으며, 이용자들의 평균 이용횟수는 2.49회로 나타남

- 이용자들의 만족도 평균은 82.68점으로 만족하는 수준이었음
- 20대는 30대에 비해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음
- 직업별로는 활동가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고, 만족도 역시 가장 높았음
- 학력별 이용률은 대재, 대졸 이상, 고졸 이하 집단 순이었음
- 근로소득 집단은 부모이전소득 집단에 비해 청소년 시설을 이용한 비율이 더 높았음

【표 72】 문화향유 시설 이용_청소년 시설 : 분산분석 (단위:명%회점)

구분	사례 수	이용 실태		이용횟수			만족도	
		이용	미이용	평균	최소값	최대값	평균	F
전체	1,007	8.7	91.3	2.49	1.00	30.00	82.68	-
연령별	20대	507	10.7	89.3	2.42	1.00	24.00	82.69
	30대	500	6.8	93.2	2.63	1.00	30.00	82.66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6.3	93.7	2.58	1.00	24.00	72.78
	일반-취업	364	3.0	97.0	4.45	1.00	30.00	81.36
	활동가	200	24.5	75.5	2.00	1.00	6.00	88.8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5.6	94.4	1.56	1.00	3.00	76.67
	대재/휴학/유예	292	10.6	89.4	3.53	1.00	30.00	83.00
	대졸 이상	554	8.7	91.3	2.00	1.00	6.00	83.67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8.1	91.9	2.13	1.00	6.00	79.58
	300-500만원	390	8.7	91.3	2.42	1.00	24.00	80.15
	500만원 이상	319	9.4	90.6	2.89	1.00	30.00	88.52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10.2	89.8	2.48	1.00	30.00	83.10
	부모이전소득	320	6.9	93.1	2.57	1.00	24.00	83.00

*** $p<0.001$

□ 문화의집

○ 광주 청년들이 문화의집을 이용한 비율은 5.3%였으며, 이용자들의 평균 이용 횟수는 2.44회로 나타남

- 이용자들의 만족도 평균은 78.58점으로 만족하는 수준이었음
- 활동가의 이용률은 다른 집단에 비해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집단의 이용률이 가장 낮았음
- 근로소득 집단의 이용률은 부모이전소득 집단에 비해 높았음

【표 73】 문화향유 시설 이용_문화의집 : 분산분석 (단위:명%회점)

구분	사례 수	이용 실태		이용횟수			만족도	
		이용	미이용	평균	최소값	최대값	평균	F
전체	1,007	5.3	94.7	2.44	1.00	11.00	78.58	-
연령별	20대	507	5.9	94.1	2.66	1.00	11.00	78.62
	30대	500	4.6	95.4	2.17	1.00	6.00	78.52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4.3	95.7	3.28	1.00	11.00	77.78
	일반-취업	364	3.3	96.7	1.58	1.00	5.00	80.42
	활동가	200	11.0	89.0	2.23	1.00	6.00	78.23
학력별	고졸 이하	161	3.7	96.3	2.00	1.00	5.00	66.67
	대재/휴학/유예	292	6.5	93.5	3.00	1.00	11.00	83.74
	대졸 이상	554	5.1	94.9	2.15	1.00	6.00	77.59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5.7	94.3	2.81	1.00	11.00	74.44
	300-500만원	390	5.1	94.9	2.50	1.00	10.00	79.75
	500만원 이상	319	5.0	95.0	2.00	1.00	5.00	81.25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6.8	93.2	2.05	1.00	6.00	78.95
	부모이전소득	320	2.5	97.5	4.38	1.00	11.00	80.00

□ 도서관

- 광주 청년들이 도서관을 이용한 비율은 41.5%였으며, 이용자들의 평균 이용 횟수는 22.26회로 나타남
- 이용자들의 만족도 평균은 80.28점으로 만족하는 수준이었음
- 20대는 30대에 비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았음
- 직업별로는 활동가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일반-미취업, 일반-취업 집단 순이었음
- 학력별 이용률은 대재 집단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대졸 이상, 고졸 이하 집단 순이었으며, 이용 만족도는 대졸 이상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 집단의 도서관 이용률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300-500만원 집단의 이용률이 가장 낮았음
- 부모이전소득 집단의 도서관 이용률은 근로소득 집단의 이용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74】 문화향유 시설 이용_도서관 : 분산분석 (단위:명 % 회 점)

구분	사례수	이용 실태		이용횟수			만족도	
		이용	미이용	평균	최솟값	최댓값	평균	F
전체	1,007	41.5	58.5	22.26	1.00	365.00	80.28	-
연령별	20대	507	48.9	51.1	21.35	1.00	365.00	80.39
	30대	500	34.0	66.0	23.59	1.00	300.00	80.12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45.6	54.4	28.73	1.00	365.00	80.01
	일반-취업	364	24.2	75.8	16.06	1.00	100.00	78.06
	활동가	200	64.0	36.0	16.51	1.00	250.00	82.28
학력별	고졸 이하	161	24.2	75.8	13.92	1.00	100.00	75.72
	대재/휴학/유예	292	54.8	45.2	21.91	1.00	300.00	78.56
	대졸 이상	554	39.5	60.5	24.03	1.00	365.00	82.38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41.6	58.4	20.11	1.00	365.00	79.79
	300-500만원	390	39.2	60.8	24.53	1.00	300.00	81.22
	500만원 이상	319	44.2	55.8	21.71	1.00	300.00	79.68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39.1	60.9	14.59	1.00	300.00	80.87
유형별	부모이전소득	320	48.8	51.3	34.25	1.00	365.00	79.48

* $p<0.05$

□ 박물관·미술관

- 광주 청년들이 박물관·미술관을 이용한 비율은 30%였으며, 이용자들의 평균 이용횟수는 2.8회로 나타남
- 이용자들의 만족도 평균은 79.63점으로 만족하는 수준이었음
- 20대는 30대에 비해 박물관·미술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았음
- 활동가의 절반 이상은 박물관·미술관을 이용하는 반면, 일반-취업 집단의 이용률은 그보다 3배 이상 낮았고, 이용자 만족도도 활동가가 가장 높고 일반-취업 집단이 가장 낮았음
- 대재, 대졸 이상 집단의 이용률은 30%대인 반면, 고졸 이하 집단은 10%대에 머물러 이용률의 차이를 보였으며, 만족도 역시 80점대와 70점대로 차이를 보임
-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 집단의 박물관·미술관 이용률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근로소득 집단의 이용률은 부모이전소득 집단에 비해 낮았음

【표 75】 문화향유 시설 이용_박물관·미술관 : 분산분석 (단위:명 % 회 점)

구분	사례수	이용 실태		이용횟수			만족도	
		이용	미이용	평균	최솟값	최댓값	평균	F
전체	1,007	30.0	70.0	2.80	1.00	60.00	79.63	-
연령별	20대	507	32.9	67.1	2.58	1.00	12.00	81.16
	30대	500	27.0	73.0	3.06	1.00	60.00	77.76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26.4	73.6	2.69	1.00	12.00	78.29
	일반-취업	364	18.1	81.9	4.14	1.00	60.00	76.31
	활동가	200	59.5	40.5	2.18	1.00	8.00	82.83
학력별	고졸 이하	161	18.0	82.0	1.83	1.00	10.00	70.71
	대재/휴학/유예	292	35.6	64.4	2.58	1.00	30.00	80.82
	대졸 이상	554	30.5	69.5	3.10	1.00	60.00	80.44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28.5	71.5	2.49	1.00	12.00	77.74
	300-500만원	390	27.7	72.3	2.50	1.00	10.00	80.32
	500만원 이상	319	34.2	65.8	3.32	1.00	60.00	80.39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31.4	68.6	3.00	1.00	60.00	80.07
유형별	부모이전소득	320	28.4	71.6	2.49	1.00	12.00	78.94

* $p<0.05$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광주 청년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이용한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8.4%였으며, 이용자들의 평균 이용횟수는 4.09회로 나타남
- 이용자들의 만족도 평균은 80.73점으로 만족하는 수준이었음
- 20대는 절반 이상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이용한 경험이 있어, 30대에 비해 높은 이용률을 보임
- 직업별 이용률은 활동가, 일반-미취업, 일반-취업 집단 순이었음
- 학력별로는 대재, 대졸 이상 집단이 절반 이상이 이용한 경험이 있는 반면, 고졸 이하 집단은 20%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률을 보임
- 가구소득이 300-500만원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이용률이 낮았음
- 부모이전소득 집단의 이용률은 근로소득 집단에 비해 높았음

【표 76】 문화향유 시설 이용_국립아시아문화전당 : 분산분석 (단위:명%회점)

구분	사례수	이용 실태		이용횟수			만족도	
		이용	미이용	평균	최소값	최대값	평균	F
전체	1,007	48.4	51.6	4.09	1.00	100.00	80.73	-
연령별	20대	507	53.8	46.2	4.03	1.00	100.00	1.792
	30대	500	42.8	57.2	4.17	1.00	60.00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45.6	54.4	4.07	1.00	100.00	1.021
	일반-취업	364	32.7	67.3	3.09	1.00	20.00	
	활동가	200	83.0	17.0	4.85	1.00	50.0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28.6	71.4	2.31	1.00	10.00	2.188
	대재/휴학/유예	292	56.2	43.8	4.58	1.00	100.00	
	대졸 이상	554	50.0	50.0	4.09	1.00	50.00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49.0	51.0	4.21	1.00	100.00	1.555
	300-500만원	390	46.4	53.6	4.25	1.00	60.00	
	500만원 이상	319	50.2	49.8	3.80	1.00	40.00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47.6	52.4	4.13	1.00	60.00	.599
	부모이전소득	320	51.9	48.1	4.01	1.00	100.00	

□ 생활문화센터

- 광주 청년들이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한 비율은 7.0%였으며, 이용자들의 평균 이용횟수는 2.7회로 나타남
- 이용자들의 만족도 평균은 78.58점으로 만족하는 수준이었음
- 20대는 30대에 비해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직업별 이용률은 활동가, 일반-미취업, 일반-취업 순이었으며, 이용 만족도는 활동가, 일반-취업, 일반-미취업 순이었음
-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집단의 이용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 근로소득 집단의 이용률은 부모이전소득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만족도 역시 높았음

【표 77】 문화향유 시설 이용_생활문화센터 : 분산분석 (단위:명%회점)

구분	사례수	이용 실태		이용횟수			만족도	
		이용	미이용	평균	최소값	최대값	평균	F
전체	1,007	7.0	93.0	2.70	1.00	30.00	78.58	-
연령별	20대	507	8.1	91.9	2.77	1.00	30.00	.247
	30대	500	5.8	94.2	2.61	1.00	20.00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5.9	94.1	4.25	1.00	30.00	3.817*
	일반-취업	364	3.3	96.7	1.58	1.00	5.00	
	활동가	200	16.0	84.0	1.94	1.00	6.0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5.6	94.4	2.67	1.00	10.00	1.315
	대재/휴학/유예	292	5.5	94.5	3.40	1.00	20.00	
	대졸 이상	554	8.1	91.9	2.47	1.00	30.00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7.4	92.6	2.33	1.00	10.00	.117
	300-500만원	390	6.2	93.8	3.65	1.00	30.00	
	500만원 이상	319	7.5	92.5	2.09	1.00	5.00	
	500만원 이상	319	7.5	92.5	2.09	1.00	5.00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8.2	91.8	2.14	1.00	20.00	10.330**
	부모이전소득	320	4.4	95.6	2.00	1.00	5.00	

* $p < 0.05$, ** $p < 0.01$

2) 청년공간

(1) 광주 청년공간 이용실태

□ 청년센터 The숲

○ 광주 청년들의 청년센터 The숲 인지율은 30.2%였으며, 방문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10.6%로 나타남

- 이용자들의 만족도 평균은 80.42점으로 만족하는 수준이었음
- 20대는 30대에 비해 인지도와 방문 경험 비율 모두 높았음
- 직업별로는 활동가의 인지도 가장 높았고, 방문 경험은 인지도의 절반 이상인 반면, 일반-미취업 집단과 일반-취업 집단은 인지도에 비해 방문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 방문 만족도는 활동가가 가장 높았음
- 학력별로는 대재, 대졸 이상 집단의 30% 이상이 인지하고 있었고, 10%가량 방문해본 경험이 있는 반면, 고졸 이하 집단은 10%대의 인지도와 2%대의 방문 경험으로 차이를 보임
- 가구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 집단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300만원 미만 집단의 방문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근로소득 집단의 인지도와 방문경험 비율은 부모이전소득 집단에 비해 높았음

【표 78】 청년공간_청년센터 The숲 : 분산분석

(단위:명,%,회,점)

구분	사례 수	인지 여부		방문경험		만족도	
		인지	미인지	있음	없음	평균	F
전체	1,007	30.2	69.8	10.6	89.4	80.42	-
연령별	20대	507	34.5	65.5	12.8	87.2	82.48
	30대	500	25.8	74.2	8.4	91.6	77.20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25.3	74.7	6.5	93.5	72.76
	일반-취업	364	19.5	80.5	2.5	97.5	77.78
	활동가	200	60.5	39.5	34.5	65.5	84.09
학력별	고졸 이하	161	14.9	85.1	2.5	97.5	65.00
	대재/휴학/유예	292	37.7	62.3	12.3	87.7	81.67
	대졸 이상	554	30.7	69.3	12.1	87.9	80.68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28.9	71.1	12.1	87.9	80.83
	300-500만원	390	26.9	73.1	9.2	90.8	78.14
	500만원 이상	319	35.4	64.6	11.0	89.0	82.29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31.6	68.4	12.4	87.6	81.85
	부모이전소득	320	28.4	71.6	6.9	93.1	81.82

* $p<0.05$

□ I-PLEX 광주청년창업지원센터

- 광주 청년들의 I-PLEX 광주청년창업지원센터 인지율은 21.7%였으며, 방문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6.3%로 나타남
- 이용자들의 만족도 평균은 74.79점으로 다소 만족하는 수준이었음
- 20대는 30대에 비해 약 10%가량 더 인지하고 있었으나, 방문경험의 비율은 근소하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활동가의 인지율과 방문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용 만족도가 활동가는 80점대, 나머지 집단은 60점대로 차이를 보임
- 학력별 인지도는 대재, 대졸 이상 집단이 20%대, 고졸 이하 집단은 10% 미만이었으며, 방문경험 비율은 모두 10% 미만이었고, 특히 고졸 이하 집단은 1% 미만이었음
- 가구소득별 인지도는 500만원 이상 집단이, 방문경험 비율은 300만원 미만 집단이 가장 높았음
- 근로소득 집단은 부모이전소득 집단에 비해 인지도 대비 방문경험의 비율이 더 높았음

【표 79】 청년공간 I-PLEX 광주청년창업지원센터 : 분산분석 (단위:명%회점)

구분	사례 수	인지 여부		방문경험		만족도	
		인지	미인지	있음	없음	평균	F
전체	1,007	21.7	78.3	6.3	93.7	74.79	-
연령별	20대	507	26.4	73.6	6.9	93.1	76.06
	30대	500	17.0	83.0	5.6	94.4	73.21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22.6	77.4	4.1	95.9	65.56
	일반-취업	364	13.2	86.8	2.7	97.3	61.00
	활동가	200	35.5	64.5	17.5	82.5	83.49
학력별	고졸 이하	161	8.1	91.9	0.6	99.4	80.00
	대재/휴학/유예	292	27.4	72.6	4.5	95.5	69.64
	대졸 이상	554	22.7	77.3	8.8	91.2	76.19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22.1	77.9	9.7	90.3	70.61
	300-500만원	390	17.9	82.1	4.4	95.6	72.35
	500만원 이상	319	26.0	74.0	5.3	94.7	83.61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22.8	77.2	8.2	91.8	75.23
	부모이전소득	320	21.6	78.4	3.1	96.9	77.00

** $p < 0.01$

□ 광주청년예술인지원센터

- 광주 청년들의 광주청년예술인지원센터 인지율은 15.5%였으며, 방문해본 경험에 있는 비율은 4.9%로 나타남
 - 이용자들의 만족도 평균은 77.94점으로 만족하는 수준이었음
 - 20대는 30대에 비해 인지율과 방문 비율이 근소하게 더 높았음
 - 직업별로는 활동가의 인지율은 20%대, 일반-미취업 집단은 10%대, 일반-취업 집단은 1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방문 경험은 활동가와 나머지 집단에 차이점을 보였음
 - 이용 만족도는 활동가가 가장 높았으며, 일반-취업, 일반-미취업 집단 순이었음
 - 학력별로 인지율과 방문경험 비율은 대재, 대졸 이상, 고졸 이하 순이었음
 - 가구소득별로 인지율은 500만원 이상 집단이, 방문경험 비율은 300만원 미만 집단이 가장 높았음
 - 근로소득 집단은 부모이전 소득 집단에 비해 인지율과 방문경험 비율 모두 높게 나타남

【표 80】 청년공간_광주청년예술인지원센터 : 분산분석

(단위:명%회점)

구분	사례 수	인지 여부		방문경험		만족도	
		인지	미인지	있음	없음	평균	F
전체	1,007	15.5	84.5	4.9	95.1	77.94	-
연령별	20대	507	17.6	82.4	5.5	94.5	76.17
	30대	500	13.4	86.6	4.2	95.8	80.50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14.9	85.1	3.2	96.8	63.86
	일반-취업	364	9.6	90.4	2.2	97.8	72.50
	활동가	200	27.5	72.5	13.5	86.5	86.85
학력별	고졸 이하	161	6.8	93.2	1.9	98.1	60.00
	대재/휴학/유예	292	21.2	78.8	6.2	93.8	76.39
	대졸 이상	554	15.0	85.0	5.1	94.9	80.86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14.1	85.9	6.4	93.6	77.05
	300-500만원	390	12.8	87.2	4.6	95.4	72.78
	500만원 이상	319	20.1	79.9	3.8	96.2	87.08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16.3	83.7	6.0	94.0	77.92
	부모이전소득	320	14.7	85.3	2.8	97.2	81.11

** $p < 0.01$

□ 발산마을 청춘빌리지

- 광주 청년들의 발산마을 청춘빌리지 인지율은 21.8%였으며, 방문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8.2%로 나타남
- 이용자들의 만족도 평균은 75.51점으로 만족하는 수준이었음
- 20대는 30대에 비해 인지율과 방문경험 비율 모두 높게 나타남
- 직업별 인지율과 방문경험 비율은 활동가, 일반-미취업, 일반-취업 집단 순이었으며, 이용 만족도는 활동가가 가장 높고 일반-미취업 집단이 가장 낮았음
- 학력별 인지율과 방문경험 비율은 대재, 대졸 이상, 고졸 이하 집단 순이었음
- 가구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집단 순으로 인지율과 방문경험 비율이 낮아짐

【표 81】 청년공간_발산마을 청춘빌리지 : 분산분석 (단위:명%회점)

구분	사례 수	인지 여부		방문경험		만족도	
		인지	미인지	있음	없음	평균	F
전체	1,007	21.8	78.2	8.2	91.8	75.51	-
연령별	20대	507	26.0	74.0	10.1	89.9	76.75
	30대	500	17.6	82.4	6.4	93.6	73.39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20.3	79.7	5.9	94.1	67.42
	일반-취업	364	12.1	87.9	2.7	97.3	72.40
	활동가	200	43.0	57.0	23.5	76.5	80.54
학력별	고졸 이하	161	13.7	86.3	3.7	96.3	70.00
	대재/휴학/유예	292	26.7	73.3	10.6	89.4	74.29
	대졸 이상	554	21.7	78.3	8.3	91.7	77.02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20.1	79.9	9.1	90.9	81.93
	300-500만원	390	19.0	81.0	6.4	93.6	70.96
	500만원 이상	319	27.0	73.0	9.7	90.3	73.03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22.1	77.9	9.6	90.4	77.18
	부모이전소득	320	21.9	78.1	6.3	93.8	71.90

**p<0.01

□ 청년문화거리(전남대 후문)

- 광주 청년들의 청년문화거리 인지율은 39.6%였으며, 방문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19.4%였음
- 이용자들의 만족도 평균은 71.66점으로 다소 만족하는 수준이었음
- 20대의 인지율과 방문경험 비율은 30대보다 높았음
- 직업별로는 활동가, 일반-미취업, 일반-취업 순으로 인지율과 방문경험 비율이 낮아짐
- 학력별로는 대재 집단의 인지율과 방문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고졸 이하 집단이 가장 낮았음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인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500만원 이상 집단의 방문경험 비율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음
- 근로소득 집단의 인지율은 부모이전소득 집단에 비해 높은 반면, 방문경험 비율은 더 낮았음

【표 82】 청년공간_청년문화거리 : 분산분석 (단위:명%회점)

구분	사례 수	인지 여부		방문경험		만족도	
		인지	미인지	있음	없음	평균	F
전체	1,007	39.6	60.4	19.4	80.6	71.66	-
연령별	20대	507	42.4	57.6	23.1	76.9	71.70
	30대	500	36.8	63.2	15.6	84.4	71.60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38.4	61.6	19.9	80.1	70.98
	일반-취업	364	32.7	67.3	9.1	90.9	71.61
	활동가	200	55.0	45.0	37.0	63.0	72.49
학력별	고졸 이하	161	32.3	67.7	9.9	90.1	70.38
	대재/휴학/유예	292	43.8	56.2	26.7	73.3	72.13
	대졸 이상	554	39.5	60.5	18.2	81.8	71.50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34.9	65.1	19.5	80.5	72.23
	300-500만원	390	39.5	60.5	19.7	80.3	72.18
	500만원 이상	319	44.2	55.8	18.8	81.2	70.46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40.5	59.5	19.0	81.0	74.06
	부모이전소득	320	38.4	61.6	20.0	80.0	69.19

(2) 청년 필요 공간

-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공간은 전체의 32.3%가 응답한 ‘놀이·휴식 공간’이었음
 - 이어서 ‘문화·예술 관람 공간(25.8%)’, ‘청년의 거리(13.4%)’, ‘문화·예술창작 활동공간(9.4%)’ 순이었음
 - 연령별 필요 공간에 대한 응답 경향은 전체 응답 비율과 유사함
 - 일반·미취업, 일반·취업 집단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간은 ‘놀이·휴식 공간’인 반면, 활동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간은 ‘문화·예술 관람 공간’이었음
 -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놀이·휴식공간’의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문화·예술관람 공간’의 응답 비율은 낮은 경향을 보임
 - 가구소득이 300~500만원 집단과 500만원 이상 집단은 ‘놀이·휴식공간’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300만원 미만 집단은 ‘문화·예술 관람 공간’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소득유형별 필요 공간의 응답 비율은 유사한 경향을 보임

【표 83】 청년 필요 공간 (단위:명,%)

구분	사례 수	놀이·휴식 공간	문화·예술 관람 공간	청년의 거리	문화·예술창작 활동공간	스포츠 활동공간	스터디 공간	커뮤니티 활동	유흥 공간	기타
전체	1,007	32.3	25.8	13.4	9.4	6.7	4.7	4.2	2.7	0.9
연령별										
20대	507	31.2	26.6	16.2	10.5	4.7	4.5	2.8	2.6	1.0
30대	500	33.4	25.0	10.6	8.4	8.6	4.8	5.6	2.8	0.8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31.8	24.4	17.2	7.9	7.4	6.5	2.7	1.8	0.2
일반·취업	364	37.6	23.9	12.4	7.4	6.3	3.6	4.9	1.9	1.9
활동가	200	23.5	32.5	7.0	16.5	5.5	2.5	6.0	6.0	0.5
학력별										
고졸 이하	161	47.8	20.5	11.8	5.6	5.6	3.7	1.2	2.5	1.2
대재/휴학/유예	292	32.5	21.9	15.4	10.3	6.2	6.5	4.1	2.7	0.3
대졸 이상	554	27.6	29.4	12.8	10.1	7.2	4.0	5.1	2.7	1.1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30.9	31.9	9.4	7.7	7.7	4.0	5.4	2.7	0.3
300-500만원	390	28.5	23.1	14.4	12.6	6.7	7.2	3.1	3.1	1.5
500만원 이상	319	38.2	23.5	16.0	7.2	5.6	2.2	4.4	2.2	0.6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31.1	25.9	13.0	9.1	6.9	4.7	5.2	3.0	1.1
부모이전소득	320	34.4	25.9	14.7	10.3	5.6	4.7	2.2	2.2	

3) 동호회

□ 동호회 활동

- 광주 청년의 22.4%는 정기적인 동호회(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음
 - 정기 동호회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평균 참여 동호회 수는 1.31개로 나타남
 - 20대의 동호회 활동 참여율은 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 활동가의 동호회 참여율은 절반가량으로, 10%대의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학력별로는 대재 집단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으며, 대졸 이상, 고졸 이하 순이었음
 - 가구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집단 순으로 참여율이 낮아짐
 - 근로소득 집단의 동호회 참여율은 부모이전소득 집단에 비해 높았음

【표 84】 정기 동호회 (단위:명,%,개)

구분	사례 수	정기 동호회 활동		사례 수	참여 동호회 수	
		참여	미참여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07	22.4	77.6	226	1.31	.65
연령별						
20대	507	23.1	76.9	117	1.25	.52
30대	500	21.8	78.2	109	1.39	.76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15.3	84.7	68	1.06	.29
일반·취업	364	17.6	82.4	64	1.20	.54
활동가	200	47.0	53.0	94	1.57	.8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13.7	86.3	22	1.41	.73
대재/휴학/유예	292	26.4	73.6	77	1.16	.46
대졸 이상	554	22.9	77.1	127	1.39	.71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22.1	77.9	66	1.39	.63
300-500만원	390	20.8	79.2	81	1.23	.64
500만원 이상	319	24.8	75.2	79	1.33	.67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24.6	75.4	157	1.36	.70
부모이전소득	320	18.4	81.6	59	1.14	.39

□ 동호회 종류

- 청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동호회는 ‘친목’동호회였으며, 이어서 ‘문화예술창작’, ‘스포츠’, ‘레저’ 순이었음
- 30대는 ‘친목’ 동호회에 참여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20대는 ‘문화예술창작’ 동호회에 참여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미취업 집단은 ‘레저’, 일반-취업 집단은 ‘친목’, 활동가 집단은 ‘문화예술창작’을 각각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었음
- 고졸 이하 집단은 ‘친목’과 ‘문화예술창작’ 동호회 활동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반면, 나머지 집단은 상대적으로 고루 분포된 경향을 보임
- 가구소득별로 300만원 미만 집단은 ‘친목’, 300-500만원 집단은 ‘문화예술창작’, 500만원 이상 집단은 ‘스포츠’ 동호회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소득 집단은 ‘친목’과 ‘문화예술창작’, 부모이전소득 집단은 ‘문화예술창작’과 ‘스포츠’ 동호회를 각각 가장 많이 하고 있음

【표 85】 참여 동호회 종류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친목	문화예술창작	스포츠	레저	종교	봉사	여행	문화예술관람	학습	기타
전체	226	20.2	17.9	13.5	9.9	7.6	7.2	7.2	6.7	6.3	3.6
연령별	20대	117	13.8	19.8	12.9	11.2	6	5.2	9.5	8.6	4.3
	30대	109	27.1	15.9	14	8.4	9.3	9.3	4.7	3.7	2.8
직업별	일반-미취업	68	11.8	7.4	13.2	16.2	7.4	10.3	8.8	10.3	2.9
	일반-취업	64	35.9	4.7	17.2	10.9	12.5	7.8	7.8	1.6	1.6
	활동가	94	15.4	35.2	11	4.4	4.4	5.5	7.7	5.5	6.6
학력별	고졸 이하	22	33.3	28.6	4.8	4.8		4.8	4.8	14.3	
	대재/휴학/유예	77	14.3	19.5	15.6	6.5	3.9	9.1	9.1	10.4	5.2
	대졸 이상	127	21.6	15.2	13.6	12.8	11.2	6.4	6.4	4.8	3.2
가구소득별	300만원 미만	66	27	15.9	12.7	6.3	12.7	4.8	6.3	3.2	4.8
	300-500만원	81	16	22.2	6.2	12.3	6.2	8.6	6.2	7.4	9.9
	500만원 이상	79	19	15.2	21.5	10.1	5.1	7.6	8.9	6.3	1.3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157	24	16.9	11.7	11	8.4	6.5	7.8	7.1	3.2
	부모이전소득	59	11.9	18.6	16.9	8.5	5.1	8.5	6.8	13.6	3.4

□ 동호회 활동의 어려운 점

-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공간 문제’로 전체의 40%가 응답함
- 이어서 ‘회원의 참여 부족(23.1%)’, ‘강사비 및 운영비 부담(10.7%)’, ‘회원 간의 갈등(9.3%)’ 순이었음
- 20대와 30대 모두 ‘공간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회원의 참여 부족’은 20대에 비해 30대에서 더 큰 어려움으로 나타남
- 직업별 집단 모두 ‘공간 문제’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회원의 참여 부족’은 일반-취업 집단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 학력이 높을수록 가장 응답 비율이 높은 ‘공간 문제’의 응답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공간 문제’의 응답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부모이전소득 집단은 근로소득 집단에 비해 ‘공간 문제’, ‘회원의 참여 문제’, ‘강사비 및 운영비 부담’의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근로소득 집단은 부모이전소득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원 간의 갈등’, ‘동호회 프로그램 내용 부족’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86】 동호회 활동의 어려운 점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공간문제	회원의 참여 부족	강사비 및 운영비 부담	회원 간 갈등	동호회 활동 프로그램 내용 부족	동호회 자원 사정 부족	동호회 자원 과잉	기타
전체	226	40.4	23.1	10.7	9.3	8.0	4.9	2.2	1.3
연령별	20대	117	45.7	17.2	13.8	6.9	6.9	6.0	0.9
	30대	109	34.9	29.4	7.3	11.9	9.2	3.7	3.7
직업별	일반-미취업	68	36.8	20.6	13.2	10.3	5.9	7.4	2.9
	일반-취업	64	34.4	29.7	4.7	10.9	10.9	4.7	3.1
	활동가	94	47.3	20.4	12.9	7.5	7.5	3.2	1.1
학력별	고졸 이하	22	45.5	22.7	4.5	4.5	4.5		13.6
	대재/휴학/유예	77	44.2	16.9	14.3	10.4	5.2	6.5	1.3
	대졸 이상	127	37.3	27.0	9.5	9.5	10.3	4.8	0.8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66	36.9	23.1	12.3	9.2	13.8	1.5	3.1
	300-500만원	81	37.0	23.5	7.4	12.3	6.2	8.6	2.5
	500만원 이상	79	46.8	22.8	12.7	6.3	5.1	3.8	1.3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157	38.5	22.4	9.0	11.5	10.3	5.8	1.9
	부모이전소득	59	49.2	25.4	15.3	5.1	1.7	1.7	1.7

□ 희망 동호회 종류

- 정기 동호회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향후 희망하는 동호회는 ‘여행’동호회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레저’, ‘문화예술 관람’, ‘친목’ 동호회 순이었고, 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0.4%였음
- 20대와 30대 모두 ‘여행’ 동호회를 가장 희망하였으며, 30대는 ‘레저’라고 응답한 비율이 20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직업별 집단 모두 ‘여행’ 동호회를 가장 희망하였고, 활동가는 다른 집단과 달리 ‘문화예술관람’의 응답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음
- 고졸 이하 집단의 ‘여행’ 희망 비율은 다른 집단에 비해 20% 이상 더 높았으며, 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대졸 이상 집단이 가장 높았음
- 가구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 집단이 ‘여행’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 근로소득 집단은 부모이전소득 집단에 비해 ‘여행’과 ‘레저’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87】 희망 동호회 종류(1-5)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여행	레저	문화예술 관람	친목	스포츠
전체	226	28.8	13.2	11.4	9.6	8.5
연령별	20대	117	28.6	10.7	12.8	9.1
	30대	109	29.0	15.8	10.0	10.2
직업별	일반-미취업	68	27.1	14.0	12.2	8.8
	일반-취업	64	35.2	14.8	6.6	8.5
	활동가	94	21.0	8.5	18.5	13.5
학력별	고졸 이하	22	46.0	6.8	5.6	10.6
	대재/휴학/유예	77	24.7	14.0	13.7	9.2
	대졸 이상	127	26.0	14.6	11.9	9.6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66	31.2	13.8	13.1	7.4
	300-500만원	81	23.1	15.4	10.8	8.7
	500만원 이상	79	33.5	10.0	10.7	12.9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157	30.1	13.3	10.5	9.7
	부모이전소득	59	26.9	12.8	13.1	10.6

【표 88】 희망 동호회 종류(6-10)

(단위:명%)

구분	사례 수	문화예술창작	봉사	종교	학습	기타	하지 않음
전체	226	7.0	3.8	3.4	3.1	0.8	10.4
연령별	20대	117	8.1	3.6	2.2	3.9	11.8
	30대	109	5.8	4.0	4.6	2.2	9.0
직업별	일반-미취업	68	5.2	4.5	4.5	5.2	8.8
	일반-취업	64	4.1	4.1	3.6	1.6	12.4
	활동가	94	16.0	1.5	0.5	1.0	10.5
학력별	고졸 이하	22	5.0	4.3	2.5	1.2	8.7
	대재/휴학/유예	77	8.6	5.1	2.4	5.5	9.2
	대졸 이상	127	6.7	2.9	4.2	2.3	11.6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66	6.0	2.7	1.7	3.0	10.7
	300-500만원	81	8.2	3.8	6.4	3.3	10.8
	500만원 이상	79	6.3	4.7	1.3	2.8	9.7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157	7.2	3.8	3.8	2.7	9.4
	부모이전소득	59	6.6	3.4	2.8	4.1	10.9

4) 소결

□ 낮은 문화예술 시설 이용

○ 광주광역시에 산재한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청년의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낮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나 도서관이 예외적으로 40% 이상의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 문화예술 시설 중에서는 박물관·미술관이 30% 정도의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일 뿐, 다른 시설들은 20% 이하의 낮은 이용률을 보임
- 청년들의 시설 이용이 낮은 이유는 시설들이 청년들에게 홍보되지 않고, 이용가능한 시설의 유용성이 부족하기 때문
- 이용의 문턱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한 이유. 이용을 위한 신청 절차 등이 어렵고 쉽게 접근하기 힘들다는 평가가 지배적

○ 청년들의 시설 이용 목적과 기존 시설 용도의 불일치

-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은 놀이·휴식 공간, 문화예술 관람 공간, 청년들이 모이는 거리, 문화예술 창작활동 공간 등임
- 기존의 문화예술 시설은 일부 관람을 위한 시설들 외에는, 청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시설들임을 알 수 있음
- 청년들은 ‘동네 근처에 즐길만한 공간’을 원하며, 광주는 ‘투자에 비해 체감도가 낮은’ 도시라고 인식함
- 청년들의 놀이·휴식은 단순한 개인적 휴식이나 수동적 도피가 아니라, 청년들끼리 어울려 놀 수 있는 활동으로서, 그리고 그러한 활동을 지원해주는 공간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광주광역시의 ‘청년공간’의 낮은 인지도와 낮은 이용률

-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지자체 등에 의해 조성된 청년공간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공간이 40% 미만의 인지율을 보일 뿐 아니라, 실제 이용해본 경험은 전남대 후문 청년문화거리를 제외하면 대부분 10% 미만임
 - 특히 집단별로는 일반 취업자 청년의 인지와 이용률이 매우 낮아서, 청년공간 이용에서 가장 소외된 집단임을 보여줌
- 청년들은 스스로 공간 이용에서 소외된 세대라고 생각함
 - 아동, 성인, 노인, 여성 등을 위한 공간은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반면, 청년을 위한 공간은 부족하거나, 아니면 청년의 욕구와는 잘 맞지 않는 마찰적 공간

□ 청년들의 동호회 활동과 공간

- 동호회 활동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공간 문제
 - 동호회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절대적 부족은 청년들의 공간에 대한 일반적인 욕구를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됨
 - 청년들은 다른 지역이나 국가의 경험들에 대한 정보를 통해 구체적인 방식으로 필요 공간을 상상하고 있음
 - ▶ ‘동네 근처에 여가활동을 즐길만한 공간’
 - ▶ ‘아지트 같은 공간’
 - ▶ ‘편하게 놀면서 쉴 수 있는 공간’
 - ▶ ‘동호회 활동을 자유롭게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공간’ 등을 요구함.

4. 청년의 행복과 만족을 만드는 조건

1) 행복점수

- 청년들의 행복 점수는 71.7점(100점 만점)이었음
 - 직업별 행복 점수는 활동가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일반-취업 집단, 일반-미취업 집단 순이었음
 -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 점수는 높아짐
 - 가구소득이 300~500만원 집단의 행복 점수는 다른 집단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5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순으로 행복 점수가 낮아짐
 - 근로소득 집단은 부모이전소득 집단에 비해 행복 점수가 더 높음
 - 연령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89】 행복점수 : 분산분석 (단위 : 명, 점)

구분	사례수	행복 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F
전체	1,007	71.7	18.7	0	100	-
연령별	20대	507	70.9	18.5	0	100
	30대	500	72.4	18.9	10	100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68.5	18.3	0	100
	일반-취업	364	73.0	18.4	10	100
	활동가	200	76.3	19.1	10	10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69.0	19.5	10	100
	대재/휴학/유예	292	70.7	18.6	0	100
	대졸 이상	554	72.9	18.5	10	100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68.9	21.1	10	100
	300-500만원	390	73.2	16.2	10	100
	500만원 이상	319	72.3	19.0	0	100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74.0	18.2	0	100
	부모이전소득	320	67.6	18.6	10	100

* $p<0.05$, ** $p<0.01$, *** $p<0.001$

2) 소결

□ 청년의 행복과 문화적 실천

○ 주요 집단별로 행복점수 평균을 비교해보면, 전문가 집단의 행복 점수가 76.3점으로 가장 높고, 일반인 중에서는 취업자가 73.02점으로 미취업자 68.5점보다 높게 나타남.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 참여가 행복감을 높이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 효과로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줌. 즉 문화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집단과 같은 높은 수준에서의 참여는 행복감에 영향을 주지만,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의 여가와, 취업과 같은 경제적 필요의 충족이 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청년들이 느끼고 평가하는 행복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겠지만, 이 연구의 관심은 문화적 실천이 청년들의 행복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의 문제임
- 이를 분석하기 위해 4 유형의 개별 문화적 실천의 1년간 참여 횟수를 영역별로 합산하여 각각 일상문화활동 횟수, 대중문화 이벤트 참여횟수, 예술 향유 횟수, 문화예술 창작 횟수 변수로 재구성함
 - 아울러 평일과 주말의 여가 시간을 함께 고려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함

【표 90】 여가시간 양과 행복감의 상관관계

	행복 점수
여가시간_평일	Pearson 상관 유의확률 (양측) N
	.115** .000 1007
여가시간_휴일	Pearson 상관 유의확률 (양측) N
	.155** .000 1007

**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양측).

【표 91】 문화적 실천 횟수와 행복감의 상관관계

	행복 점수
일상문화활동 횟수	Pearson 상관 유의확률 (양측) N
	.009 .775 1007
대중문화이벤트 참여횟수	Pearson 상관 유의확률 (양측) N
	.163** .000 1007
예술 향유 횟수	Pearson 상관 유의확률 (양측) N
	.097** .002 1007
문화예술 창작 횟수	Pearson 상관 유의확률 (양측) N
	.036 .259 1007

**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양측).

- 분석 결과 청년의 행복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은 대중문화 이벤트 참여 횟수, 예술 향유 횟수, 그리고 평일과 휴일의 여가시간임. 즉 영화관람, 대중가요 콘서트, 지역 축제 등의 참여 횟수가 높은 청년들이 행복 점수도 높게 나타나며, 평일 및 휴일의 여가 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행복 점수도 높게 나타남
- 반면 예술장르 향유 횟수는 행복감과 상관성이 있지만 그 정도는 높지 않으며, 문화예술 창작 횟수는 청년들의 행복 점수와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 결과는 청년들의 행복감에 문화적 실천이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이 문화적 실천이 양적·질적으로 더 심화되면 행복감도 높아지는 강한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됨

5. 광주광역시의 청년문화 정책 평가

1) 청년 도시 이미지

□ 광주는 청년이 존중받는 도시이다

○ ‘광주는 청년이 존중받는 도시이다’에 대한 광주 청년들의 동의 점수는 3.12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음

- 응답 비율은 보통이 절반 이상인 51.8%였으며, 동의 29.4%, 부정 18.8%였음
- 20대의 동의 점수는 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직업별로는 일반-미취업 집단의 동의 점수가 가장 높았음
- 학력별 동의 점수는 대재 집단이 가장 높았고,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집단 순이었음
- 부모이전소득 집단의 동의 점수는 근로소득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92】 청년 도시 이미지_청년이 존중받는 도시 : 분산분석 (단위: 명, 점, %)

구분		사례수	동의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부정	보통	동의
전체		1,007	3.12	-	18.8	51.8	29.4
연령별	20대	507	3.19	7.512**	15.8	53.3	31.0
	30대	500	3.05		21.8	50.4	27.8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3.20	3.911*	16.0	53.0	30.9
	일반-취업	364	3.04		20.3	54.4	25.3
	활동가	200	3.09		22.0	44.5	33.5
학력별	고졸 이하	161	3.16	10.667***	17.4	49.7	32.9
	대재/휴학/유예	292	3.28		13.7	50.0	36.3
	대졸 이상	554	3.02		21.8	53.4	24.7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3.05	2.584	19.8	54.4	25.8
	300-500만원	390	3.10		20.3	51.8	27.9
	500만원 이상	319	3.20		16.0	49.5	34.5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3.08	6.265*	19.8	51.5	28.7
	부모이전소득	320	3.22		16.6	50.9	32.5

* $p<0.05$, ** $p<0.01$, *** $p<0.001$

□ 광주는 청년의 문화행사가 자주 개최되는 도시이다

○ ‘광주는 청년의 문화행사가 자주 개최되는 도시이다’에 대한 광주 청년들의 동의 점수는 3.21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음

- 응답 비율은 보통 43.3%, 동의 37.7%, 부정 19.0%였음
- 20대의 동의 점수는 30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 동의 점수는 활동가, 일반-미취업, 일반-취업 집단 순으로 낮았음
- 학력별로는 대재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집단 순이었음
- 가구소득별, 소득유형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93】 청년 도시 이미지_청년의 문화행사가 자주 개최되는 도시 : 분산분석
(단위 : 명, 점, %)

구분		사례수	동의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부정	보통	동의
전체		1,007	3.21	-	19.0	43.3	37.7
연령별	20대	507	3.31	14.869***	17.0	40.2	42.8
	30대	500	3.11		21.0	46.4	32.6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3.27	6.228**	16.9	43.1	40.0
	일반-취업	364	3.09		20.9	49.5	29.7
	활동가	200	3.31		20.0	32.5	47.5
학력별	고졸 이하	161	3.25	11.641***	14.9	46.0	39.1
	대재/휴학/유예	292	3.39		13.7	39.0	47.3
	대졸 이상	554	3.10		22.9	44.8	32.3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3.20	1.429	21.1	40.9	37.9
	300-500만원	390	3.17		20.0	44.9	35.1
	500만원 이상	319	3.28		15.7	43.6	40.8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3.19	2.640	19.8	42.7	37.5
	부모이전소득	320	3.29		16.3	42.8	40.9

** $p<0.01$, *** $p<0.001$

□ 광주는 청년 대상 문화행사가 자주 개최되는 도시이다

○ ‘광주는 청년 대상 문화행사가 자주 개최되는 도시이다’에 대한 광주 청년들의 동의 점수는 3.2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음

- 응답 비율은 보통 43.3%, 동의 37.3%, 부정 19.4%였음
- 20대의 동의 점수는 30대에 비해 높았음
- 직업별 동의 점수는 활동가, 일반-미취업, 일반-취업 순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는 대재 집단의 동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순이었음
- 부모이전소득 집단의 동의 점수는 근로소득 집단에 비해 높았음
- 가구소득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94】 청년 도시 이미지_청년 대상 문화행사가 자주 개최되는 도시 : 분산분석
(단위 : 명, 점, %)

구분		사례수	동의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부정	보통	동의
전체		1,007	3.20	-	19.4	43.3	37.3
연령별	20대	507	3.26	4.252*	18.3	41.8	39.8
	30대	500	3.15		20.4	44.8	34.8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3.24	4.485*	17.6	44.0	38.4
	일반-취업	364	3.10		20.6	49.5	29.9
	활동가	200	3.31		21.0	30.5	48.5
학력별	고졸 이하	161	3.24	6.737**	14.9	47.8	37.3
	대재/휴학/유예	292	3.34		13.7	42.5	43.8
	대졸 이상	554	3.12		23.6	42.4	33.9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3.16	.416	20.1	46.0	33.9
	300-500만원	390	3.22		19.0	43.1	37.9
	500만원 이상	319	3.22		19.1	41.1	39.8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3.17	4.203*	21.0	42.9	36.1
	부모이전소득	320	3.29		15.6	43.1	41.3

* $p<0.05$, ** $p<0.01$

□ 광주의 청년 문화는 힘든 일상의 위로가 된다

- ‘광주의 청년 문화는 힘든 일상의 위로가 된다’에 대한 광주 청년들의 동의 점수는 3.0점으로 보통으로 평가함
- 응답 비율은 보통 44.0%, 동의 28.3%, 부정 27.7%였음
-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동의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대졸 이상 집단이 가장 낮았음
- 연령별, 직업별, 가구소득별, 소득유형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95】 청년 도시 이미지_힘든 일상의 위로 : 분산분석 (단위: 명, 점, %)

구분	사례수	동의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부정	보통	동의
전체	1,007	3.00	-	27.7	44.0	28.3
연령별	20대	507	.058	28.0	44.4	27.6
	30대	500		27.4	43.6	29.0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069	26.6	45.1	28.2
	일반-취업	364		27.5	46.2	26.4
	활동가	200		30.5	37.5	32.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5.628**	21.1	44.7	34.2
	대재/휴학/유예	292		26.0	40.4	33.6
	대졸 이상	554		30.5	45.7	23.8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1.759	31.2	40.3	28.5
	300-500만원	390		29.2	45.1	25.6
	500만원 이상	319		22.6	46.1	31.3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001	27.9	42.9	29.2
	부모이전소득	320		26.6	45.9	27.5

** $p < 0.01$

□ 광주는 특색 있는 청년문화를 가진 도시이다

- ‘광주는 특색 있는 청년문화를 가진 도시이다’에 대한 광주 청년들의 동의 점수는 3.06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음
- 응답 비율은 보통 45.3%, 동의 30.6%, 부정 24.1%였음
- 직업별 동의 점수는 일반-미취업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활동가가 가장 낮았음
-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동의 점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연령별, 가구소득별, 소득유형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96】 청년 도시 이미지_특색 있는 청년문화를 가진 도시 : 분산분석 (단위: 명, 점, %)

구분	사례수	동의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부정	보통	동의
전체	1,007	3.06	-	24.1	45.3	30.6
연령별	20대	507	.826	21.9	48.1	30.0
	30대	500		26.4	42.4	31.2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8.965***	19.2	45.6	35.2
	일반-취업	364		26.1	47.0	26.9
	활동가	200		31.5	41.5	27.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4.396*	21.7	42.2	36.0
	대재/휴학/유예	292		20.2	44.5	35.3
	대졸 이상	554		26.9	46.6	26.5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1.390	25.8	46.6	27.5
	300-500만원	390		27.2	40.5	32.3
	500만원 이상	319		18.8	49.8	31.3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1.409	24.3	45.1	30.6
	부모이전소득	320		21.6	45.0	33.4

* $p < 0.05$, *** $p < 0.001$

□ 광주는 청년의 교양 및 의식수준이 높은 도시이다

○ ‘광주는 청년의 교양 및 의식수준이 높은 도시이다’에 대한 광주 청년들의 동의 점수는 3.10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음

- 응답 비율은 보통 47.5%, 동의 31.0%, 부정 21.5%였음.
- 직업별 동의 점수는 일반-미취업 집단이 가장 높고, 활동가가 가장 낮았음
- 학력별 동의 점수는 대재 집단이 가장 높았고, 대졸 이상 집단이 가장 낮았음
-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의 동의 점수는 300만원 미만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모이전소득 집단의 동의 점수는 근로소득 집단에 비해 높았음
- 연령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97】 청년 도시 이미지_청년의 교양 및 의식수준이 높은 도시 : 분산분석
(단위 : 명, 점, %)

구분		사례수	동의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부정	보통	동의
전체		1,007	3.10	-	21.5	47.5	31.0
연령별	20대	507	3.15	2.937	17.8	50.9	31.4
	30대	500	3.06		25.4	44.0	30.6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3.21	6.489**	17.6	47.2	35.2
	일반·취업	364	3.05		22.8	48.9	28.3
	활동가	200	2.97		28.0	45.5	26.5
학력별	고졸 이하	161	3.22	10.963***	16.1	46.6	37.3
	대재/휴학/유예	292	3.26		14.4	47.9	37.7
	대졸 이상	554	2.99		26.9	47.5	25.6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2.99	3.524*	26.2	48.0	25.8
	300-500만원	390	3.15		21.5	45.1	33.3
	500만원 이상	319	3.15		17.2	49.8	32.9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3.07	4.164*	22.0	49.3	28.7
	부모이전소득	320	3.20		18.8	45.3	35.9

* $p<0.05$, ** $p<0.01$, *** $p<0.001$

2) 광주 청년 축제 평가

□ 광주세계청년축제

○ 광주 청년들의 광주세계청년축제 인지율은 절반가량인 51.1%였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23.3%였음

- 참여자들의 만족도 평균은 77.23점으로 만족하는 수준이었음
- 20대와 30대의 인지율은 비슷했으나 참여 경험은 20대가 10%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 인지율과 참여율은 활동가가 가장 높았으며, 일반-미취업, 일반-취업 순이었음
- 학력별로는 대재 집단이 인지율과 참여율이 모두 가장 높았으며, 인지율은 대졸 이상 집단이, 참여율은 고졸 이하 집단이 가장 낮았음
-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인지율이 더 높았으며, 참여율도 높게 나타남
- 근로소득 집단은 부모이전소득 집단에 비해 인지율이 높았으나 참여율은 부모이전소득 집단이 더 높았음

【표 98】 청년 축제 평가_광주세계청년축제 : 분산분석 (단위: 명, 점, %)

구분	사례 수	인지 여부		참여경험		만족도	
		인지	미인지	있음	없음	평균	F
전체	1,007	51.1	48.9	23.3	76.7	77.23	-
연령별	20대	507	52.1	47.9	28.0	72.0	78.85
	30대	500	50.2	49.8	18.6	81.4	74.68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49.4	50.6	24.8	75.2	79.18
	일반-취업	364	44.8	55.2	13.2	86.8	78.96
	활동가	200	66.5	33.5	38.5	61.5	73.41
학력별	고졸 이하	161	50.3	49.7	17.4	82.6	77.14
	대재/휴학/유예	292	56.2	43.8	30.5	69.5	79.72
	대졸 이상	554	48.7	51.3	21.3	78.7	75.35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49.0	51.0	20.1	79.9	71.95
	300-500만원	390	45.9	54.1	22.8	77.2	80.31
	500만원 이상	319	59.6	40.4	27.0	73.0	77.82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52.9	47.1	22.3	77.7	77.02
	부모이전소득	320	49.7	50.3	27.5	72.5	77.78

□ G-POP페스티벌

- 광주 청년들의 G-POP페스티벌 인지율은 23.4%였으며,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7.9%였음
- 참여자들의 만족도 평균은 80.23점으로 만족하는 수준이었음
- 20대는 30대에 비해 G-POP페스티벌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과 참여해본 비율이 더 높았음
- 직업별로는 일반-미취업 집단의 인지율이 가장 높았고, 활동가의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대재 집단과 대졸 이상 집단은 인지율과 참여율이 각각 가장 높았으며, 고졸 이하 집단은 가장 낮은 인지율과 참여율을 보임
-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 집단의 인지율과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만족도 역시 가장 높았음
- 근로소득 집단의 인지율과 참여율은 부모이전소득 집단에 비해 높았고, 만족도도 높게 나타남

【표 99】 청년 축제 평가_G-POP페스티벌 : 분산분석 (단위: 명, 점, %)

구분	사례 수	인지 여부		참여경험		만족도	
		인지	미인지	있음	없음	평균	F
전체	1,007	23.4	76.6	7.9	92.1	80.23	-
연령별	20대	507	25.4	74.6	8.9	91.1	78.33
	30대	500	21.4	78.6	7.0	93.0	82.79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25.3	74.7	7.2	92.8	74.22
	일반-취업	364	20.9	79.1	5.8	94.2	84.29
	활동가	200	24.0	76.0	13.5	86.5	84.19
학력별	고졸 이하	161	14.3	85.7	2.5	97.5	67.50
	대재/휴학/유예	292	26.7	73.3	8.9	91.1	81.69
	대졸 이상	554	24.4	75.6	9.0	91.0	80.48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21.5	78.5	8.1	91.9	76.46
	300-500만원	390	21.0	79.0	6.9	93.1	75.58
	500만원 이상	319	28.2	71.8	9.1	90.9	87.27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24.6	75.4	9.6	90.4	83.61
	부모이전소득	320	22.2	77.8	5.9	94.1	69.37

* $p<0.05$, ** $p<0.01$

□ 광주취업박람회 청년드림페스티벌

- 광주 청년들의 광주취업박람회 청년드림페스티벌 인지율은 24.4%였으며,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9.2%였음
- 참여자들의 만족도 평균은 70.49점으로 다소 만족하는 수준이었음
- 20대는 30대에 비해 높은 인지율은 보였으나, 참여율은 30대가 더 높았음
- 직업별로는 활동가의 인지율과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일반-미취업, 일반-취업 순이었으며, 만족도도 동일한 순서로 높았음
- 학력별로는 대재 집단의 인지율이 가장 높았고, 참여율은 대졸 이상 집단이 가장 높았음
- 근로소득 집단은 부모이전소득 집단에 비해 인지율과 참여율 모두 높게 나타남

【표 100】 청년 축제 평가_광주취업박람회 청년드림페스티벌 : 분산분석
(단위 : 명, %, 점)

구분	사례 수	인지 여부		참여경험		만족도	
		인지	미인지	있음	없음	평균	F
전체	1,007	24.4	75.6	9.2	90.8	70.49	-
연령별	20대	507	25.4	74.6	8.3	91.7	75.19
	30대	500	23.4	76.6	10.2	89.8	66.53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23.0	77.0	7.4	92.6	66.09
	일반-취업	364	15.4	84.6	3.8	96.2	56.93
	활동가	200	44.0	56.0	23.0	77.0	77.81
학력별	고졸 이하	161	13.7	86.3	3.7	96.3	56.67
	대재/휴학/유예	292	29.5	70.5	8.9	91.1	67.46
	대졸 이상	554	24.9	75.1	11.0	89.0	73.28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24.5	75.5	13.1	86.9	69.78
	300-500만원	390	21.0	79.0	7.4	92.6	67.14
	500만원 이상	319	28.5	71.5	7.8	92.2	74.89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25.4	74.6	11.1	88.9	72.44
	부모이전소득	320	23.4	76.6	5.9	94.1	63.68

** $p < 0.01$

3) 청년문화 정책 평가

□ 청년정책 인지도

- 광주광역시 추진하는 청년정책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사업은 ‘광주드림사업’으로 절반에 가까운 46.4%가 인지하고 있었음
- 이어서 ‘세계청년축제 개최’ 35.7%, ‘광주청년센터 The 숲 개관’ 23.9%, ‘G-POP페스티벌’ 17.3%, 순이었음
- 일반-미취업, 일반-취업 집단은 ‘광주드림사업’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반면, 활동가는 ‘세계청년축제 개최’, ‘광주청년센터 The 숲 개관’ 등 활동적인 정책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 고졸 이하 집단과 대졸 이상 집단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광주드림사업’이었으며, 대재 집단은 ‘세계청년축제 개최’의 인지도가 근소하게 더 높았고, 전체 정책 인지도는 대재 집단, 대졸 이상 집단, 고졸 이하 집단 순이었음
-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집단은 ‘광주드림사업’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나 전체 인지도는 가장 낮았음

【표 101】 청년정책 인지도(1-5)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광주드림 사업	세계청년 축제 개최	광주청년 센터 The 숲 개관	G-POP 페스티벌	광주광역시 청년종합 실태조사 실시
전체		1,007	46.4	35.7	23.9	17.3	15.6
연령별	20대	507	45.2	39.1	23.3	19.7	14.5
	30대	500	47.6	32.2	24.4	14.9	16.7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46.5	31.1	18.9	17.2	17.4
	일반-취업	364	46.8	33.0	15.3	19.0	17.1
	활동가	200	45.2	51.8	52.4	14.3	8.3
학력별	고졸 이하	161	57.5	32.2	14.4	16.4	13.0
	대재/휴학/유예	292	40.4	40.8	26.8	15.8	15.8
	대졸 이상	554	46.3	34.0	25.1	18.3	16.3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47.5	39.2	22.3	18.9	11.7
	300-500만원	390	42.0	27.7	25.4	17.7	23.7
	500만원 이상	319	50.7	42.2	23.4	15.2	9.2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46.1	36.6	24.8	18.2	15.3
	부모이전소득	320	48.0	34.5	21.5	14.5	16.0

【표 102】 청년정책 인지도(6-11)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과 설치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위원회 운영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조례 제정	청년문화 기획자 양성사업 (유망주)	청년 예술인 지원센터 개관	지역 예술인 지원사업 청년 쿼터제
전체	1,007	12.7	12.4	9.3	7.8	4.6	3.2
연령별							
20대	507	11.9	14.8	8.7	10.1	5.8	2.7
30대	500	13.6	10.0	9.8	5.6	3.3	3.8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10.9	12.7	9.5	5.2	3.7	2.7
일반-취업	364	10.1	12.2	8.0	6.1	3.4	3.4
활동가	200	22.0	11.9	11.3	17.3	8.9	4.2
학력별							
고졸 이하	161	8.2	7.5	8.2	5.5	4.1	2.1
대재/휴학/유예	292	15.8	15.1	13.2	9.1	3.8	2.3
대졸 이상	554	12.3	12.3	7.4	7.8	5.1	4.1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10.6	12.1	10.2	7.5	6.0	4.2
300-500만원	390	14.3	15.1	10.3	7.4	3.7	2.9
500만원 이상	319	12.8	9.2	7.1	8.5	4.3	2.8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13.8	14.1	10.2	8.2	3.7	3.7
부모이전소득	320	10.2	8.7	7.6	6.9	6.2	1.8

□ 청년정책 우수 분야

- 청년정책 중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한 정책은 ‘청년축제개최(21.2%)’였으며, 이어서 ‘청년인력양성(16.4%)’, ‘청년전담부서 신설(11.5%)’, ‘청년지원정책(9.6%)’ 순이었음.
- 20대는 ‘청년축제개최’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30대는 ‘청년인력양성’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일반-미취업 집단과 활동가 집단은 ‘청년축제개최’, 일반-취업 집단은 ‘청년인력양성’을 각각 가장 많이 응답함
- 고졸 이하 집단이 우수한 정책이라고 평가한 정책은 ‘청년인력양성’인 반면, 대재 집단과 대졸 이상 집단은 ‘청년축제개최’로 나타남
- 부모이전소득 집단은 ‘청년축제개최’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근로소득 집단은 ‘청년인력양성’의 응답 비율이 부모이전소득 집단에 비해 높았음

【표 103】 청년정책 우수 분야(1-5)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청년 축제 개최	청년인력 양성	청년 전담부서 신설	청년지원 정책	법령 및 제도적 장치 마련
전체	1,007	21.2	16.4	11.5	9.6	7.6
연령별						
20대	507	24.3	13.8	11.4	10.8	6.5
30대	500	18.0	19.0	11.6	8.4	8.8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20.8	14.9	13.3	7.9	8.8
일반-취업	364	17.6	22.0	9.3	8.8	8.0
활동가	200	28.5	9.5	11.5	15.0	4.5
학력별						
고졸 이하	161	13.0	23.6	10.6	10.6	8.1
대재/휴학/유예	292	25.7	14.0	11.0	8.9	5.8
대졸 이상	554	21.1	15.5	12.1	9.7	8.5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20.5	17.8	13.4	11.4	7.4
300-500만원	390	19.5	15.6	12.3	8.5	8.7
500만원 이상	319	23.8	16.0	8.8	9.4	6.6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19.3	18.2	11.5	11.0	6.4
부모이전소득	320	24.7	11.6	12.5	7.2	10.3

【표 104】 청년정책 우수 분야(6-11)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청년지원 기관 설치	청년정책 연구 조사	청년 위원회 운영	청년 공간 확충	문화 예술 분야 청년 취업 지원	기타
전체	1,007	7.3	6.3	6.0	4.9	3.1	6.2
연령별							
20대	507	6.5	5.7	5.9	4.3	4.1	6.5
30대	500	8.2	6.8	6.0	5.4	2.0	5.8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7.0	6.8	5.9	3.4	4.7	6.5
일반-취업	364	6.3	6.6	7.4	6.3	1.9	5.8
활동가	200	10.0	4.5	3.5	5.5	1.5	6.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5.0	6.2	8.7	4.3	4.3	5.6
대재/휴학/유예	292	8.2	5.8	5.8	5.5	4.1	5.1
대졸 이상	554	7.6	6.5	5.2	4.7	2.2	6.9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6.4	2.7	5.0	5.0	2.0	8.4
300-500만원	390	6.7	7.9	6.4	5.1	4.1	5.1
500만원 이상	319	9.1	7.5	6.3	4.4	2.8	5.3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7.5	6.4	5.3	5.5	3.3	5.5
부모이전소득	320	7.5	4.7	7.2	4.4	2.8	7.2

□ 청년정책 성과 평가

○ 청년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 점수는 2.88점으로 기준점보다 낮았음

- 응답 비율은 보통이 절반 이상인 70.2%였으며, 불만족 19.6%, 만족 10.2%였음
- 직업별 평가 점수는 일반-취업, 일반-미취업, 활동가 순으로 낮은 경향을 보임
- 대졸 이상의 평가 점수는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음
- 연령별, 가구소득별, 소득유형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105】 청년정책 성과 평가 : 분산분석

(단위 : 명, 점, %)

구분	사례수	평가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불만족	보통	만족
전체	1,007	2.88	-	19.6	70.2	10.2
연령별						
20대	507	2.91	2.442	17.8	71.2	11.0
30대	500	2.85		21.4	69.2	9.4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2.90	5.096**	17.4	72.0	10.6
일반-취업	364	2.93		14.8	76.6	8.5
활동가	200	2.76		33.0	54.5	12.5
학력별						
고졸 이하	161	2.97	3.271*	11.2	79.5	9.3
대재/휴학/유예	292	2.92		17.5	71.2	11.3
대졸 이상	554	2.84		23.1	67.0	9.9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2.83	2.058	22.1	69.1	8.7
300-500만원	390	2.93		19.2	67.4	13.3
500만원 이상	319	2.88		17.6	74.6	7.8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2.90	.709	18.7	70.6	10.7
부모이전소득	320	2.86		20.0	70.0	10.0

* $p < 0.05$, ** $p < 0.01$

4)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향

(1) 청년문화예술 향유 활성화 방안

□ 관람비용을 낮춘다

- 청년문화예술 향유 활성화를 위해 ‘관람비용을 낮춘다’에 대한 청년들의 동의 점수는 3.95점으로 높은 동의를 보임
 - 응답 비율은 동의합이 절반 이상인 71.1%였으며, 보통 20.9%, 동의안함 8.0%였음
 - 직업별로는 일반-취업, 일반-미취업 집단은 4점대로 동의하였으나 활동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3점대 중반으로 동의함
 - 학력별 동의 점수는 고졸 이하 집단에서 가장 높았음
 -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집단의 동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집단 순이었음
 - 연령별, 소득유형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106】 청년문화예술 향유 활성화_관람비용을 낮춘다 : 분산분석 (단위: 명 점 %)

구분	사례수	동의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동의 안함	보통	동의함
전체	1,007	3.95	-	8.0	20.9	71.1
연령별	20대	507	2.679	7.1	23.9	69.0
	30대	500		9.0	17.8	73.2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12.827***	6.3	21.7	72.0
	일반-취업	364		8.8	18.1	73.1
	활동가	200		10.5	24.0	65.5
학력별	고졸 이하	161	8.583***	6.8	13.7	79.5
	대재/휴학/유예	292		9.6	22.3	68.2
	대졸 이상	554		7.6	22.2	70.2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10.713***	6.0	20.8	73.2
	300-500만원	390		13.1	20.8	66.2
	500만원 이상	319		3.8	21.0	75.2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3.593	8.9	21.5	69.5
	부모이전소득	320		6.6	18.4	75.0

*** $p < 0.001$

□ 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열려야 한다

○ 청년문화예술 향유 활성화를 위해 ‘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열려야 한다’에 대한 청년들의 동의 점수는 3.48점으로 동의하고 있음

- 응답 비율은 동의함이 절반가량인 50.7%였으며, 보통 34.4%, 동의안함 14.9%였음
- 직업별 동의 점수는 활동가가 가장 높았으며, 일반-취업 집단이 가장 낮았음
-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동의 점수는 높았음
- 연령별, 가구소득별, 소득유형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107】 청년문화예술 향유 활성화_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열려야 한다 : 분산분석
(단위 : 명, 점, %)

구분	사례수	동의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동의 안함	보통	동의함
전체	1,007	3.48	-	14.9	34.4	50.7
연령별	20대	507	2.291	11.6	37.7	50.7
	30대	500		18.2	31.0	50.8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9.349***	13.1	33.4	53.5
	일반-취업	364		21.2	35.2	43.7
	활동가	200		7.5	35.0	57.5
학력별	고졸 이하	161	6.969**	24.8	33.5	41.6
	대재/휴학/유예	292		13.7	37.3	49.0
	대졸 이상	554		12.6	33.0	54.3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1.965	13.1	31.2	55.7
	300-500만원	390		17.2	35.9	46.9
	500만원 이상	319		13.8	35.4	50.8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137	15.4	33.9	50.7
	부모이전소득	320		14.4	34.1	51.6

** $p < 0.01$, *** $p < 0.001$

□ 행사를 더욱 자주 개최한다

○ 청년문화예술 향유 활성화를 위해 ‘행사를 더욱 자주 개최한다’에 대한 청년들의 동의 점수는 3.53점으로 다소 높은 동의를 보임

- 응답 비율은 동의함이 절반 이상인 52.0%였으며, 보통 36.8%, 동의안함 11.1%였음
- 학력이 높을수록 동의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연령별, 직업별, 가구소득별, 소득유형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108】 청년문화예술 향유 활성화_행사를 더욱 자주 개최한다 : 분산분석
(단위 : 명, 점, %)

구분	사례수	동의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동의 안함	보통	동의함
전체	1,007	3.53	-	11.1	36.8	52.0
연령별	20대	507	.000	11.0	37.1	51.9
	30대	500		11.2	36.6	52.2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989	11.7	38.4	49.9
	일반-취업	364		9.3	40.4	50.3
	활동가	200		13.0	27.0	60.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3.591*	11.8	49.1	39.1
	대재/휴학/유예	292		13.4	33.6	53.1
	대졸 이상	554		9.7	35.0	55.2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053	11.4	35.6	53.0
	300-500만원	390		12.3	36.4	51.3
	500만원 이상	319		9.4	38.6	52.0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2.859	9.4	36.7	53.8
	부모이전소득	320		15.3	35.9	48.8

* $p < 0.05$

□ 청년의 흥미를 유발할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 청년문화예술 향유 활성화를 위해 ‘청년의 흥미를 유발할 프로그램을 기획한다’에 대한 청년들의 동의 점수는 3.86점으로 높은 동의를 보임
 - 응답 비율은 동의함이 절반 이상인 66.2%였으며, 보통 27.3%, 동의안함 6.5%였음
 - 20대의 동의 점수는 30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활동가의 동의 점수가 4점대로 가장 높았음
 - 학력별 동의 점수는 대재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고졸 이하 집단이 가장 낮았음
 - 가구소득별, 소득유형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109】 청년문화예술 향유 활성화_청년의 흥미를 유발할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 분산분석
(단위 : 명, 점, %)

구분		사례수	동의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동의 안함	보통	동의함
전체		1,007	3.86	-	6.5	27.3	66.2
연령별	20대	507	3.94	8.581**	5.3	25.5	69.2
	30대	500	3.77		7.6	29.2	63.2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3.80	24.115***	7.4	29.6	63.0
	일반-취업	364	3.72		6.9	34.9	58.2
	활동가	200	4.24		3.5	8.5	87.9
학력별	고졸 이하	161	3.59	9.299***	5.0	47.2	47.8
	대재/휴학/유예	292	3.96		7.2	21.6	71.2
	대졸 이상	554	3.88		6.5	24.6	68.9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3.89	.268	7.0	24.8	68.1
	300-500만원	390	3.84		6.9	28.0	65.0
	500만원 이상	319	3.86		5.3	28.8	65.8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3.84	.757	6.6	28.1	65.3
	부모이전소득	320	3.89		6.6	25.4	68.0

** $p<0.01$, *** $p<0.001$

□ 문화공간이 많아져야 한다

- 청년문화예술 향유 활성화를 위해 ‘문화공간이 많아져야 한다’에 대한 청년들의 동의 점수는 3.84점으로 높은 동의를 보임
 - 응답 비율은 동의함이 절반 이상인 66.6%였으며, 보통 26.5%, 동의안함 6.9%였음
 - 직업별로는 활동가의 동의 점수가 4점대로 가장 높았음
 -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의 동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고졸 이하의 동의 점수가 가장 낮았음
 - 가구소득별, 소득유형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110】 청년문화예술 향유 활성화_문화공간이 많아져야 한다 : 분산분석
(단위 : 명, 점, %)

구분		사례수	동의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동의 안함	보통	동의함
전체		1,007	3.84	-	6.9	26.5	66.6
연령별	20대	507	3.89	2.813	5.7	26.2	68.0
	30대	500	3.80		8.0	26.8	65.2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3.77	15.933***	8.1	29.3	62.5
	일반-취업	364	3.77		7.1	29.1	63.7
	활동가	200	4.16		3.5	15.5	81.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3.65	4.872**	5.0	39.8	55.3
	대재/휴학/유예	292	3.86		7.9	25.0	67.1
	대졸 이상	554	3.89		6.9	23.5	69.7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3.86	.045	6.7	27.9	65.4
	300-500만원	390	3.84		6.9	26.9	66.2
	500만원 이상	319	3.84		6.9	24.8	68.3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3.83	.004	6.6	27.5	65.9
	부모이전소득	320	3.84		7.5	25.6	66.9

** $p<0.01$, *** $p<0.001$

□ 행사홍보와 정보가 많아져야 한다

- 청년문화예술 향유 활성화를 위해 ‘행사홍보와 정보가 많아져야 한다’에 대한 청년들의 동의 점수는 3.86점으로 높은 동의를 보임
 - 응답 비율은 동의함이 절반 이상인 65.5%였으며, 보통 28.2%, 동의안함 6.3%였음
 - 20대의 동의 점수는 30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활동가의 동의 점수가 4점대로 가장 높았음
 - 학력별 동의 점수는 대재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고졸 이하 집단이 가장 낮았음
 - 가구소득별, 소득유형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111】 청년문화예술 향유 활성화_행사홍보와 정보가 많아져야 한다 : 분산분석
(단위 : 명, 점, %)

구분	사례수	동의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동의 안함	보통	동의함
전체	1,007	3.86	-	6.3	28.2	65.5
연령별	20대	507	5.753*	4.7	27.0	68.2
	30대	500		7.8	29.4	62.8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25.552***	7.4	30.9	61.6
	일반-취업	364		7.1	33.5	59.3
	활동가	200		2.0	12.5	85.5
학력별	고졸 이하	161	6.635**	3.7	42.2	54.0
	대재/휴학/유예	292		5.5	26.0	68.5
	대졸 이상	554		7.4	25.3	67.3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008	6.7	27.9	65.4
	300-500만원	390		7.2	27.4	65.4
	500만원 이상	319		4.7	29.5	65.8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2.121	6.3	29.2	64.5
	부모이전소득	320		6.6	25.6	67.8

* $p<0.05$, ** $p<0.01$, *** $p<0.001$

□ 이해하기 쉬운 행사가 많아져야 한다

- 청년문화예술 향유 활성화를 위해 ‘이해하기 쉬운 행사가 많아져야 한다’에 대한 청년들의 동의 점수는 3.80점으로 높은 동의를 보임
 - 응답 비율은 동의함이 절반 이상인 63.6%, 보통 30.1%, 동의안함 6.4%였음
 - 직업별로는 활동가의 동의 점수가 4점대로 가장 높았음
 - 연령별, 학력별, 가구소득별, 소득유형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112】 청년문화예술 향유 활성화_이해하기 쉬운 행사가 많아져야 한다 : 분산분석
(단위 : 명, 점, %)

구분	사례수	동의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동의 안함	보통	동의함
전체	1,007	3.80	-	6.4	30.1	63.6
연령별	20대	507	.535	6.3	29.8	63.9
	30대	500		6.4	30.4	63.2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10.634***	7.7	34.3	58.0
	일반-취업	364		6.0	32.1	61.8
	활동가	200		4.0	17.0	79.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2.217	6.8	36.6	56.5
	대재/휴학/유예	292		5.8	30.5	63.7
	대졸 이상	554		6.5	28.0	65.5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112	6.7	26.5	66.8
	300-500만원	390		7.4	31.0	61.5
	500만원 이상	319		4.7	32.3	63.0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028	6.6	29.2	64.2
	부모이전소득	320		6.3	30.9	62.8

*** $p<0.001$

□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인다

- 청년문화예술 향유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인다’에 대한 청년들의 동의 점수는 3.67점으로 다소 높은 동의를 함
- 응답 비율은 동의함이 절반 이상인 56.8%, 보통 35.1%, 동의안함 8.1%였음
- 직업별로는 활동가의 동의 점수가 4점대로 가장 높았음
- 연령별, 학력별, 가구소득별, 소득유형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113】 청년문화예술 향유 활성화_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인다 : 분산분석
(단위 : 명, 점, %)

구분		사례수	동의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동의안함	보통	동의함
전체		1,007	3.67	-	8.1	35.1	56.8
연령별	20대	507	3.64	1.229	9.7	34.9	55.4
	30대	500	3.70		6.6	35.2	58.2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3.58	25.116***	9.9	40.0	50.1
	일반-취업	364	3.57		9.3	37.1	53.6
	활동가	200	4.07		2.0	20.5	77.5
학력별	고졸 이하	161	3.56	1.666	7.5	43.5	49.1
	대재/휴학/유예	292	3.66		8.9	34.2	56.8
	대졸 이상	554	3.71		7.9	33.0	59.0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3.65	.194	9.7	34.6	55.7
	300-500만원	390	3.66		7.9	35.6	56.4
	500만원 이상	319	3.70		6.9	34.8	58.3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3.67	.000	7.8	35.2	57.0
	부모이전소득	320	3.67		8.8	35.3	55.9

*** $p < 0.001$

□ 할인방법과 혜택을 늘린다

- 청년문화예술 향유 활성화를 위해 ‘할인방법과 혜택을 늘린다’에 대한 청년들의 동의 점수는 4.09점으로 매우 높은 동의를 함
- 응답 비율은 동의함이 절반 이상인 75.0%, 보통 19.6%, 동의안함 5.5%였음
- 가구소득별로는 300-500만원 집단의 동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음
- 연령별, 직업별, 학력별, 소득유형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114】 청년문화예술 향유 활성화_할인방법과 혜택을 늘린다 : 분산분석
(단위 : 명, 점, %)

구분		사례수	동의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동의안함	보통	동의함
전체		1,007	4.09	-	5.5	19.6	75.0
연령별	20대	507	4.05	1.616	4.5	22.1	73.4
	30대	500	4.13		6.4	17.0	76.6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4.05	1.205	5.9	21.4	72.7
	일반-취업	364	4.15		4.7	19.8	75.5
	활동가	200	4.06		6.0	15.0	79.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4.20	1.774	4.3	18.0	77.6
	대재/휴학/유예	292	4.10		4.8	21.6	73.6
	대졸 이상	554	4.05		6.1	19.0	74.9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4.12	4.612*	5.4	17.8	76.8
	300-500만원	390	3.98		6.9	22.6	70.5
	500만원 이상	319	4.18		3.8	17.6	78.7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4.10	.012	5.0	20.3	74.7
	부모이전소득	320	4.09		6.3	17.2	76.6

* $p < 0.05$,

□ 더 많은 창작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 청년문화예술 향유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창작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에 대한 청년들의 동의 점수는 3.86점으로 높은 동의를 함

- 응답 비율은 동의함이 절반 이상인 67.6%였으며, 보통 26.0%, 동의안함 6.4%였음
- 직업별로는 활동가의 동의 점수가 4점대로 가장 높았음
- 연령별, 학력별, 가구소득별, 소득유형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115】 청년문화예술 향유 활성화_더 많은 창작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 분산분석 (단위 : 명, 점, %)

구분		사례수	동의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동의안함	보통	동의함
전체		1,007	3.86	-	6.4	26.0	67.6
연령별	20대	507	3.82	1.508	5.9	30.0	64.1
	30대	500	3.89		6.8	22.0	71.2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3.76	17.979***	8.1	30.0	61.9
	일반-취업	364	3.80		5.5	28.3	66.2
	활동가	200	4.18		4.0	13.0	83.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3.83	1.435	5.0	27.3	67.7
	대재/휴학/유예	292	3.79		7.2	29.8	63.0
	대졸 이상	554	3.90		6.3	23.6	70.0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3.86	.722	8.1	23.5	68.5
	300-500만원	390	3.82		6.9	27.4	65.6
	500만원 이상	319	3.90		4.1	26.6	69.3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3.89	2.592	5.5	24.8	69.7
	부모이전소득	320	3.79		8.4	27.2	64.4

*** $p < 0.001$

(2) 청년문화 활성화 방안

□ 청년 문화공간 조성

○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년 문화공간 조성’의 중요도 점수는 3.39점으로 기준점보다는 높았으나 보통 수준이었음

- 응답 비율은 보통 46.6%, 중요함 42.8%, 중요하지 않음 10.6%였음
- 직업별로는 활동가의 중요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 중요도 점수는 대재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대졸 이상, 고졸 이하 집단 순이었음
- 연령별, 가구소득별, 소득유형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116】 청년문화 활성화_청년 문화공간 조성 : 분산분석 (단위 : 명, 점, %)

구분		사례수	중요도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전체		1,007	3.39	-	10.6	46.6	42.8
연령별	20대	507	3.42	1.095	10.3	45.6	44.2
	30대	500	3.36		11.0	47.6	41.4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3.36	13.128***	9.0	51.2	39.7
	일반-취업	364	3.29		10.7	55.8	33.5
	활동가	200	3.65		14.0	19.5	66.5
학력별	고졸 이하	161	3.28	3.273*	9.3	59.6	31.1
	대재/휴학/유예	292	3.48		9.6	41.8	48.6
	대졸 이상	554	3.38		11.6	45.3	43.1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3.40	.186	10.1	48.0	41.9
	300-500만원	390	3.37		12.8	43.6	43.6
	500만원 이상	319	3.41		8.5	48.9	42.6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3.38	.018	11.5	46.2	42.4
	부모이전소득	320	3.39		10.0	47.5	42.5

* $p < 0.05$, *** $p < 0.001$

□ 청년 문화예술 향유 비용 지원 및 청년 할인혜택 확대

○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년 문화예술 향유 비용 지원 및 청년 할인혜택 확대’의 중요도 점수는 3.62점으로 다소 중요하다고 생각함

- 응답 비율은 중요함이 절반 이상인 52.7%였으며, 보통 39.9%, 중요하지 않음 7.3%였음
- 직업별 중요도 점수는 활동가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 학력별로는 대재 집단의 중요도 점수가 가장 높았고, 고졸 이하가 가장 낮았음
- 연령별, 가구소득별, 소득유형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117】 청년문화 활성화_문화예술 향유 비용 지원·할인혜택 확대 : 분산분석
(단위 : 명, 점, %)

구분		사례수	중요도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전체		1,007	3.62	-	7.3	39.9	52.7
연령별	20대	507	3.64	.284	8.1	37.1	54.8
	30대	500	3.61		6.6	42.8	50.6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3.58	9.531***	6.1	44.5	49.4
	일반-취업	364	3.55		6.6	47.8	45.6
	활동가	200	3.86		11.5	15.5	73.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3.48	3.301*	2.5	59.6	37.9
	대재/휴학/유예	292	3.70		5.8	38.0	56.2
	대졸 이상	554	3.62		9.6	35.2	55.2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3.69	1.781	8.7	33.9	57.4
	300-500만원	390	3.57		7.9	41.8	50.3
	500만원 이상	319	3.63		5.3	43.3	51.4
	소득 유형별	637	3.59		8.3	40.3	51.3
		320	3.66	1.237	6.3	39.1	54.7

* $p < 0.05$, *** $p < 0.001$

□ 청년문화 기획자 지원 및 양성 사업

○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년문화 기획자 지원 및 양성 사업’의 중요도 점수는 3.49점으로 다소 중요하다고 생각함

- 응답 비율은 중요함 47.0%, 보통 43.8%, 중요하지 않음 9.2%였음
- 직업별 중요도 점수는 활동가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 연령별, 학력별, 가구소득별, 소득유형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118】 청년문화 활성화_청년문화 기획자 지원 및 양성 사업 : 분산분석
(단위 : 명, 점, %)

구분		사례수	중요도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전체		1,007	3.49	-	9.2	43.8	47.0
연령별	20대	507	3.51	.584	8.3	43.4	48.3
	30대	500	3.47		10.2	44.2	45.6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3.44	11.720***	8.8	47.6	43.6
	일반-취업	364	3.41		9.9	48.6	41.5
	활동가	200	3.75		9.0	26.5	64.5
학력별	고졸 이하	161	3.38	2.634	5.0	59.6	35.4
	대재/휴학/유예	292	3.57		7.5	41.1	51.4
	대졸 이상	554	3.49		11.4	40.6	48.0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3.47	.162	11.4	42.6	46.0
	300-500만원	390	3.51		10.0	41.3	48.7
	500만원 이상	319	3.50		6.3	48.0	45.8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3.52	1.416	9.7	41.9	48.4
	부모이전소득	320	3.45		8.4	47.8	43.8

*** $p < 0.001$

□ 청년문화단체 및 동호회 지원사업 확대

○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년문화단체 및 동호회 지원사업 확대’의 중요도 점수는 3.48점으로 다수 중요하다고 생각함

- 응답 비율은 중요함 46.3%, 보통 44.2%, 중요하지 않음 9.5%였음
- 직업별 중요도 점수는 활동가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 근로소득 집단의 중요도 점수는 부모이전소득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령별, 학력별, 가구소득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119】 청년문화 활성화_청년문화단체 및 동호회 지원사업 확대 : 분산분석
(단위 : 명, 점, %)

구분		사례수	중요도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전체		1,007	3.48	-	9.5	44.2	46.3
연령별	20대	507	3.49	.099	8.3	45.8	46.0
	30대	500	3.48		10.8	42.6	46.6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3.40	15.244***	11.1	47.2	41.8
	일반-취업	364	3.43		9.9	47.3	42.9
	활동가	200	3.78		5.5	32.0	62.5
학력별	고졸 이하	161	3.39	1.136	6.8	55.9	37.3
	대재/휴학/유예	292	3.50		9.9	43.5	46.6
	대졸 이상	554	3.51		10.1	41.2	48.7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3.53	.512	9.4	41.3	49.3
	300-500만원	390	3.47		11.3	42.3	46.4
	500만원 이상	319	3.46		7.5	49.2	43.3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3.53	6.607*	9.1	42.1	48.8
	부모이전소득	320	3.38		11.6	46.9	41.6

* $p<0.05$, *** $p<0.001$

□ 예술인 창작지원사업의 청년쿼터제 확대

○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 창작지원사업의 청년쿼터제 확대’의 중요도 점수는 3.39점으로 기준점보다 높았으나 보통 수준이었음

- 응답 비율은 보통 48.3%, 중요함 41.4%, 중요하지 않음 10.3%였음
- 직업별 중요도 점수는 활동가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 연령별, 학력별, 가구소득별, 소득유형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120】 청년문화 활성화_예술인 창작지원사업의 청년쿼터제 확대 : 분산분석
(단위 : 명, 점, %)

구분		사례수	중요도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전체		1,007	3.39	-	10.3	48.3	41.4
연령별	20대	507	3.39	.004	10.3	47.7	42.0
	30대	500	3.40		10.4	48.8	40.8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3.33	15.799***	12.0	49.7	38.4
	일반-취업	364	3.31		11.0	53.0	36.0
	활동가	200	3.69		5.5	36.5	58.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3.34	.481	7.5	57.1	35.4
	대재/휴학/유예	292	3.41		12.3	43.2	44.5
	대졸 이상	554	3.40		10.1	48.4	41.5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3.40	.997	10.1	50.0	39.9
	300-500만원	390	3.35		13.3	44.4	42.3
	500만원 이상	319	3.44		6.9	51.4	41.7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3.41	1.032	10.7	46.3	43.0
	부모이전소득	320	3.35		10.9	50.6	38.4

*** $p<0.001$

□ 청년문화단체 활동가 경비 지원

-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년문화단체 활동가 경비 지원’의 중요도 점수는 3.56점으로 다소 중요하다고 생각함
- 응답 비율은 중요함이 절반 이상인 51.4%였으며, 보통 39.3%, 중요하지 않음 9.2%였음
- 직업별 중요도 점수는 활동가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 가구소득이 300만원 미만 집단의 중요도 점수는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 학력별, 소득유형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121】 청년문화 활성화_청년문화단체 활동가 경비 지원 : 분산분석
(단위 : 명, 점, %)

구분		사례수	중요도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전체		1,007	3.56	-	9.2	39.3	51.4
연령별	20대	507	3.56	.011	8.3	39.8	51.9
	30대	500	3.57		10.2	38.8	51.0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3.47	25.546***	9.9	46.3	43.8
	일반-취업	364	3.47		9.9	42.9	47.3
	활동가	200	3.95		6.5	17.5	76.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3.47	1.077	6.8	49.7	43.5
	대재/휴학/유예	292	3.59		11.3	34.6	54.1
	대졸 이상	554	3.57		8.8	38.8	52.3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3.68	4.019*	6.0	37.6	56.4
	300-500만원	390	3.50		13.3	36.4	50.3
	500만원 이상	319	3.53		7.2	44.5	48.3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3.59	1.743	8.5	38.8	52.7
	부모이전소득	320	3.51		10.9	40.0	49.1

*** $p < 0.001$

□ 청년축제 확대 및 다양화

-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년축제 확대 및 다양화’의 중요도 점수는 3.61점으로 다소 중요하다고 생각함
- 응답 비율은 중요함이 절반 이상인 55.0%였으며, 보통 36.6%, 중요하지 않음 8.3%였음
- 직업별 중요도 점수는 활동가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 연령별, 학력별, 가구소득별, 소득유형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122】 청년문화 활성화_청년축제 확대 및 다양화 : 분산분석
(단위 : 명, 점, %)

구분		사례수	중요도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전체		1,007	3.61	-	8.3	36.6	55.0
연령별	20대	507	3.65	1.398	7.5	35.3	57.2
	30대	500	3.58		9.2	38.0	52.8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3.55	15.889***	8.1	41.8	50.1
	일반-취업	364	3.52		9.3	41.5	49.2
	활동가	200	3.92		7.0	16.5	76.5
학력별	고졸 이하	161	3.48	2.386	7.5	48.4	44.1
	대재/휴학/유예	292	3.63		8.6	36.0	55.5
	대졸 이상	554	3.65		8.5	33.6	57.9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3.68	1.459	9.7	32.2	58.1
	300-500만원	390	3.61		8.7	34.9	56.4
	500만원 이상	319	3.56		6.6	42.9	50.5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3.62	.449	8.8	34.5	56.7
	부모이전소득	320	3.58		8.4	40.6	50.9

*** $p < 0.001$

□ 청년 대상 문화예술 교육기회 확대

○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년 대상 문화예술 교육기회 확대’의 중요도 점수는 3.59점으로 다소 중요하다고 생각함

- 응답 비율은 중요함이 절반 이상인 52.4%였으며, 보통 40.2%, 중요하지 않음 7.3%였음
- 직업별 중요도 점수는 활동가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 고졸 이하의 집단의 중요도 점수는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음
- 연령별, 가구소득별, 소득유형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123】 청년문화 활성화_청년 대상 문화예술 교육기회 확대 : 분산분석

(단위 : 명, 점, %)

구분	사례수	중요도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전체	1,007	3.59	-	7.3	40.2	52.4
연령별	20대	507	1.151	6.1	40.2	53.6
	30대	500		8.6	40.2	51.2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25.161***	8.1	44.2	47.6
	일반-취업	364		8.5	45.6	45.9
	활동가	200		3.5	21.5	75.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3.502*	6.2	53.4	40.4
	대재/휴학/유예	292		7.2	38.4	54.5
	대졸 이상	554		7.8	37.4	54.9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155	8.1	38.6	53.4
	300-500만원	390		8.5	37.9	53.6
	500만원 이상	319		5.3	44.5	50.2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000	8.0	39.4	52.6
	부모이전소득	320		6.9	41.3	51.9

* $p < 0.05$, *** $p < 0.001$

□ 청년 해외문화교류 지원 확대

○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년 해외문화교류 지원 확대’의 중요도 점수는 3.54점으로 다소 중요하다고 생각함

- 응답 비율은 중요함 49.8%, 보통 40.8%, 중요하지 않음 9.4%였음
- 직업별 중요도 점수는 활동가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 고졸 이하의 집단의 중요도 점수는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음
- 연령별, 가구소득별, 소득유형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124】 청년문화 활성화_청년 해외문화교류 지원 확대 : 분산분석

(단위 : 명, 점, %)

구분	사례수	중요도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전체	1,007	3.54	-	9.4	40.8	49.8
연령별	20대	507	1.992	8.3	39.3	52.5
	30대	500		10.6	42.4	47.0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17.660***	10.2	45.6	44.2
	일반-취업	364		9.1	46.7	44.2
	활동가	200		8.5	19.5	72.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6.721**	9.3	56.5	34.2
	대재/휴학/유예	292		10.6	35.6	53.8
	대졸 이상	554		8.8	39.0	52.2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276	11.1	38.6	50.3
	300-500만원	390		9.7	40.3	50.0
	500만원 이상	319		7.5	43.6	48.9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2.219	8.8	39.2	52.0
	부모이전소득	320		11.6	42.2	46.3

** $p < 0.01$, *** $p < 0.001$

□ 청년 문화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년 문화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의 중요도 점수는 3.50점으로 다소 중요하다고 생각함

- 응답 비율은 중요함 47.0%, 보통 44.6%, 중요하지 않음 8.4%였음
- 직업별 중요도 점수는 활동가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집단의 중요도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대재, 고졸 이하 집단 순이었음
- 연령별, 가구소득별, 소득유형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125】 청년문화 활성화_청년 문화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 분산분석

(단위 : 명, 점, %)

구분	사례수	중요도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전체	1,007	3.50	-	8.4	44.6	47.0
연령별	20대	507	1.031	7.7	43.8	48.5
	30대	500		9.2	45.4	45.4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18.981***	10.4	47.4	42.2
	일반-취업	364		8.5	49.2	42.3
	활동가	200		4.0	30.0	66.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5.791**	8.1	57.8	34.2
	대재/휴학/유예	292		9.9	44.2	45.9
	대졸 이상	554		7.8	41.0	51.3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291	8.7	44.0	47.3
	300-500만원	390		9.5	41.5	49.0
	500만원 이상	319		6.9	48.9	44.2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1.735	8.5	41.6	49.9
	부모이전소득	320		9.1	49.1	41.9

** $p < 0.01$, *** $p < 0.001$

□ 청년문화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년문화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의 중요도 점수는 3.50점으로 다소 중요하다고 생각함

- 응답 비율은 중요함 47.4%, 보통 43.2%, 중요하지 않음 9.4%였음
- 직업별 중요도 점수는 활동가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집단의 중요도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대재, 고졸 이하 집단 순이었음
- 연령별, 가구소득별, 소득유형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126】 청년문화 활성화_청년문화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 분산분석

(단위 : 명, 점, %)

구분	사례수	중요도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전체	1,007	3.50	-	9.4	43.2	47.4
연령별	20대	507	.829	9.1	41.8	49.1
	30대	500		9.8	44.6	45.6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30.188***	10.8	47.0	42.2
	일반-취업	364		10.4	48.4	41.2
	활동가	200		4.5	25.5	70.0
학력별	고졸 이하	161	3.201*	8.1	55.3	36.6
	대재/휴학/유예	292		10.3	41.1	48.6
	대졸 이상	554		9.4	40.8	49.8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154	10.1	44.3	45.6
	300-500만원	390		10.3	40.0	49.7
	500만원 이상	319		7.8	46.1	46.1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3.787	8.6	41.4	49.9
	부모이전소득	320		11.3	45.9	42.8

* $p < 0.05$, *** $p < 0.001$

□ 청년문화 지원 전담기구 설치

○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년문화 지원 전담기구 설치’의 중요도 점수는 3.52점으로 다소 중요하다고 생각함

- 응답 비율은 중요함 48.9%, 보통 41.7%, 중요하지 않음 9.4%였음
- 직업별 중요도 점수는 활동가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 근로소득 집단의 중요도 점수는 부모이전소득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학력별, 가구소득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127】 청년문화 활성화_청년문화 지원 전담기구 설치 : 분산분석

(단위 : 명, 점, %)

구분		사례수	중요도 점수		응답 비율		
			5점 평균	F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전체		1,007	3.52	-	9.4	41.7	48.9
연령별	20대	507	3.53	.085	9.7	40.2	50.1
	30대	500	3.52		9.2	43.2	47.6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3.39	32.228***	11.3	47.2	41.5
	일반-취업	364	3.45		8.8	46.4	44.8
	활동가	200	3.97		6.5	21.0	72.5
학력별	고졸 이하	161	3.40	2.746	6.8	52.8	40.4
	대재/휴학/유예	292	3.49		10.6	40.1	49.3
	대졸 이상	554	3.58		9.6	39.4	51.1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3.54	.042	9.4	40.3	50.3
	300-500만원	390	3.52		11.0	40.0	49.0
	500만원 이상	319	3.52		7.5	45.1	47.3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3.59	11.409**	8.2	39.4	52.4
	부모이전소득	320	3.39		11.9	46.3	41.9

** $p < 0.01$, *** $p < 0.001$

(3) 청년문화 정책 수립 시 우선사항

○ 청년문화 정책 수립 시 가장 우선해야 할 사항은 ‘청년문화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확대(27.2%)’였으며, 이어서 ‘청년문화 공간조성(21.8%)’, ‘청년 문화예술 향유 비용 지원(17.7%)’, ‘청년문화인력 양성(10.6%)’ 순이었음

- 20대가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은 ‘청년문화 공간조성’인 반면, 30대는 ‘청년문화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확대’였음
- 일반-미취업, 일반-취업 집단은 ‘청년문화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확대’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활동가는 ‘청년 문화예술 향유 비용 지원’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재 집단은 ‘청년문화 공간조성’의 응답 비율이 가장 많은 반면, 나머지 집단은 ‘청년문화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가장 많이 응답함

【표 128】 청년문화 정책 수립 시 우선사항(1-4)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청년문화 분야일자리 창출및확대	청년문화 공간조성	청년문화 예술향유 비용지원	청년문화 인력양성
전체		1,007	27.2	21.8	17.7	10.6
연령별	20대	507	22.7	25.8	18.9	9.1
	30대	500	31.8	17.8	16.4	12.2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28.0	25.7	17.4	9.3
	일반-취업	364	33.0	18.4	14.6	11.3
	활동가	200	15.0	19.5	24.0	12.5
학력별	고졸 이하	161	32.3	18.6	16.1	11.8
	대재/휴학/유예	292	22.6	25.0	19.2	9.6
	대졸 이상	554	28.2	21.1	17.3	10.8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25.5	21.8	18.5	10.7
	300-500만원	390	24.6	21.5	20.3	12.8
	500만원 이상	319	32.0	22.3	13.8	7.8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27.3	19.2	17.1	11.9
	부모이전소득	320	27.2	26.9	19.1	7.8

【표 129】 청년문화 정책 수립 시 우선사항(5-9)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청년예술창작활동지원	청년문화분야창업지원	정책수립 및 결정 과정에 청년 참여 보장	청년문화예술교육	기타
전체	1,007	7.9	5.6	4.8	3.9	0.5
연령별						
20대	507	9.5	5.7	3.4	4.3	0.6
30대	500	6.4	5.4	6.2	3.4	0.4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5.9	5.0	3.8	4.7	0.2
일반-취업	364	8.0	5.5	5.5	3.6	0.3
활동가	200	12.5	7.0	5.5	2.5	1.5
학력별						
고졸 이하	161	8.7	3.7	5.6	3.1	
대재/휴학/유예	292	8.6	4.5	4.1	5.1	1.4
대졸 이상	554	7.4	6.7	4.9	3.4	0.2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10.1	5.7	4.4	3.0	0.3
300-500만원	390	6.4	4.4	5.1	4.6	0.3
500만원 이상	319	7.8	6.9	4.7	3.8	0.9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9.4	6.1	5.0	3.6	0.3
부모이전소득	320	5.3	5.0	3.8	4.1	0.9

(4) 청년문화 정책의 목표

- 청년문화 정책의 목표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청년문화 일자리 창출(44.5%)’이었으며, 이어서 ‘지속가능한 청년 문화 생태계 조성(13.6%)’, ‘활력이 넘치는 청년도시 조성(11.7%)’, ‘광주고유의 청년문화 육성(10.2%)’ 순이었음
- 30대는 20대에 비해 ‘청년문화일자리 창출’의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20대의 응답은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됨
- 일반-미취업, 일반-취업 집단은 모두 ‘청년문화 일자리 창출’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활동가는 ‘지속가능한 청년문화 생태계 조성’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 집단 모두 ‘청년문화 일자리 창출’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고졸 이하 집단이 가장 높고, 대재 집단이 가장 낮았음
- 가구소득별 집단 모두 ‘청년문화 일자리 창출’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0-500만원 집단은 생태계 조성과 활력 넘치는 청년도시 조성의 응답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남

【표 130】 청년문화 정책의 목표(1-4)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청년문화 일자리창출	지속가능한 청년 문화 생태계조성	활력이 넘치는 청년도시 조성	광주 고유의 청년 문화 육성
전체	1,007	44.5	13.6	11.7	10.2
연령별					
20대	507	37.1	13.2	13.6	12.0
30대	500	52.0	14.0	9.8	8.4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45.4	11.5	14.0	9.5
일반-취업	364	57.4	10.7	9.1	7.7
활동가	200	19.0	23.5	11.5	16.5
학력별					
고졸 이하	161	62.1	12.4	6.2	5.0
대재/휴학/유예	292	33.6	11.0	16.1	12.7
대졸 이상	554	45.1	15.3	11.0	10.5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42.6	13.8	9.7	11.4
300-500만원	390	40.0	15.1	15.6	9.5
500만원 이상	319	51.7	11.6	8.8	10.0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45.5	13.2	10.0	10.0
부모이전소득	320	41.9	13.4	14.7	11.3

【표 131】 청년문화 정책의 목표(5-9)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청년문화 예술가의 생활 안정 및 복지지원	일상 생활 속 문화 활동 제고	청년문화 향유증진	청년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기타
전체	1,007	6.0	5.8	5.8	2.3	0.2
연령별						
20대	507	6.1	7.5	7.3	3.0	0.2
30대	500	5.8	4.0	4.2	1.6	0.2
직업별						
일반-미취업	443	6.8	6.1	5.2	1.6	
일반-취업	364	4.4	3.3	5.5	1.6	0.3
활동가	200	7.0	9.5	7.5	5.0	0.5
학력별						
고졸 이하	161	3.1	3.7	4.3	3.1	
대재/휴학/유예	292	8.2	7.5	7.2	3.4	0.3
대졸 이상	554	5.6	5.4	5.4	1.4	0.2
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8	8.1	5.4	6.7	2.0	0.3
300-500만원	390	6.4	5.1	5.4	2.8	
500만원 이상	319	3.4	6.9	5.3	1.9	0.3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637	6.3	6.6	5.5	2.5	0.3
부모이전소득	320	5.3	5.0	6.3	2.2	

5) 소결

□ ‘청년문화 도시’로서의 광주 이미지

- 광주의 도시 이미지로서 청년들을 위한 행사나 축제가 열리는 도시라는 이미지는 다소 뚜렷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청년 도시’나 ‘젊은 도시’ 이미지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청년들 스스로가 광주는 ‘울드한 느낌’으로 인식하고 있음

○ 청년 집단별 인식 차

- 20대 미취업, 대학생 집단이 광주를 가장 청년과 친화적인 도시로 인식하고, 광주에 청년들의 독특한 문화가 있다고 인식함
- 반면, 30대 취업자들은 광주를 특색 없는 도시로 인식하고 있음

□ 광주의 청년과 청년 축제

- 광주에서 청년을 표방하여 개최되고 있는 축제들, 즉 광주세계청년축제, G-POP페스티벌, 청년드림페스티벌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와 참여 경험은 매우 낮음
 - 광주세계청년축제만이 참여율이 20%가 약간 넘고, 나머지 축제는 참여 경험 이 10% 미만임
 - 축제의 내용이 특색이 없다는 평가가 많음

□ 청년정책의 인지도와 만족도

- 청년 축제를 포함하여 광주광역시의 청년정책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사업은 ‘광주드림사업’임
 - 청년 정책 중 우수하다고 평가한 정책은 ‘청년축제 개최’ 및 ‘청년인력 양성’ 사업임
 - 청년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남

제5장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 제언

1. 광주광역시 청년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

□ 현재 광주광역시는 다음과 같은 청년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 광주드림사업
- ▶ 세계청년축제
- ▶ 광주청년센터 The숲 운영
- ▶ G-POP 페스티벌
- ▶ 광주광역시 청년종합실태조사 실시
-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과 설치
-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조례 제정
- ▶ 청년문화기획자 양성사업
- ▶ 청년예술인 지원센터 개관
-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청년쿼터제

□ 실태조사 및 FGI를 통해 드러난 청년문화 정책들에 대한 평가

○ 낮은 정책 인지도

- 개별 정책들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음.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주드림사업을 제외하면, 청년정책 조례 제정이나 청년 문화기획자 양성사업 등은 모두 10% 이하의 인지도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이벤트성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하는 정책들에 있어서는 인지도가 현저히 낮음

○ 우수한 청년 정책

- 광주광역시의 청년 정책 중 청년축제, 청년인력 양성, 청년 전담부서 신설 등은 우수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음
- 반면 청년공간 확충, 청년위원회 운영, 청년 정책 연구 및 조사 등은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은 정책임

○ 정책성과에 대한 다소 부정적 평가

- 청년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만족 보다 불만족 평가가 다소 높음
- 부정적 평가는 활동가 집단 및 대졸 이상의, 청년 정책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남

□ 광주광역시 청년 정책의 개선 방향

○ 정책 방향

- 도입 단계에 있는 광주광역시 청년 정책을 체계화하고, 이 속에서 청년문화 정책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노력해야 함
- 청년문화 정책의 의미와 방향, 기대하는 효과 등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정책 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함
- 청년문화 정책의 주요한 목적이 청년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적 형성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청년문화 정책 과정에의 청년 참여를 제고해야 함

○ 정책 내용

- 지자체의 문화정책 과정에 청년정책위원회 등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 확대

- 정책 효과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정책 인지도 제고 노력

- 학습과 성장의 욕구를 지닌 청년 세대를 위한 다양한 형성·훈련 교육기회 제공

2. 청년의 삶과 청년문화 정책의 지향

- 문화라는 개념이 지향하는 가치와 삶의 모습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어서, 결국 청년문화 정책은 청년 세대 혹은 집단의 고유한 문화적 성격을 이해·고취시키고,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자기 정체성과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지향해야 함

- 앞서 청년문화의 의미와 가치는 정신의 고양, 삶의 개성과 다양성 제고, 집단 정체성의 형성, 여가와 일상의 질적 제고, 청년들의 행복 증진 등으로 설정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음

- 이러한 가치와 지향은 좁은 의미의 문화 향유나 실천으로 해소되지 않는 삶의 구조적 조건과 실존적 상황에 관련되어 있음. 예컨대 청년의 삶을 가장 크게 규정하고 있는 취업과 경제적 여건을 괄호쳐 두고 문화와 예술적 향유를 논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짐

- 다만 문화정책이 청년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문화 예술적 수단들을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성찰적으로 사고하도록 하고, 실천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임

- 이러한 점에서 일반 청년, 취업자, 문화기획자 및 청년 예술인들과의 FGI는 몇 가지 정책적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음

1) 청년문화 정책의 지향점

(1) 문화정책의 의미

- 문화정책이란 문화 영역에서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고 관리함으로써 이념과 비전, 제도와 관행, 그리고 행위자들을 생산해내는 국가 혹은 지자체의 행위임
- 문화정책의 모순성
 - 문화정책은 한편으로 사회를 통합하는 목적과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시민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함
 - 아울러 그 수단에 있어서도 억제·규제와 후원의 이중적 행위를 동시에 수행해야 함
- 언제나 논란이 되는 것은 ‘정책’이 문화를 규제하거나 형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며, 문화 정책은 여기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근거를 정당화하게 됨

2) 청년 문화정책의 의미와 지향

- 위의 문화정책의 전망을 수용한다면, 청년 문화정책은 청년의 문화적 삶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통해 바람직한 청년문화의 형성을 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청년 문화정책은 그 이념과 의미, 지향점을 내적으로 명확히 가져야 함
- 아울러 이러한 청년 문화정책의 지향은 문화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 중 ‘긍정적인 것’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관점과 결합되어야 함. 이렇게 본다면 청년 문화정책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대략 다음의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① 정신의 고양, ‘교양 있는 시민’의 양성

- 가장 전통적인 문화 개념이 내포하는 의미는 ‘수준 높은 문화’를 학습 및 향유함으로써 인간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교양 있는 시민(cultured citizen)을 형성한다는 이상에 대한 것임
- 이 경우 학습과 향유의 대상으로서의 문화는 예술, 문화 중 수준 높은 것, 우수한 것을 지칭하며, 이러한 교육과 향유 확대 자체가 인간 정신의 고양이라는 목적과 동일시됨
- 따라서 청년 문화정책은 청년들에게 우수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학습하거나 향유하게 함으로써 정신적으로 고양된 ‘교양 있는 시민’을 형성시키는 정책의 의미를 가짐

② 삶의 개성과 다양성 제고

- 문화는 인간의 정신적·예술적 활동이자 그 결과물로서, 그 의미와 가치는 각 집단 및 공동체별로 차별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남
- 문화적 활동은 인간의 삶을 개성적으로 만들고 삶의 다양성을 확대함. 이것은 문화의 우수한 부분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 ‘높게’가 아닌 ‘넓게’라는 가치를 정당화함
- 특히 일상의 삶 속에서 비교적 쉽게 접근하고 수행할 수 있는 생활 문화적 측면에서 청년 문화정책은 청년들의 삶을 보다 독특하고 개성적으로 만들며, 삶의 다양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③ ‘청년문화’라는 자기 정체성의 형성

- 청년문화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사회의 다양한 하위문화들 중 청년문화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존재함으로써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질문임
- 모든 집단들의 하위문화는 그 집단의 독특한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음. 다른 집단·세대 문화와 구분되는 ‘청년 집단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청년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체화하는 의미를 가지며, 나아가 전체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문화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긍정적 효과를 가짐
- 청년문화 정책은 청년들이 스스로의 긍정적인 세대 및 집단 문화와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짐
- 나아가 청년문화 정책은 우리 사회의 미래 세대로서 청년들이 스스로 지향하고자 하는 의미와 가치를 구성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기성 질서로서의 사회가 나서서 그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함

④ 청년의 일상과 여가의 질적 제고

- 여가는 ‘공적 노동의 시간’과 ‘생리적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노동과 대비되는 놀이와 휴식의 의미를 가짐
- 여가가 바로 문화생활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가의 많은 행위들은 향유와 창작 등의 문화적 행위들임. 따라서 여가 시간을 의미 있게 구성하는 것은 청년들의 문화적 삶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됨
- 공적 시간과 사적 시간, 노동과 여가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현대의 삶에서 노동의 피로로부터 사적 시간의 여가를 지키는 것, 노동윤리가 사회 전반을 움직이는 노동사회의 폐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사적 생활을 보호하는 의미를 가짐

- 청년문화는 청년들의 여가의 질을 높이고, 물질원리 및 노동원리와 구분되는 탈 물질적 관심, 놀이와 자유의 인간(Homo Ludens) 정체성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함

⑤ 청년문화 정책과 개인의 행복 증대

- 문화정책은 국가에 의한 문화적 개입이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음. 이러한 실용주의적 문화관은 논쟁적일 수 있고, 비판적 문화이론은 이런 믿음에 대해 때로 부정적이기도 함
- 그렇지만 문화가 역사적으로 볼 때 개인의 ‘고양’이라는 측면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전제할 때, 문화가 그 효과 수준에서 개인의 행복에 긍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됨
- 따라서 청년 문화정책은 개인 수준에서 행복감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도록 지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행복감이나 행복의 객관적 조건의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함

2) 청년 문화의 가치 지향과 정책 방향

(1) 문화적 ‘문턱’ 넘기

○ 정책 방향

- 문화적 문턱이란 현실의 필요와 요구대로 사는 삶의 방식에서 문화라는 가치의 전환을 가져오는 경계선을 의미함
- 많은 청년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벗어나, 생계를 크게 걱정하지 않으면서 선택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으로서의 문화적 활동을 시작한 경험을 언급하고 있음

○ 주요 정책 수단

- 청년 동호회 활동 및 커뮤니티 지원
- 청년 협동조합 지원
- 청년 생활문화 공동체 지원
 - ▶ 주거, 문화, 공동체적 삶이 결합된 ‘쉐어하우스’ 지원사업
 - ▶ 지역 문화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2) 일상적 청년문화 활동 지원

○ 정책 방향

- ‘손닿는 곳에 문화와 예술’
- 일상의 삶에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접하고 향유하는 것이 청년들이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기 삶을 문화와 결합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임

○ 정책 내용

- 대학·지역공동체 문화예술 사업 지원
 - ▶ 우리 동네 예술 프로젝트
 - ▶ 마을카페, 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 청년 생활문화 지원
 - ▶ 여가, 일상적 문화, 가벼운 문화예술 향유와 참여 지원 프로그램
 - ▶ 지역 공간 활용 프로그램과 연계

3. 청년 세대의 내부 집단별 차이와 집단별 문화정책의 지향점

○ 청년 세대는 동일한 세대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지만, 문화적 향유와 활동에 있어서는 내부 집단들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남

- 첫 번째 집단은 활동가·전문가 집단으로, 이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문화적 취향과 향유 및 창작 참여를 통해 청년 문화를 적극적으로 형성해가는 집단이며, 모든 문화적 기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향유와 참여를 보이고 있음
- 두 번째 집단은 일반 청년들 중 미취업자 집단으로, 주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문화적 관심을 갖고 있으며 향유에 적극 참여하지만, 활동가 및 전문가 집단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집단임. 공적 일에 대한 부담을 아직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유로운 시간을 상대적으로 더 많은 문화 향유에 투자할 수 있는 집단임
- 마지막으로 청년 세대 중 취업한 청년들이 문화적으로는 가장 낮은 수준의 관심과 향유 실태를 보이고 있음. 이들은 문화에 대한 관심 보다는 자신의 일에 대한 헌신이 더 크며, 문화 향유를 위한 절대적 시간의 부족 및 정서적 여유의 부족으로 인해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어려움

○ 이러한 세 집단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들 집단의 공통의 관심사와, 동시에 각 집단을 위한 보다 구체화된 정책적 지향점이 고민될 필요가 있음

【표 132】 집단별 문화 인식 및 실태 차이

	활동가 청년 집단	미취업 청년 집단	취업 청년 집단
문화적 관심	매우 높음	높음	낮음
여가·여유시간	많음	많음	적음
일상문화활동	많음	많음	많음
대중문화 이벤트	많음	많음	적음
예술 향유	많음	적음	거의 없음
문화예술 실천	약간 있음	거의 없음	거의 없음
주 구성원	20~30대 문화활동·취업자	대학생	30대 취업자

□ 세 집단의 공통점과 차이와 집단에 대한 정책적 고려

① 미취업 청년 집단

○ 정책 방향

- 이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화적 관심과 선의가 높은 문화 향유와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향유와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함
- 문화예술 향유에 있어서는 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창조적 활동으로 연결되도록 관심을 제고하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내용

- 청년 문화예술 향유와 활동 지원
 - ▶ 광주 Youth Card 등의 바우처를 통한 향유 비용 지원
 - ▶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홍보
 - ▶ 청년 동아리·동호회 활동 지원사업 확대

② 취업자 청년 집단

○ 정책 방향

- 취업자 청년들이 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적극적 여가의 향유를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취업이라는 조건 하에서 문화 향유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정보 제공형 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의 접근권 제고가 핵심

○ 정책 내용

- 문화 정보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권 확보
 - ▶ 인터넷을 활용한 문화예술 홍보 플랫폼 구축
 - ▶ 모바일 앱을 활용한 문화예술 정보 제공
- 직장이라는 조건 하에서의 문화예술 향유 제고
 - ▶ 직장 공연 등의 직장 내 문화예술 향유 제고 프로그램
 - ▶ 사내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 ▶ 문화예술 시설의 연장 운영: 퇴근 이후의 향유 제고
- 여가 향유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들
 - ▶ 정주 지역 중심의 퇴근 후 여가 향유 프로그램: 독서 모임, 동호회 모임 등
 - ▶ 휴식으로부터 여가 활동으로의 전환을 위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지원

③ 문화활동가·전문가 청년 집단

○ 정책 방향

- 활동가 집단은 자신의 문화예술적 실천과 기획에 대해 뚜렷한 자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정책의 방향과 내용도 비교적 명확함
- 주어진 조건 하에서 이 집단이 고민하는 내용을 긍정적으로 반영해 가는 것이 필요함

○ 정책 내용

- 청년 예술인 지원사업
 - ▶ 청년 예술인 취업 지원사업
 - ▶ 청년 예술인 육성사업
 - ▶ 청년 예술강사 지원사업
 - ▶ 청년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
- 청년 문화산업 창업 지원사업
 - ▶ 청년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
 - ▶ 전통시장 청년 창업 지원사업
 - ▶ 청년 예술인 창업 지원사업
- 체계적 문화기획자 양성
 - ▶ 기존 지역문화인력양성 프로그램의 개선과 체계화: 단계별 심화 프로그램 마련
 - ▶ 이론과 실무 교육 구분·체계화
 - ▶ 예술가·활동가도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마련
- 마을 사업과 청년 문화기획자의 결합
 - ▶ 청년 문화기획자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등의 공간 마련
 - ▶ 마을과 청년 주거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청년 문화활동가를 위한 네트워킹 지원
 - ▶ 청년문화 네트워크 축제
 - ▶ 청년 해외문화 교류 지원
- 청년 할당제, 예술인 창작지원사업의 청년 쿼터제 확대
- 예술가 자격증 혹은 경력 증명 제도
- 정책 결정과정의 예술인·문화기획자 참여

4. 청년문화의 다양성과 문화정책

- 청년들의 문화적 양상을 일상문화, 대중문화 이벤트, 예술 향유, 문화예술 창작 등으로 크게 구분할 때, 이 각각은 서로 구분되는 질적 속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상문화활동은 다른 일상문화활동과의 상관성이 별로 발견되지 않음. 이것은 일상문화활동이 서로 독립적인 성질의 활동임을 의미하며, 한 활동이 다른 활동을 촉발하는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의미함
 - 대중문화 이벤트에서는 약한 상관성이 발견됨. 이것은 대중문화 이벤트 참여가 다른 이벤트 참여를 더 높이는 효과가 어느 정도 존재함을 의미함
 - 예술 장르별 향유에서는 매우 뚜렷한 상관관계가 발견됨. 한 장르의 예술을 향유하는 이들은 다른 예술 장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줌
 - 예술창작 활동 역시 서로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 한 장르의 창작활동 참여는 다른 형태의 창작 참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줌

□ 문화 실천 유형별 청년문화 정책

① 일상문화활동 및 대중문화 이벤트와 생활문화

○ 정책 방향

- 일상문화활동이나 대중문화 이벤트 참여는 접근이 용이하고 향유와 참여의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다양한 통로와 플랫폼을 통해 향유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하지만 이런 실천이 가지는 효과 역시 아직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확인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방향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함

○ 정책 내용

- 일상문화활동을 문화예술 향유와 창작으로 이끌 수 있는 생활문화 프로그램 모색
 - ▶ 청년 친목과 수다 모임
 - ▶ 청년 카페
 - ▶ 마을 활동 등
- 온라인 문화활동의 가능성 확대
 - ▶ 지역 온라인 동호회 활성화
 - ▶ 인터넷 플랫폼의 문화예술 참여 프로그램 마련 등

② 문화예술 향유 제고

○ 정책 방향

- 예술 장르들 간에는 상호간 향유와 참여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또 집단별로는 20대 대학생들이 가장 적극적인 향유 집단임을 확인하였음
- 따라서 향유 비율이 낮은 장르들 및 소극적 향유 집단인 30대 취업자 집단을 위한 접근성 제고 방안을 찾아야 함

○ 정책 내용

- 청년의 문화향유 전반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
 - ▶ Youth Card나 바우처 지원

- ▶ 문화예술 창작기반 지원
- ▶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홍보 등
- 향유 소극적 집단을 위한 지원책
 - ▶ ‘직장인을 위한 문화예술 관람’정책
 - ▶ 직장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 문화예술 향유를 유도하기 위한 문화예술 교육

③ 문화예술 창작 제고

○ 정책 방향

- 청년들이 단순 문화실천으로부터 보다 높은 수준의 문화적 욕구를 실현해나가는 것을 지원
- 전문적인 기획자나 창작자 보다는 적극적인 문화예술 창작에 참여함으로써 문화 실천을 제고하고 자신의 삶의 개선하도록 지원

○ 정책 내용

- 문화예술의 기획과 창작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
 - ▶ 기획자 양성 교육기회 확대
 - ▶ 예술 창작 참여기회 확대
- 자발적인 문화기획 및 예술창작 동호회 형성 지원
 - ▶ ‘생활문화공동체’사업 연계
 - ▶ 대학, 직장 등의 창작 동호회 지원
- 온라인 플랫폼 문화예술 기획 및 창작 동호회 지원

- ▶ 온라인 문화예술 창작 동호회 지원
- ▶ 온라인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창작 정보 제공

5. 청년 문화공간 정책

○ 정책 방향

- 공간 문제는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이 가장 민감하고 또 절실히 생각하는 사항
- 청년들의 자발적 문화예술 동호회, 공동체적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및 청년 문화기획자·활동가·예술가 등을 위한 공간 마련
- 청년들끼리 공유를 통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정책 내용

- 도시 재생사업과 연결하여 청년 문화 아지트 제공
- 문화기획자 등을 위한 공동 쉼어하우스 임대·구입 지원
- 대관 가능한 청년 활동가 공간 확보

6. 이후 사업 방향 제안

- 이 연구는 청년문화의 개념과 범위를 이론적으로 명확히 하고, 청년문화의 내적 다양성과 청년 집단의 동질화 및 분화 경향, 청년문화가 지향해야 할 상태 등을 경험적 조사를 통해 확인해보는 시험적 성격을 갖고 있음
- 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하듯이, 청년문화는 몇몇 구성요소들을 통해 형성되거나 제고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있고, 또 청년 집단의 일상의 경험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질적 특성도 존재함. 예컨대 청년의 문화 향유와 창작은 전자에 해당되고, 청년문화의 고유한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혁신성, 저항적 성격 등은 후자에 해당됨
- 이 두 가지 성격의 문화적 내용이 서로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면서 가장 높은 수준의 문화적 실천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중심으로 청년문화의 모범을 창출하는 정책을 추진해볼 수 있음. 여기서 청년문화 정책은 청년문화에 대한 방향 지시자 역할을 수행함

1) 청년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 정책 방향
 - 청년의 문화실천 영역 중 정책적 개입을 통해 '발굴'할 수 있는 청년문화 형태를 탐색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문화의 모범을 제시
 - 문화실천 영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실천인 문화예술 창작 활동이 중심이 될 수 있음

○ 정책 내용

- 거점 공간 중심 혁신적이고 우수한 청년 문화예술 창조 활동 발굴 및 지원
- 청년 문화예술 활동가 지원을 위한 기초 실태조사

2) 청년 생활문화 활동 지원

○ 정책 방향

- 일반 청년들을 문화예술 향유로 유인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문화예술 교육이나 동호회 등을 통한 생활문화 활동임
- 생활문화지원센터와 연계한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 모색

○ 정책 내용

- 생활문화 활동, 문화예술 창조 동호회 활동 실태 및 지표조사
-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 모색

3) 취업자 청년 문화예술 창작 제고

○ 정책 방향

- 여가시간이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 직장인들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 제고
- 취업자 청년의 모범적인 문화예술 창작 사례 발굴

○ 정책 내용

- 청년 직장인 사내 문화예술 창작 동아리 시범사업
- 문화시설 거점 청년 직장인 문화예술 동호회 시범사업

<참 고 문 헌>

■ 학위 논문

김수연(2011). 「공연예술분야 인큐베이팅 활성화 방안」, 추계예술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학위 논문

민유선(2016). 「복합문화시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교밖 문화예술정책」,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문화컨텐츠학과 석사학위 논문

이송이(2005). 「프린지페스티벌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책보고서

광주광역시(2016). <청년정책 기본계획>

광주광역시(2015). <광주청년종합실태조사>

광주문화재단(2017). <광주광역시 청년문화실태조사>

광주문화재단(2017). <청년문화실태조사 FGI>

김기곤 (2016). <지역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광주전남연구원

김태완 외(2012).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영정 외(2015).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백정호 외(2016). <광주지역 청년 취약성과 자립기반연구>, 광주광역시

부산문화재단(2016). <2016 청년문화 육성지원 기본계획>,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2014). <부산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및 지원방안>, 부산광역시

연구진

책임연구원 박 해 광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이 소 영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박 순 영 <㈜폴인사이트 연구2팀장>

자문위원

김 기 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전 고 필 <대인예술시장 감독>
정 두 용 <청년문화허브 대표>

광주 청년문화 활성화 정책 보고서

2017 광주청년문화실태조사 사업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처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발행인 김윤기
발행부서 정책기획실 정책연구교류팀
만든 곳 레이아웃 (070-8277-2589)

간행물 등록번호

54-B553052-0027-10



광주문화재단
Gwangju Cultural Foundation